

건축사

1999 **12** vol. 368

칼럼 새로운 민레니움에 깨는 우리의 기대

특집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II)

작품노트 만남 I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II) - 신도시(상)





曉星드라이비트株式会社
HYOSUNG-DRYVIT CO.,LTD.

設計 CONCEPT의 充實한 行動 파트너

효성드라이비트

효성드라이비트를 다양한 건축물에 친숙한 공법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달해 주신 건축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외벽단열 및 마감재의 획일적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 효성은 드라이비트공법의 도입개척자로서 그리고 업계 선두주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이미 알고 계시는 드라이비트의 장점과 새롭게 전개되는 효성만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능적 재료로서의 부가가치가 탁월합니다.
건축비용의 현격한 절감과 30%이상의 에너지절약으로 드라이비트의 실용성과 경제성은 여타 재료의 추종을 불허하며, 최근에는 외단열마감재의 영원한 과제로 여겨왔던 오염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내오염 마감재를 개발함으로써 적용한계를 초월하는 개가를 거두었습니다.

공신력 높은 업체로서 본분을 다합니다.
효성드라이비트는 국내 외벽단열업계에서 유일하게 사용 자재 일체(접착제, 마감재, 유리섬유 MESH, EPS Board, 내오염마감재)와 숙련된 시공력을 Total로 공급하고 사후 품질을 철저히 보증하는 회사이며, 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KS, ASTM(미국공인규격), ISO 9002등 품질관리상의 공신력 있는 규격을 준수하고 이의 인증을 획득한 신뢰받는 회사입니다.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합니다.
노후된 건물의 개보수에 최적인 외벽단열 및 내부마감공법은 공법 고유의 특징점에 효성의 창조적 기술개발과 환경친화적 기업정신의 실천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건축주에 제공하고 있으며, 용인에버랜드 등 자유롭고 섬세한 조형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시공을 통해 축적한 몰딩시스템(EM)의 Know-How와 내외장겸용 광범위 마감재인 유로스 타코를 보급함으로써 드라이비트의 고급화, 고품격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아끼지 않습니다.
효성드라이비트는 외벽디자인 및 Coloring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IDEA를 제공하고, 제반 기술지원 서비스에 있어 일선직원은 물론 경영진까지도 건축사 여러분의 문의를 직접 받고 즉각적인 응답을 드리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직통: 02-518-3011)

이제 효성은 10년 이상 축적된 총체적 역량과 설계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MIND를 바탕으로 작품의도를 100%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충실한 행동파트너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효성드라이비트(주)

대표이사
건축기술사

金 承 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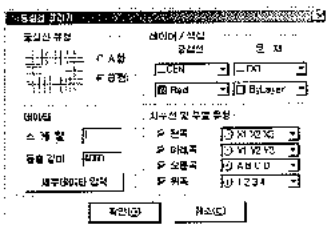
6 개 월 무 이 자 할 부 판 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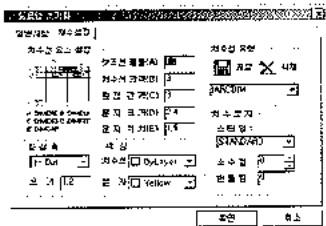
IntelliCAD/IntelliARC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인텔리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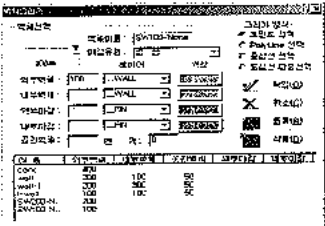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IntelliARC 의 Upgrade 기능 안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많은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다이나웨어 홈페이지 <http://www.iarc.co.kr>에서 지금 다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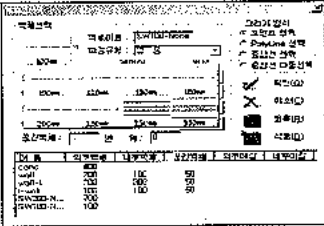
▲개선된 중심선 그리기



▲개선된 치수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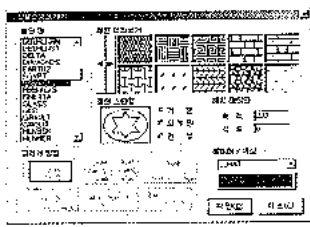
▲다중 벽체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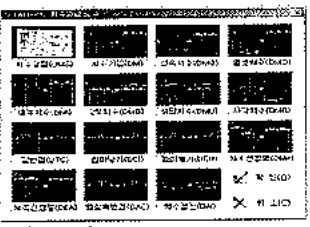
▲개선된 벽체선택/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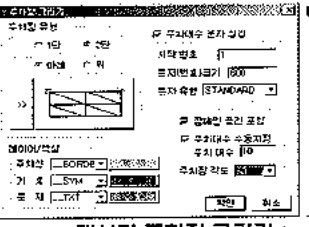
▲개선된 벽체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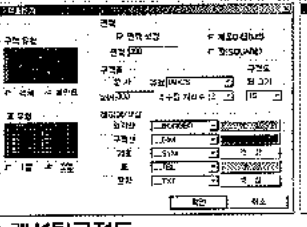
▲인텔리아크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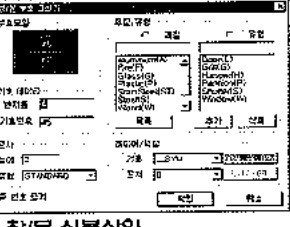
▲치수기입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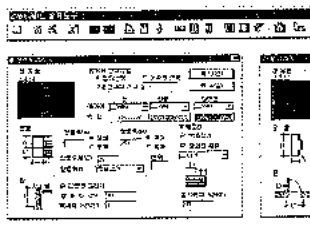
개선된 주차장 그리기



▲개선된구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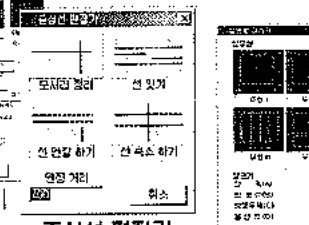
▲창/문 심플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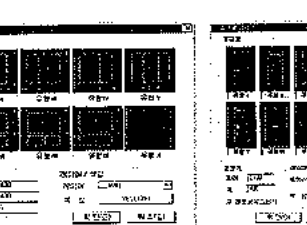
▲창문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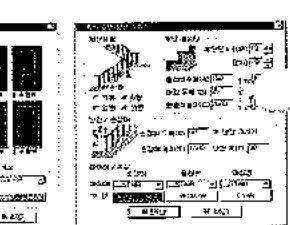
▲문그리기



▲중심선 편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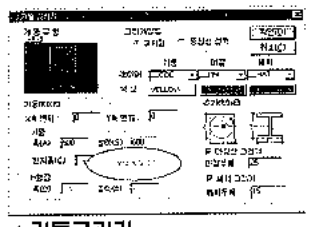


▲창문 그리기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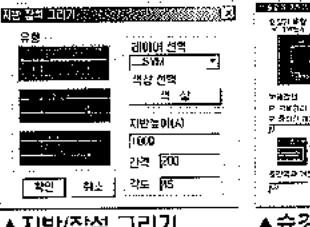


▲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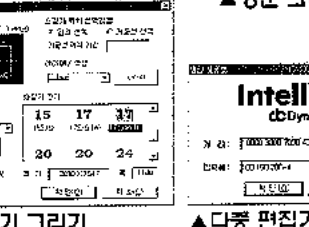
▲계단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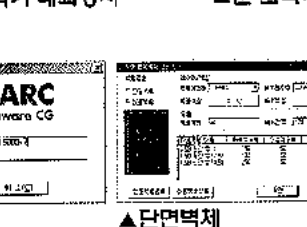
▲기둥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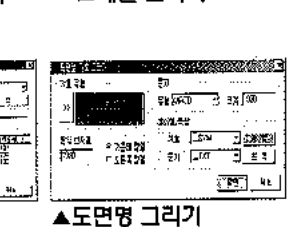
▲지반/잡석 그리기



▲승강기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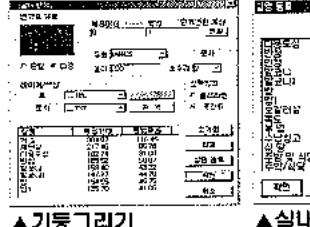


▲다중 편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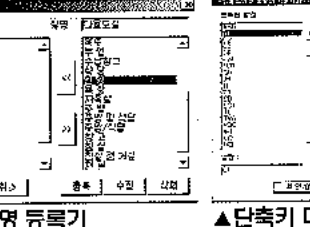


▲단면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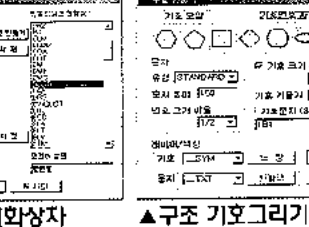
▲도면명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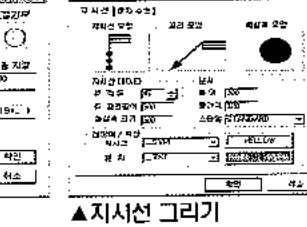
▲기둥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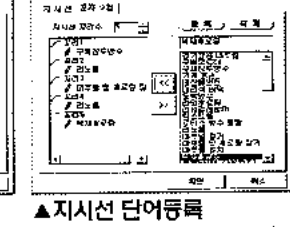
▲실내명 등록기



▲단축키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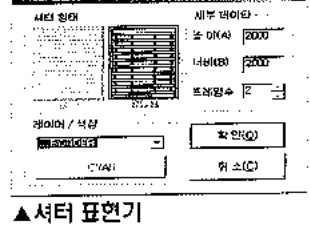


▲구조 기호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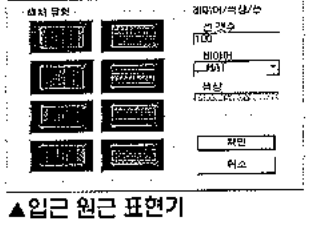


▲지시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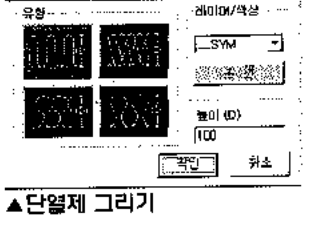
▲지시선 단어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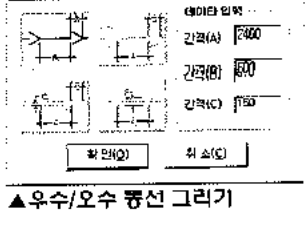
▲서터 표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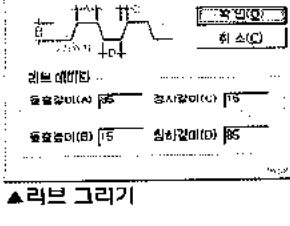
▲입근 원근 표현기



▲단열제 그리기



▲우수/오수 통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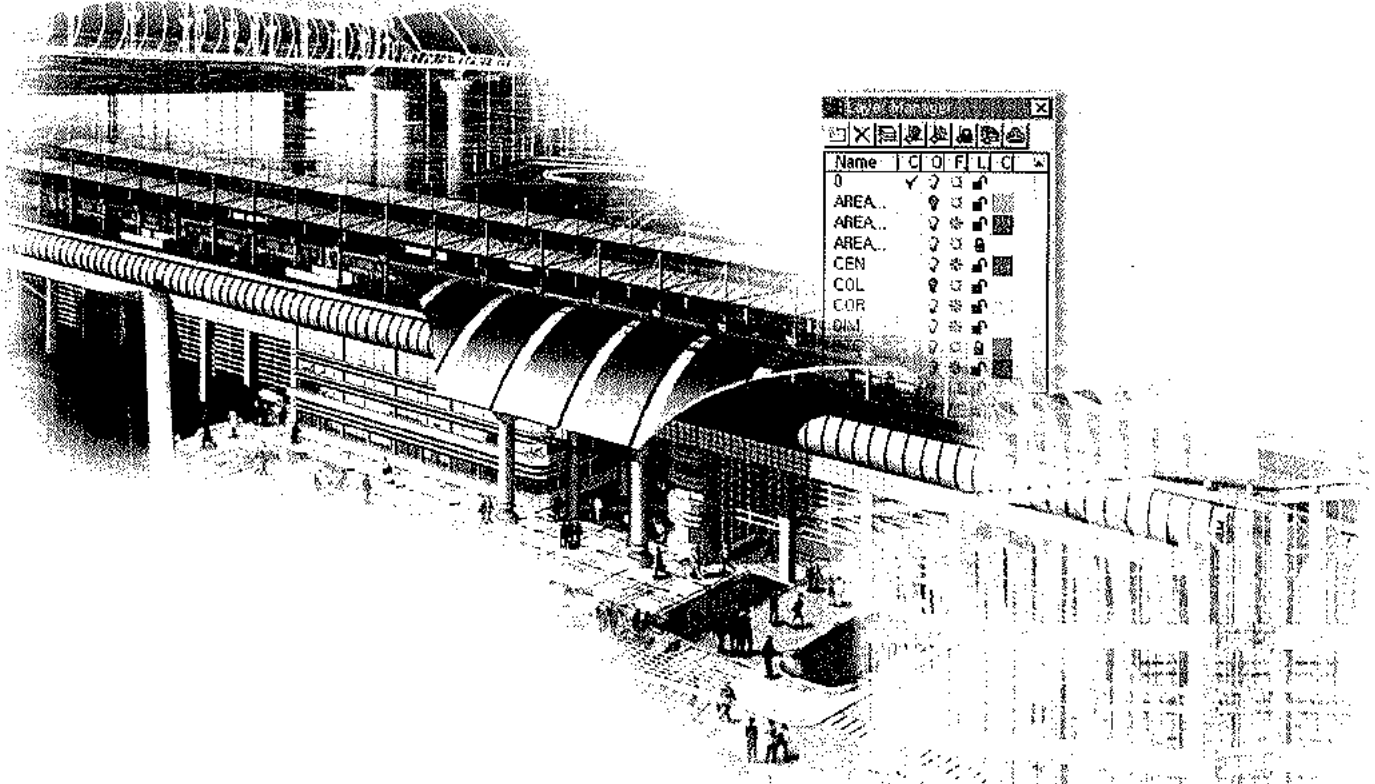
▲라브 그리기

IntelliARC 개발사
다이나웨어 씨지
<http://www.iarc.co.kr>
TEL:02-2214-0586 FAX:02-2244-0386

IntelliCAD/IntelliARC
[주]인텔리코리아
<http://www.icad.co.kr>
TEL:02-323-0286 FAX:02-322-0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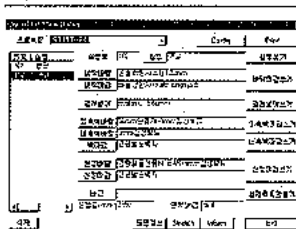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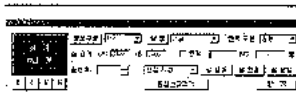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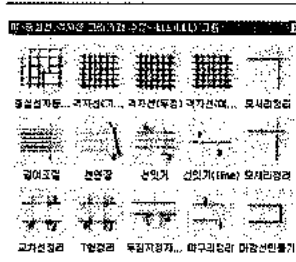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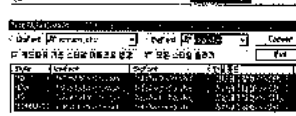
CADPOWER 21

RELEASE 9.0



21세기의 건축설계 "CADPOWER"가 책임집니다.

건축인의 관심과
사용자의 요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년동안 개발한
CADPOWER는
건축인 모두의 것입니다.



CADPOWER 21은 오랜 경력의 건축설계전문가 집단의
최고의 프로그램머 그룹이 만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개발환경과 사용자 정의에 의한 CAD
환경구축으로 설계업무에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CADPOWER 21의 특징

- 건축 실무자 중심 개발
- 작업의 효율성
- 명령어의 통합
- 단순화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배려
- 새로운 모습(새기능)

CADPOWER 21의 새로운 기능

- 계획설계 지원(Object ARX Base)
- 명령어의 단순화와 통합화
벽, 문, 창, Dimension, Layer
- 사용자 Menu 구성
명령어 그룹별 관리, 사용자 정의 가능
- 동적인 수정과 일괄처리에 의한 마감재 작성
마감재 DB구축, 사용자 정의에 의한 마감표 정의,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 일괄적인 수정 가능
- MC설계 지원
"공동건축물 MC설계 지침"에 따른 MC설계 지원
- 도면관리 지원
설계직업 정보를 도면과 통합적으로 관리, DB구축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기능
Text Convert 기능(사용자 정의 폰트로 변경)
Layer Control
Onekey(타프로그램과 호환)
- 기존 CADPOWER 기능 강화(DRS, CC, MMD,
WAL...)
- TEXT편집 기능, Arc(벽, 면적)지원
- Autocad R14 이상에서만 지원

 (주) 건 캐 드
GAUN CAD CO., LTD.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7-6 갑목빌딩 4F

Tel:584-6480 Fax:587-1803

http://www.ait.co.kr e-mail:info@gauncad.ai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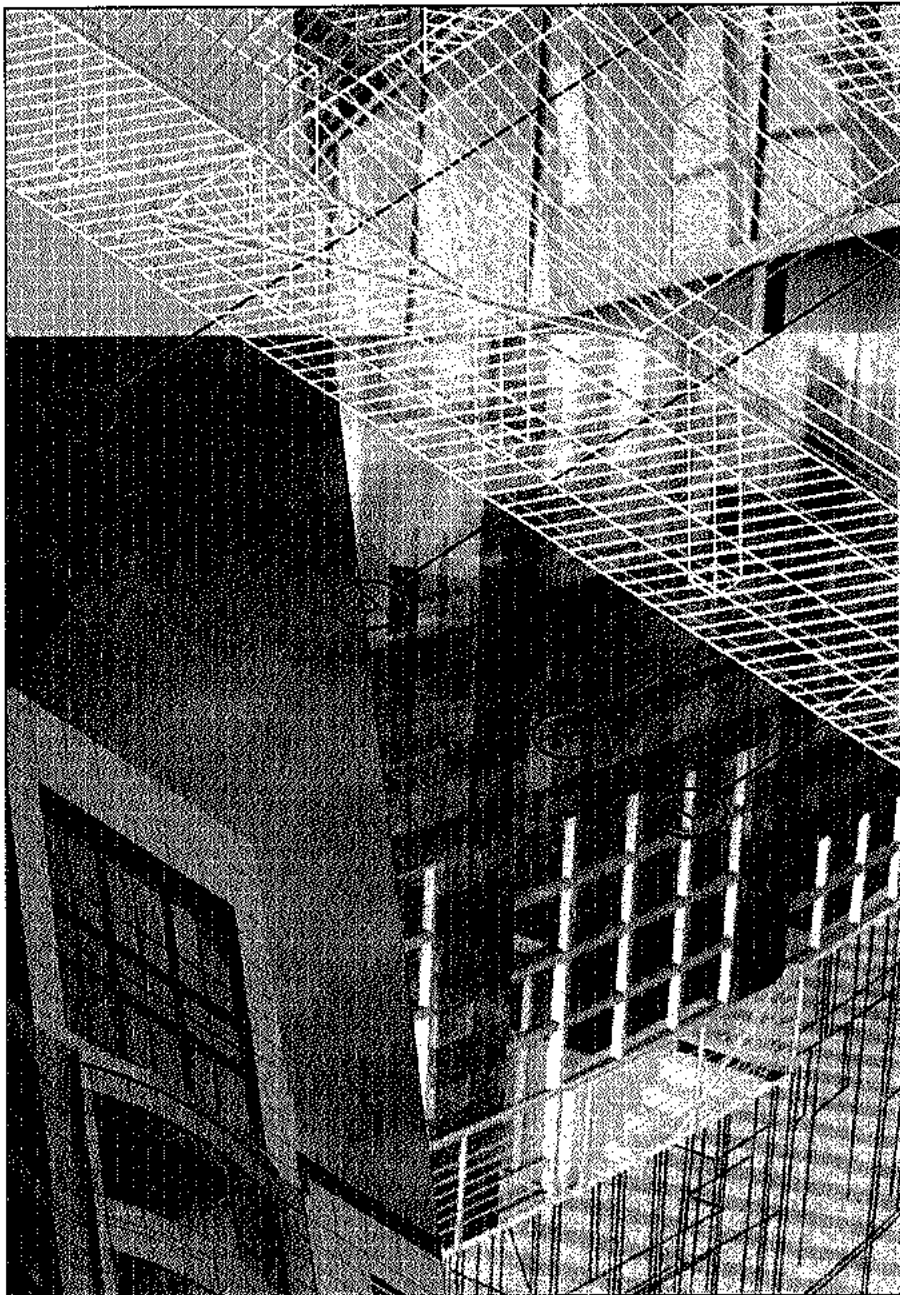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성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9
www.autodesk.co.kr

DESIGN
YOUR
WORLD™

三位一體!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R2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시설계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 번에 끝납니다.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유형기반 AEC 객체 지원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 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뷰 시스템에 의한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건축요소와 관련된 각종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ADT Visualization Suite

ADT R2+3DS VIZ R2 통합 패키지

ADT로 작업한 3차원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편집, 렌더링, 애니메이션화 하여 통합 프리젠테이션 환경 제공

-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 ADT파일과의 완벽한 호환
- Panoramic 렌더링 지원
- DWG Linking 및 ObjectARX™ 애플리케이션 지원
- 수백가지의 AEC 객체 샘플 및 유연한 3D 객체 스캔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건축/엔지니어링/측량 협력업체

(주)건캐드 584-6480, (주)라인테크시스템 569-1814, (주)에너텍 2271-1781, 한국씨.아이.엘(주) 515-3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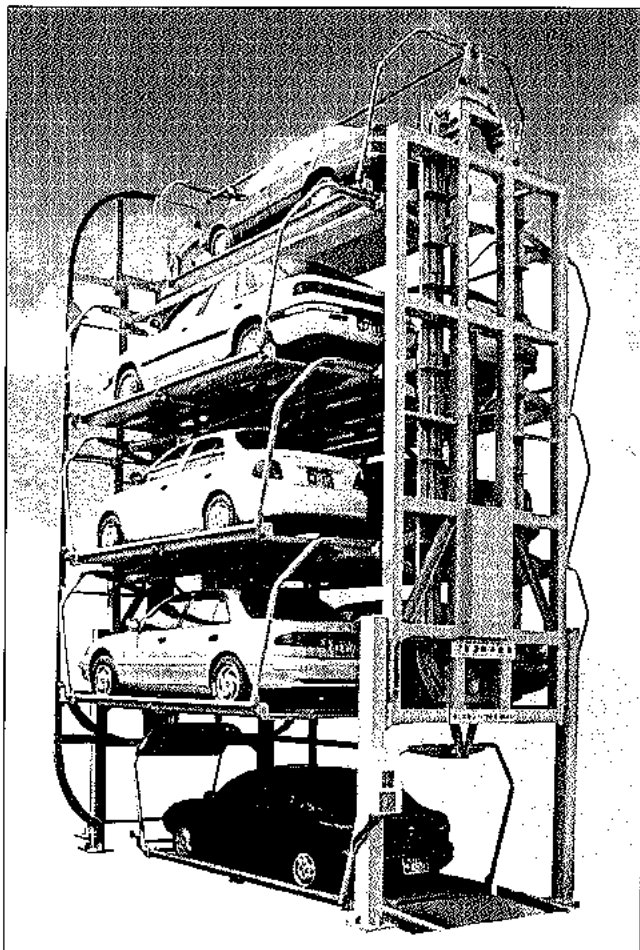
Architectural Desktop

ADT

인정서번호 대구 제1-15호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適者生存의 無限競爭時代
"자신 있습니다"



사양

모 델 명	수용대수	외형치수(전폭, 전장, 소요높이)		
SKY PARK8	8대	4570	5990	9370
SKY PARK7	7대	↓	↓	8480
SKY PARK6	6대	↓	↓	7590
SKY PARK5	5대	↓	↓	6700

※뉴그랜저급 수용가능 ※탄대이론 내장형도 개발중

※지메콤(PH)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대구 제4-25호)



21세기 신주차개념의 주차기 전문회사
창공駐車産業
CHANG GONG INDUSTRY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271번지
ADD:#756-271, Gum Sa Dong, Dong Gu, Tae Gu, Korea
TEL:(053)956-8838(代) FAX:(053)984-1998 E-mail:cgp21@chollian.net
H·P:011-507-8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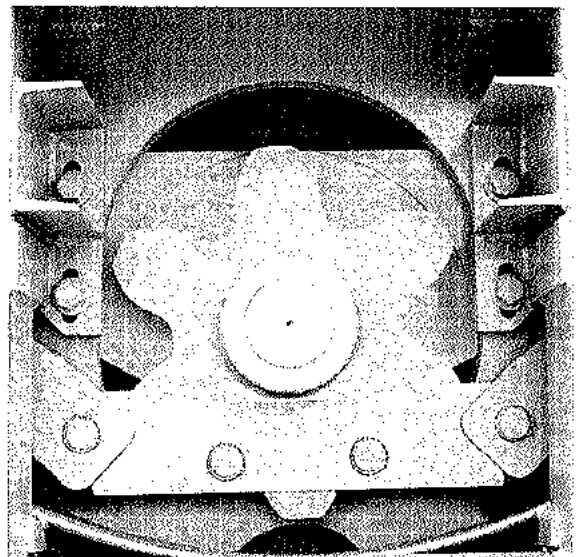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더 이상의 고품질은 사치다!!
더 이하의 저가격은 덤핑이다!!
더 이하의 주차기 폭은 불가능하다!!

세계최소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이렇게 다릅니다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직결구동의 新메커니즘



따라서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수출상담 및 전국대리점 모집중

EZEN 2000 축제 이벤트<1> "이젠 새로운 2000년을 맞아 축제를 펼칩니다.

올가버린 톱스 (DOPS) 를 찾습니다!

"톱스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냐 톱스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
(기존의 Dops 고객/Dops를 알고 계신분)께는 후사하겠습니다.

인상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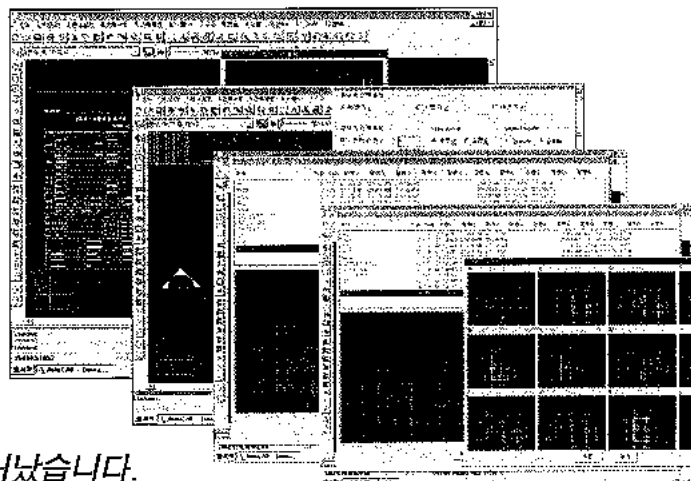


Dops 1.0

Dops 2.0

Dops 3.5

⇒ power plan 4.0



Dops 1.0, 2.0, 3.5가 power plan 2000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설정/도면정보관리/프로젝트개요/설계개요/건축허가서/동별개요/현장조사서/건축물현황도면/설계진행방법/건축법규

건축도면 작성

* 도면표지 및 도면목록/설계개요, 지적도, 구적도, 공동주택 규모산정/면적표작성/입면도 계단단면/창문단면/스케줄표작성
* 중심선 편집/벽체자동드로우/벽체편집 등록/창호22타입/창호타입변경/창호심플, 디테일
* 계단평면5가지/화장실 유니트/도면부호/건축유틸리티/라이브러리
* 실명,실번호 자동정리/마감상세입력/실부호 갱신,조회,수정/실내마감표 자동작성/창호일반사항/창호일람표 자동작성/창호상세도작성/창호라이브러리 등록

구조도면 작성

* 철근,철골 일반사항
* 구조리스트 : 스라브,보,기둥,기초,옹벽,드라이에어리어,계단
* 구조평면 : 스라브,보,기둥,기초,옹벽, 드라이에어리어,계단,집수정,매트기초,레벨표시,철골리스트,단표시,부재부호,형강그리기
* 파워플랜은 각각의 건축사무실에 맞게 환경을 구축하는 강력한 표준화 도구입니다.

설계 표준화

* 설계사무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위해서 AutoCAD와 데이터베이스를 접목 시켰습니다.
* 도면양식, 각종타입, 부호,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으며, 공통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후사내용

- * Dops를 보호하고 계신분 : POWER PLAN2000(시중가 75만원)을 5만원에 UP-GRADE 해 드립니다.
 - * Dops를 알고 계신분(하나 더 구입하실 때) : POWER PLAN2000(시중가 75만원)을 70% 할인 금액 30만원에 드립니다.
- "(EZEN 2000 축제)"의 일환으로 마감물량자동화프로그램(시중가 420만원) 50% 특별할인권을 드립니다. 이젠 2000 축제 할인기간 2000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월 31일 한달간 만 감사할인 기간임

찾는이

POWER PLAN 2000 : DOPS의 형(버전 --업)으로 AUTO CAD R14는 물론 2000의 친구로 서로 잘 어울립니다.
건축설계자동화를 이루겠다는 일념하나로 태어난 최적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기존의 DOPS가 가지고 있던 DOPS PRO V3.5와 DOPS DESIGN V3.5의 결합은 물론 한글까지 내장되어 일반 워드프로세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멋진글 2000 기능이 추가 지원 됩니다. 건설분야의 CM/CE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국외의 모든 자재에 관한 코드체계를 완벽하게 호환할 수 있는 개략견적 기능(비용코드체계포함)을 추가 하였습니다.

WIN-WIN 전략 <엘콘과 함께 할 우수한 대리점과 딜러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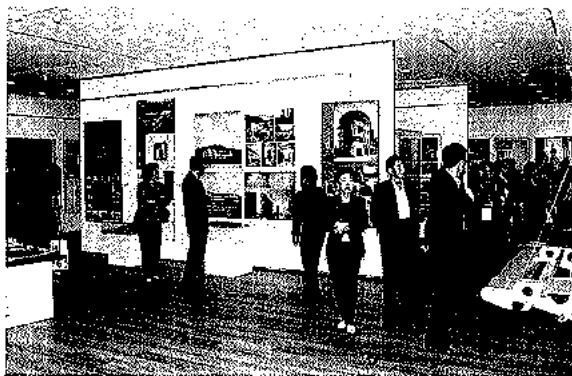
DOPS와 POWER PLAN2000의 상표와 상호는 (주)엘콘 시스템 · 엘콘 기술연구소에 있습니다.
상기 각 등록상표는 각 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21-2 서초타운빌딩 3층 TEL : 02-585-8880(대표) FAX : 02-585-9066



EL-CON SYSTEM
(주)엘콘 시스템 · 엘콘기술연구소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대관안내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새로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 평(198㎡)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5만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건축과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아카시아 건축상 특별전시회 안내

건축사회관 Architect's Gallery에서는

1999. 12. 14 ~ 2000. 1. 31까지

아시아 각국 우수 건축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

(ARCASIA Awards 1999 - 2000)의

부문별 수상작과 출품작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건축인과 학생 그리고 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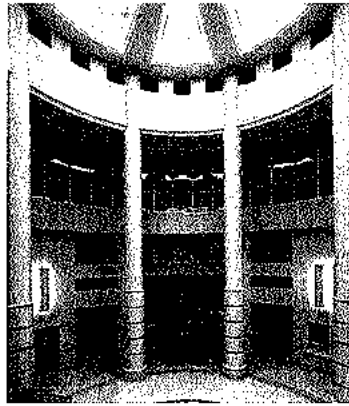
많은 분들의 관람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관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 지점)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한국은행 광주지점 (이영희 作)

17

21

25

22



발행인: 이의구
 편집·기록: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희, 조인숙, 조현근,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 10월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성문사 (02)2266-4555
 광고: (주)아두컴 (02)518-6856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a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새로운 밀레니엄에 가는 우리의 기대	장석웅	12
회원작품	한국은행 광주지점	이영희	14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조소동	서보광	16
	MODUS · 한국학술진흥재단	김인철	18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정연근	20
	신원동 S씨 주택	장재소+조남호	22
	26센터	마성호+박주환	24
	건국대 충주캠퍼스 실내체육관	장석웅	26
작품노트	만남 - I	김희곤	28
특집 /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 (I)			
	경제 위기의 다음은 기회이다	김준한	31
	경영 경영혁신의 새모델	백준홍	35
	역사 한국건축의 전통성과 정체성	이상해	37
	사회 건축의 현실, 현실속의 건축	정기용	41
	문화 문화의 세기	윤호미	44
기고	'99건축계를 돌아보다	김득수	46
	설계변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석목	48
보고서	PPC회의 참관기	이근창	51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10)	김미상	54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Ⅱ: 신도시(상)		편집디렉터/동정근	61
	신도시건설의 배경과 도시계획적 의의	민범식	62
	과천 역사와 삶이 담긴 지역만들기	이영수	67
	평촌 역사환경에 따라서	최승원	71
	중동 주변과 지역성	손기찬	74
건축마당	건축만평		79
	협회소식		80
	건축계소식		82
	현상설계		89
	해외잡지동향		95
	법령		101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999년 10월분)		105

Column		
Our Hopes for the New Millennium	Jang Seok-Woong	12
Works		
The Bank of Korea, Kwangju Office	Lee Young-Heel	14
The Plastic Arts Hall of Kyung-pook University	Suh Bo-Kwang	16
Korea Research Foundation Building	Kim In-Cheurl	18
Pusan Independence Hall	Jeong Yeon-Keun	20
Sinwondong Seo's Residence	Jang Jae-So & Cho Nam-Ho	22
26 Center	Ma Sung-Ho & Park Ju-Hwan	24
The Gymnasium of Gunkook University, Chungju Campus	Jang Seok-Woong	26
Design Note		
Friendship- I	Kim Hee-Gon	28
Special Feature /		
The Vision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Economics Opportunity Follows Crisis	Kim Jun-Han	31
Management A New Model for Reformation	Baek Jun-Hong	35
History The Legitimacy and Identity of Korean Architecture	Lee Sang-Hae	37
Society Architecture's Reality, Architecture in Reality	Jeong Gi-Yong	41
Culture Century of Culture	Yoon Ho-Mee	44
Feature		
Looking Back at 1999's World of Architecture	Kim Deuk-Soo	46
The Structural Problems in Design Modification System and Their Solution	Lee Seok-Mook	48
Report		
Report of Professional Practise Commission Meeting	Lee Geun-Chang	51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10)	Kim Mi-Sang	54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5]: Newtowns	Dong Jung-Gaun	61
The Story Behind New Town Projects and Their Significance in Urban Planning	Min Beom-Sik	62
Kwachon Building a Place of History and Life	Lee Young-Soo	67
Pyungchon Following the Historical Environment	Choi Seung-Won	71
Jungdong Circumference & Regional Value	Sohn Ki-Chan	74
Architects' Plaza		
Cartoon		79
KIRA News		80
Archi-net		82
Competition		89
Overseas Journal		95
Laws & Ordinances		101
Statistics		10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단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6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8-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공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0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8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6 · 중랑구건축사회/457-7356 · 노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8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3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04-4121 · 민선건축사회/(0345)480-0730 · 민양지역건축사회/(0343)449-2698 · 2정부지역건축사회/(0351)657-8149 · 아현지역건축사회/(0336)535-0545 · 광덕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5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3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90)3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366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8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88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0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7-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7-2223 · 익산시지역건축사회/(06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8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6 · 울진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660 · 영천지역건축사회/(0663)334-8256 · 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8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943-0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마천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시천지역건축사회/(0563)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1)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5)883-4612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새로운 밀레니엄에 거는 우리의 기대

Our Hopes for the New Millennium

장석웅 / (주)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by Jang Seok-Woong

요즈음 온세계가 새천년을 맞이할 이벤트행사 준비에 언론매체마다 대서 특필하고 있다.

새천년의 시작이 이제 눈앞에 다다랐다. 다가오는 새 밀레니엄은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 사이에 높은 울타리나 굽은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인데도 모두가 떠들석한 것은 세월의 흐름에 의미를 두어 새로운 다짐과 새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자는데 큰 뜻이 있는 듯하다. 새천년의 출발이 이렇듯 요란한 것은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축계도 이제 오늘을 자성하고 개혁하여 미래에 대한 새 각오로 새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1997년 12월,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편입되어 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좌절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더불어 끊임없이 급변하는 세계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건축계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이며, 장차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IMF이전에는 "AA-" 이었던 것을 "BBB-"로 급락시켰다가 최근 "BBB"로 한단계 높여주었지만 일부 소비패턴의 회복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상태는 칼날 위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이고 보면 우리 건축인이 느낄 수 있는 청신호는 과연 언제쯤일까 매우 걱정스럽기만 하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건설경기의 IMF이전 수위로의 복귀는 대략 2004년경으로 보고 있어 생존에 대한 걱정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업천에 업천격으로 우리 건축전문직의 국제적 인증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많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늦게나마 우리 건축계도 세계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와 기준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6월 UIA(세계건축사연맹) 북경대회에서 건축교육과 건축사 상호인증 등 전문직에 대한 국제장려 기준을 발표하였고,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기술자 상호인증 협약이 이미 1993~1996년 기간 중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건축교육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1994년 이후 각종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주변여건의 냉대로 실패하였고 이제와서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기존 교육제도는 국제적 인증기준에 턱없이 미달되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직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없는 등 국제적으로 각종 불이익이 초래될 뿐만아니라 전문직종에 관한 국제적 고립을 면키 어렵게 될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기술인력 확보가 불가능함은 물론 많은 용역대가로 외화가 빠져나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되고 있다. 변화에 발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중국을 비롯한 이웃국가가 부럽기만 하다. 이제부터라도 관, 학, 산이 힘과 뜻을 합쳐 하루속히 대학교육제도 개선과 기술직 면허 상호인증을 위한 각종협약 및 교섭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건축계의 앞날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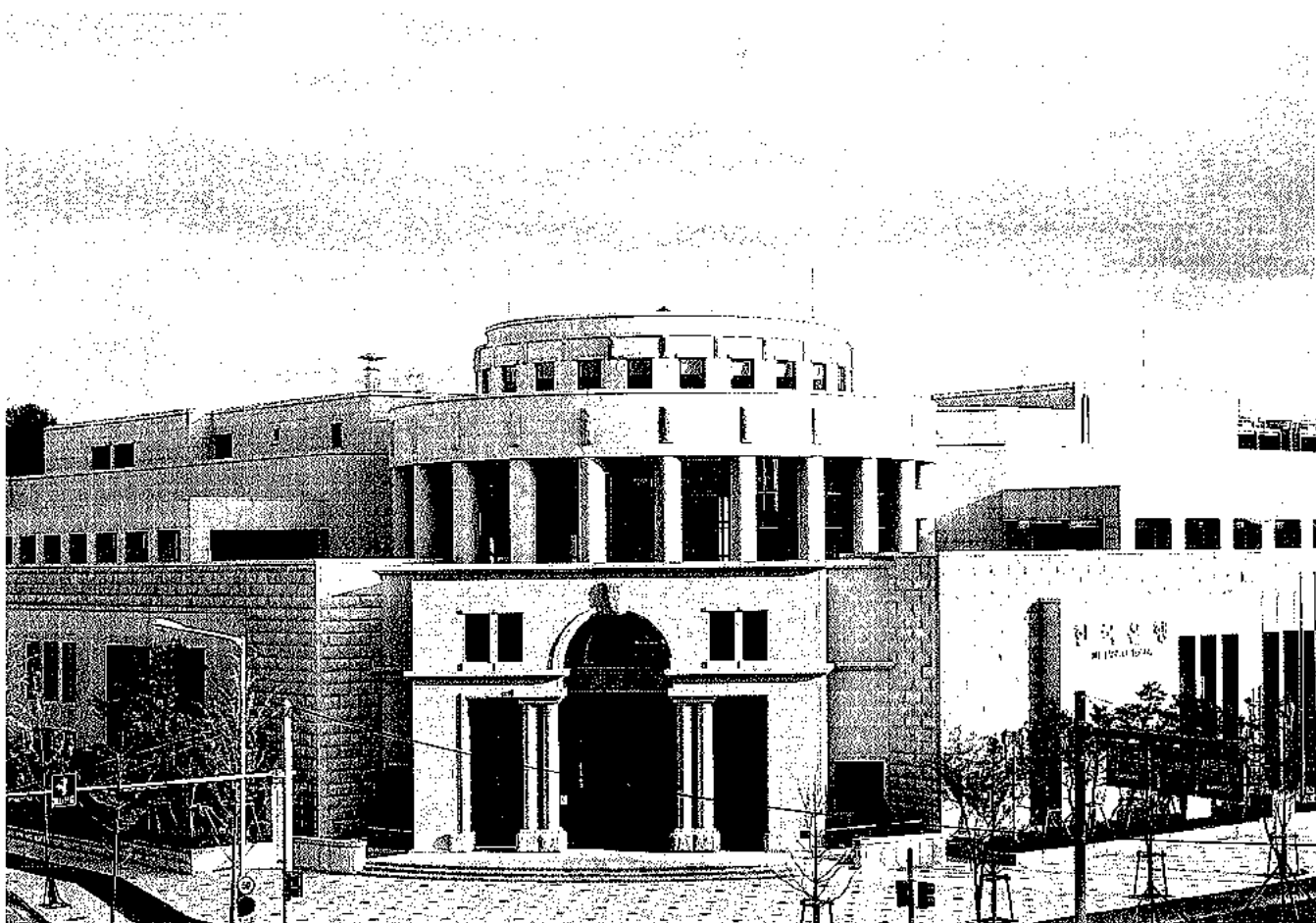
1999년은 우리들이 선포한 “건축문화의 해”로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건축 3단체는 협력과 화합하여 국제대회 및 국내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름대로 건축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항상 만족은 얻을 수는 없으나 이번 ‘건축문화의 해’는 새천년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과거 100년을 돌아보며 오늘을 조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된 미증유의 행사였다. 과거 시대상황에서 낳은 건축3단체가 이제는 한 목소리로 멋진 화음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천년의 새기운으로 묵은 때를 밀어버리고, 화합하여 단결된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국경은 없고 문화는 있는 시대라고 한다. 21세기는 상상을 초월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환경이 중요시되고 국경을 초월한 개방으로 무한경쟁시대이다. 그래서 새천년의 출발은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 강한 도전으로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과 도전의 시대에는 획기적인 의식개혁으로 기존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화합된 우리 건축인의 사회적 책임과 권한이 담긴 비장한 새각오의 메시지가 온세계인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 외쳐야 하겠다.

한국은행 광주지점 The Bank of Korea, Kwangju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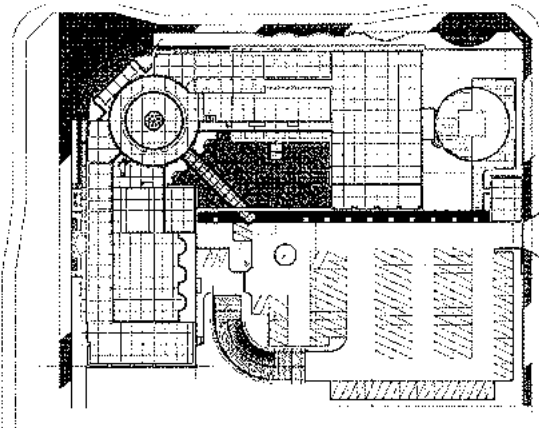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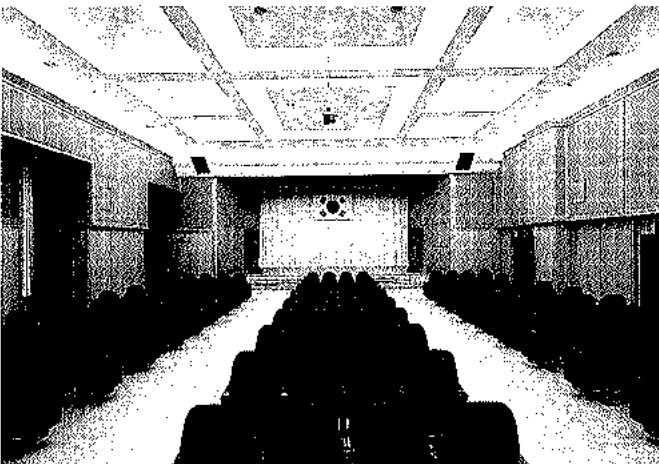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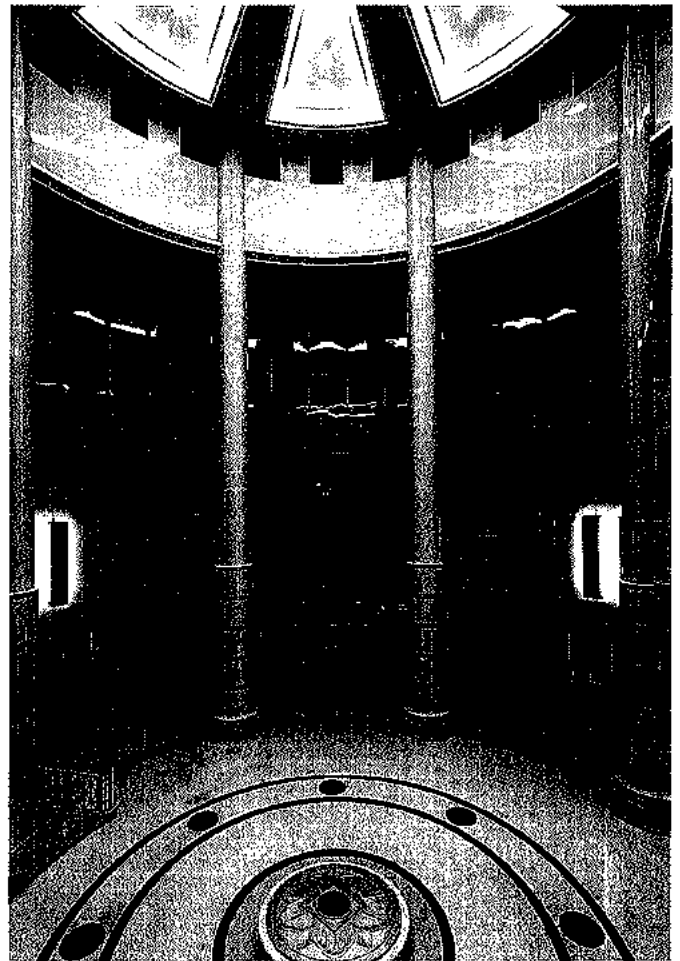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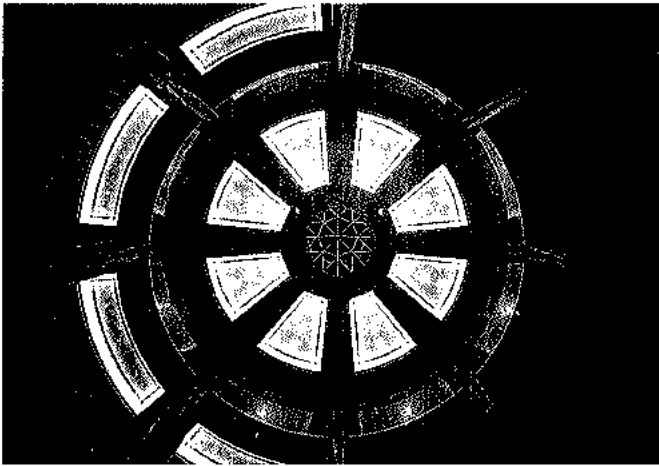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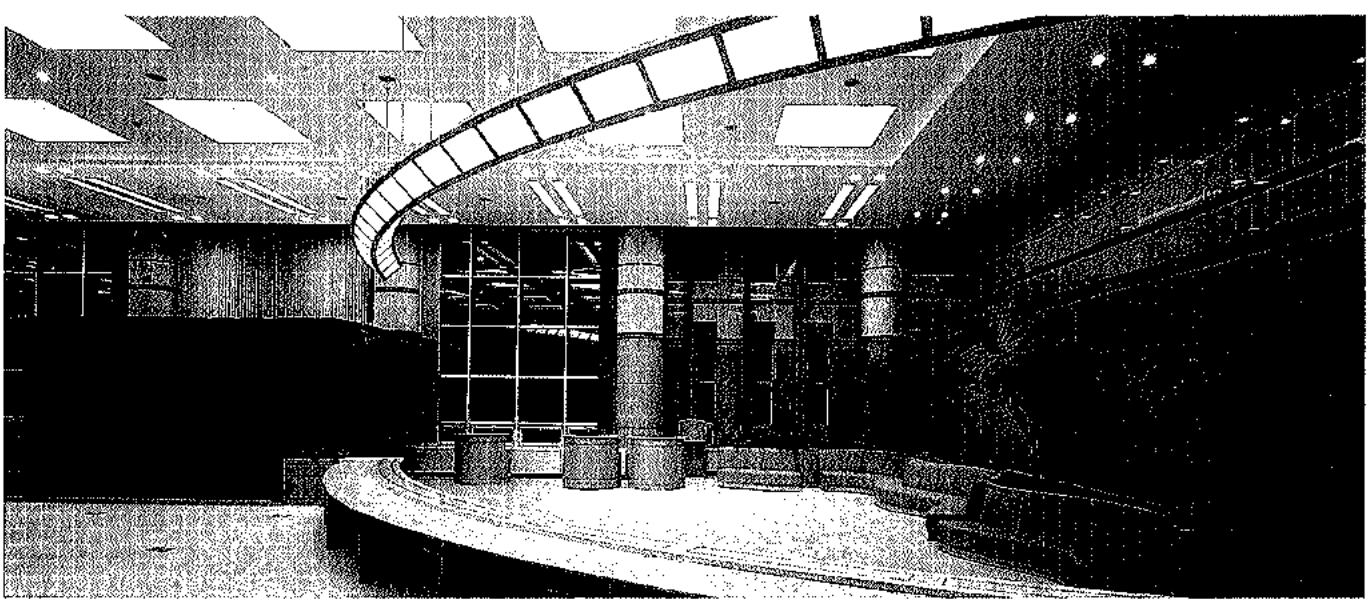
이영희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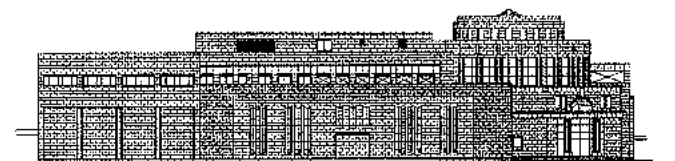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2번지
지역 지구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구역
대지면적 13,223.5㎡
건축면적 4,494.82㎡
연면적 9,998.03㎡
건폐율 33.9%
용적률 50.45%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T30 화강석 버너, T80 화강석 흑두기+T24컬러복층 유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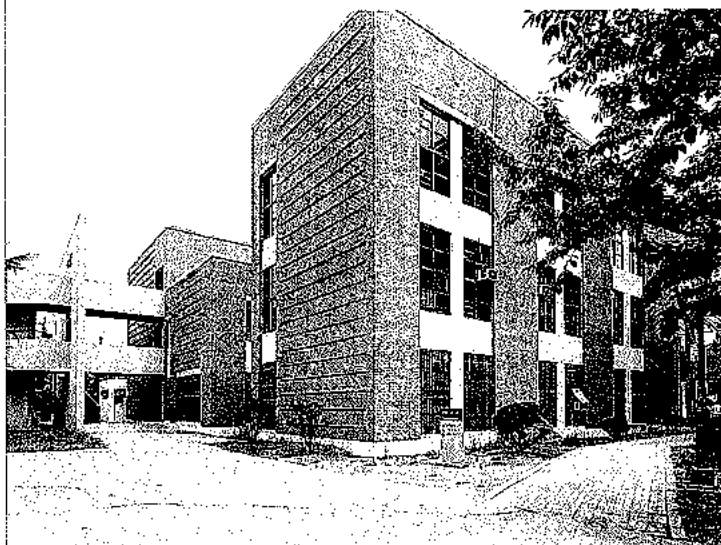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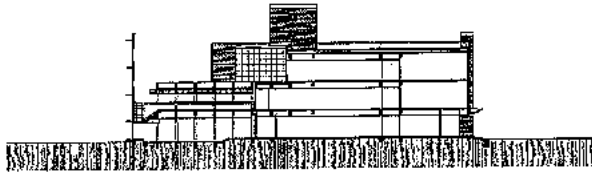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내)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1,742.39㎡
연면적	4,175.83㎡
층별면적	1층-1,697.68㎡ 2층-1,312.24㎡ 3층-1,165.91㎡ 합계-4,175.8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3층
외부미감	붉은벽돌 치장쌓기, 반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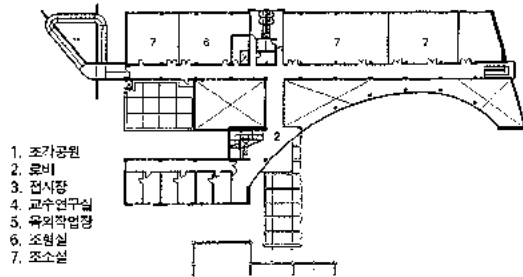
경북대 캠퍼스의 북쪽 기슭에 위치한 조소동은 기존 강의
동과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조소전공 학생들의 실습실과
교수연구실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계획당시 조소동은
주변건물과의 시각적 조화와 유기적인 관계 등에 주안점
을 두고 배치되었으며, 다소 모순되게도, 평면적으로는 각
기능실의 개별적 독립과 유기적인 연계를 동시에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목표는 실습실과 연구실 등의 각 기능
들의 평면적으로는 분리되면서도 open된 로비와 계단, 전
시공간 등을 매개체로 하나로 통합된 공간감을 연출하도
록 시도하였다.

실습실 부분의 좁고 긴 매스는 내부로 open되어 순환공간 (Circulation space), 전시공간(Exhibition space)의 역할을 하며, 외부로는 부정형의 곡선형태로 기존강의동과의 사이공간인 조각공원을 끌어안는다. 또한 주재료인 무거운 벽돌벽에 대조되는 반사유리로 된 커튼월의 피막은 위로는 하늘과 투명하게 연결되고 아래로는 초목과 어우러진 조각 물들을 머금는다. 이렇게 투명하고 가벼운 부유감, 공간의 비워짐과 채워짐의 조화, 일출에서 일몰까지, 봄에서 겨울 까지 다양하게 연출되는 빛들의 향연은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감성을 도울 것이다. 새벽하늘의 여명에서 황혼의 저녁놀까지 캠퍼스의 또다른 새로운인 조소동의 주변 건물들에 대하여 열린 공간으로서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담아낼 공간으로 자리매김할길 바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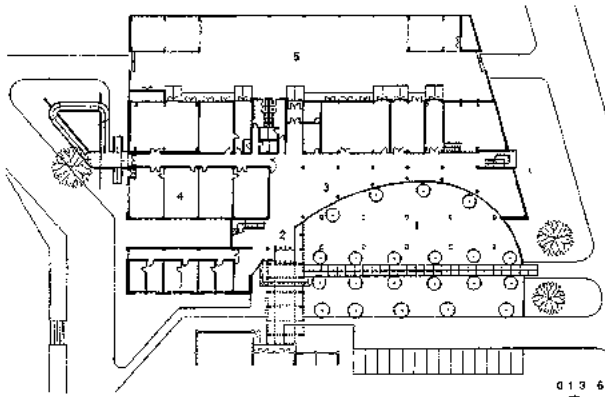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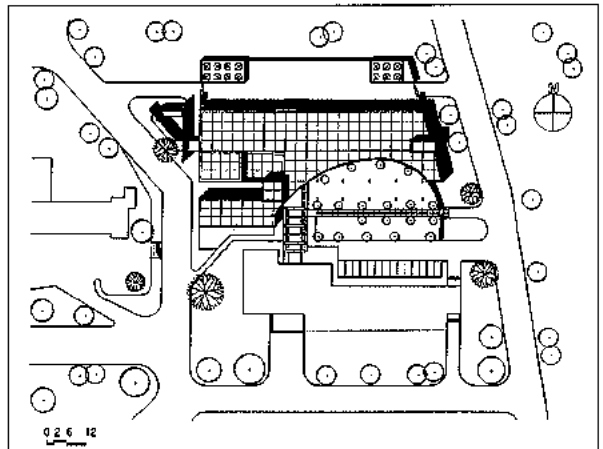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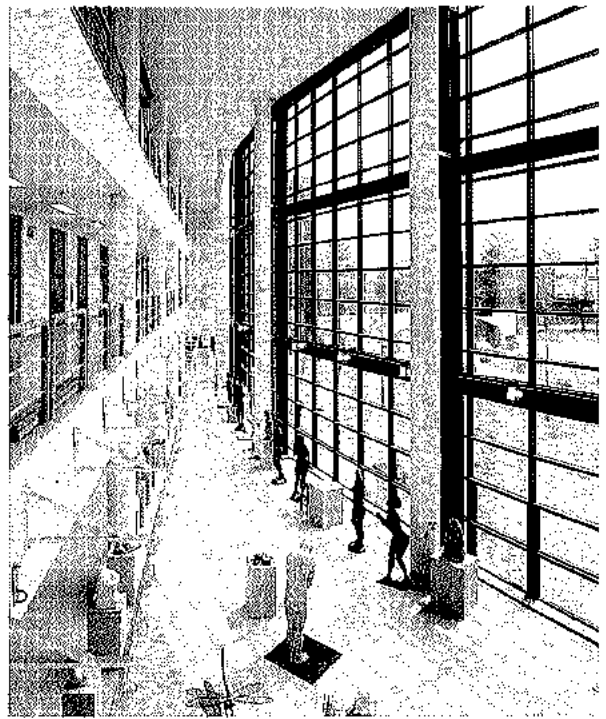
1. 조가공원
2. 로비
3. 전시장
4. 교수연구실
5. 휴게실
6. 조형실
7. 조소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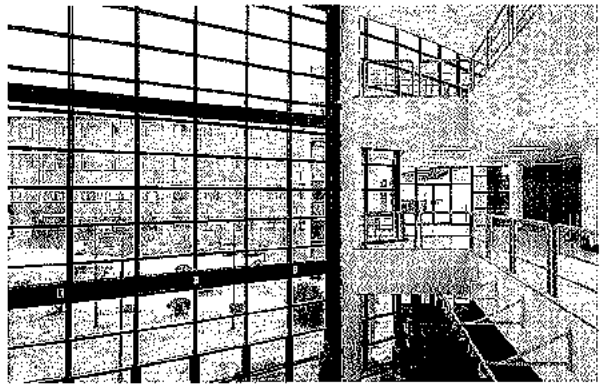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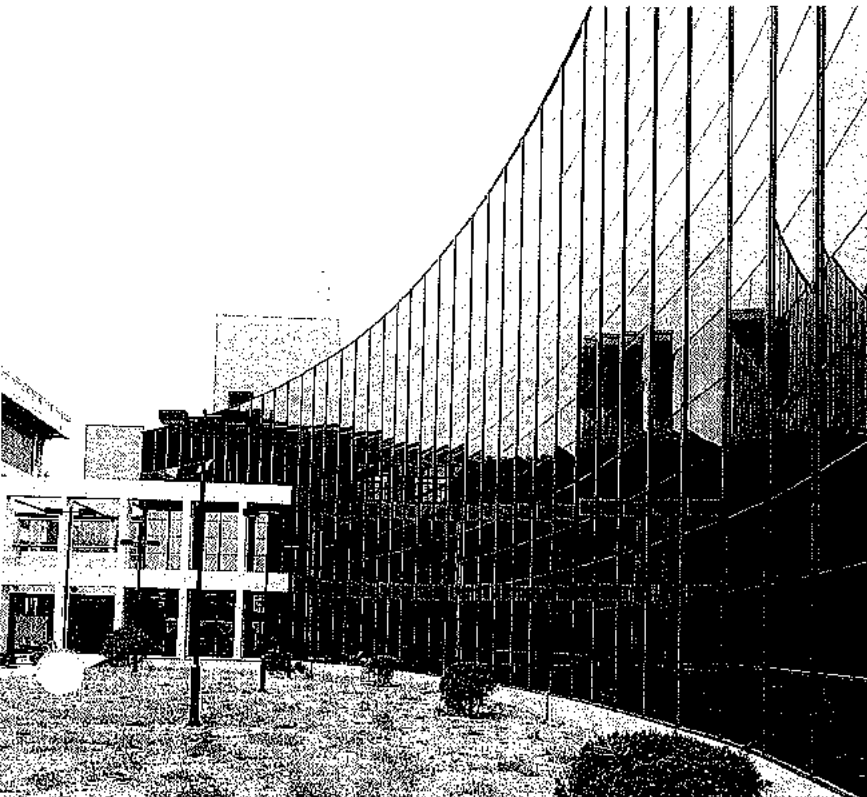
0 13 6

1층 평면도



0 2 6 12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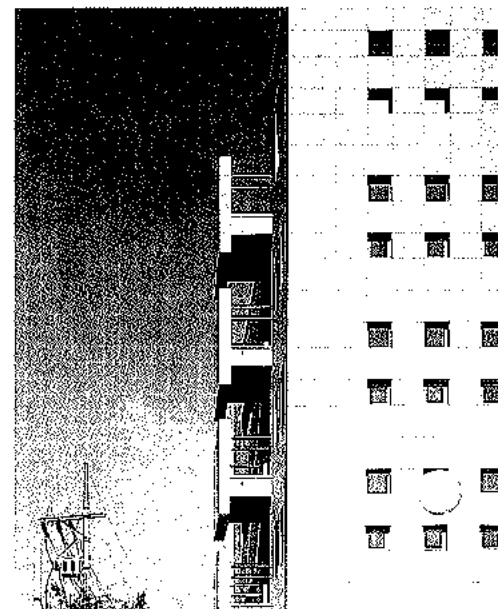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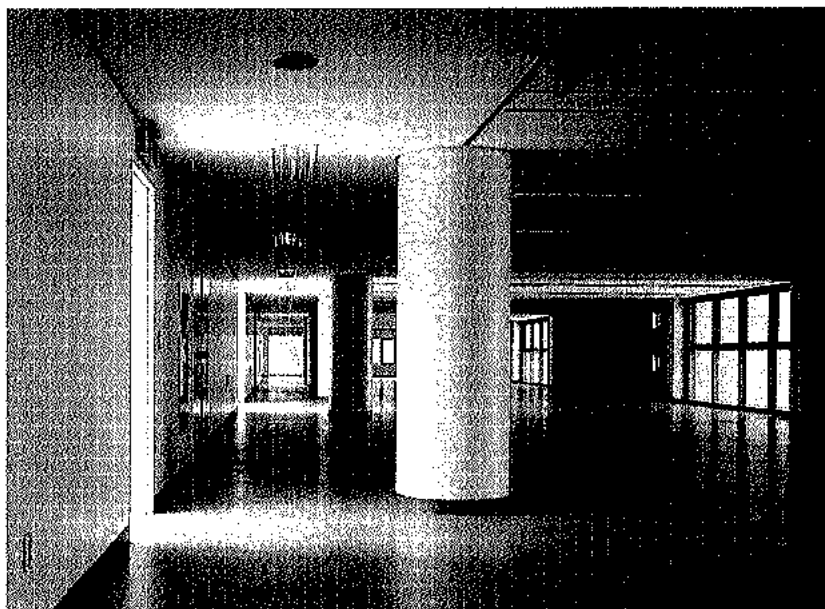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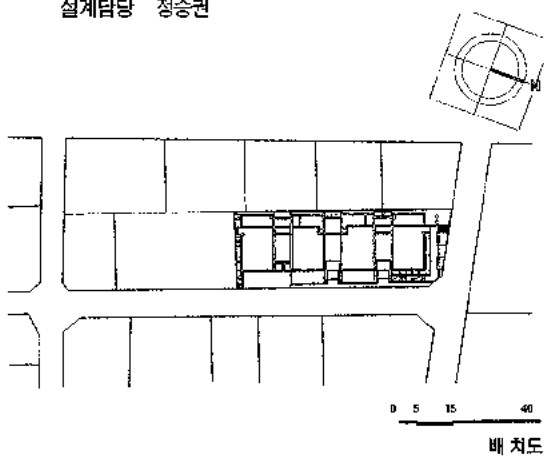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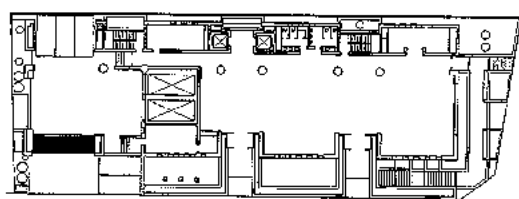
MODUS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Korea Research Foundation Building

김인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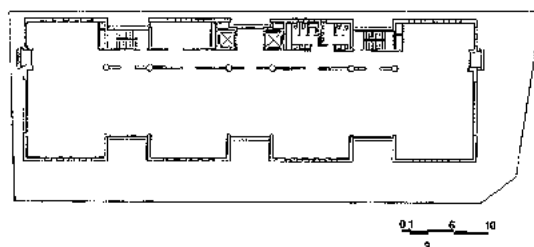
건축개요

소재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0-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제한지구(5층, 18m)
대지면적	1327.8㎡
건축면적	769.59㎡
연면적	7805.04㎡
건폐율	59.99%
용적률	293.09%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지하4층, 지상5층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마감, 알루미늄 커튼월
설계담당	정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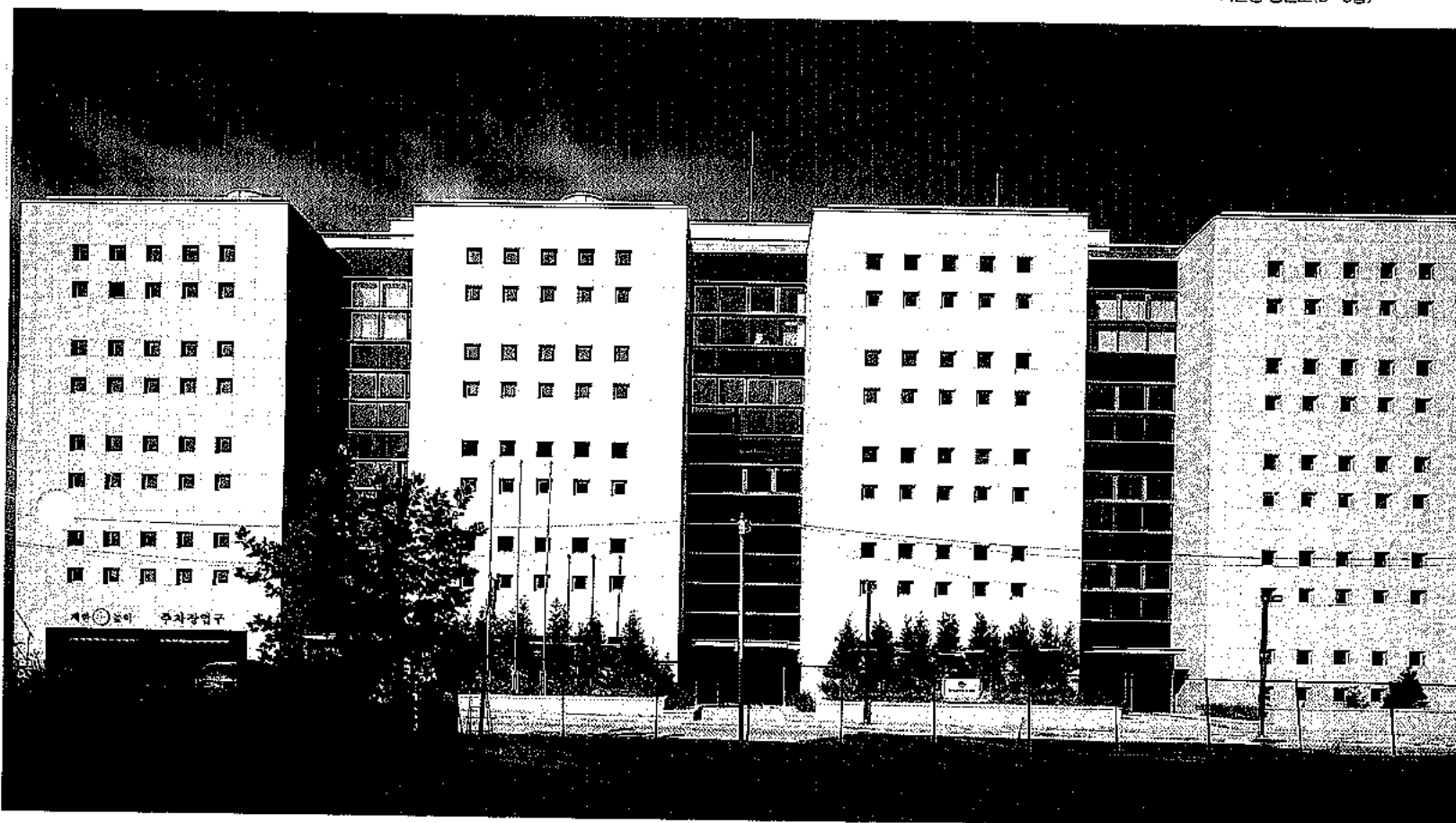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3~5층)



이 건물은 1997년의 설계경기로 만들어진 작업이다. 정부출연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단체인 한국장학회의 회관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공공프로젝트였다. 규모 또한 그 즈음 다루고 있던 것들에 비하면 상당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은 의외로 단순하여서 업무시설과 집회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공간이었다. 통칭 법조단지라 불리는 서초동의 검찰청 언저리는 묘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꽃동네의 살벌했던 여운은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에 적용되는 18 m의 높이제한이 결정요인이었다. 애초에는 주거지역으로 구획되었을 것이 분명한 필지를 두서너 모아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에 도시설계가 마련하고 있는 방향에 밀리듯 맞추어져서 등성등성한 개발이 되고 있다. 도로조건이나 도시적 성격에 관계없이 대지의 조합이 가능한 이해관계에 의해 건축이 결정되는 것이다. 더구나 산기슭에 자리한 검찰청을 가리지 않도록 요구되어진 높이제한은 민원이 제기되면 풀릴 듯 하다가 다시 고착되는 완고함을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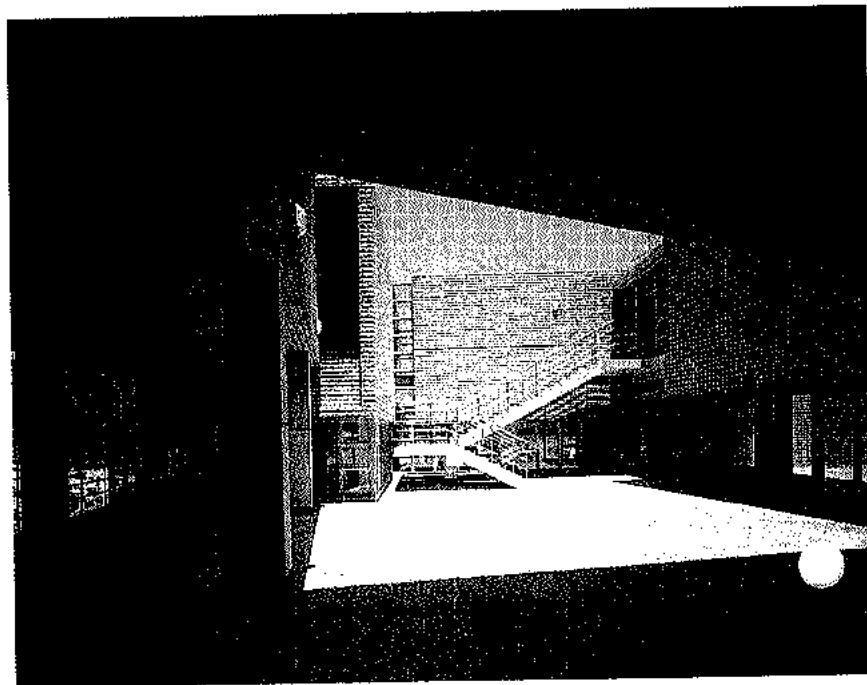
풀이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결정은 시간이 내린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면 결국 18m안에 다섯 층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슬이슬한 파라펫 높이와 겨우 만들어낸 천정고로 이루어진 이곳의 건물들은 한결같이 되다만 모습을 하고 있다. 1층 바닥 지면까지 끌어내려져 있는 점만 빼면 어디에도 눈길줄 곳이 없다. 정보화시대의 보안유지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권위 앞에 엎드리듯 납작해야만 하는 곳이다. 길게 늘어져 있는 대지형상과 완성되어있지 않은 주변상황에 대응하는 방법론은 두 가지였다. 대지의 길이대로 연속되거나 주변스케일에 맞추어 분절되는 것이다. 연속의 기다란 이미지와 나누어진 벽의 도열하는 이미지 중에서 후자로 결정한 것을 8m도로의 도시적 조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였지만 풀릴지도 모르는 고도제한에 대한 해법이었다. (도로 폭이 사선제한을 감수하더라도 3층 더 얹을 수 있었다.)

부산 광복기념관 Pusan Independence Hall

정연근 / 건축사사무소 토원
Designed by Jeong Yeon-K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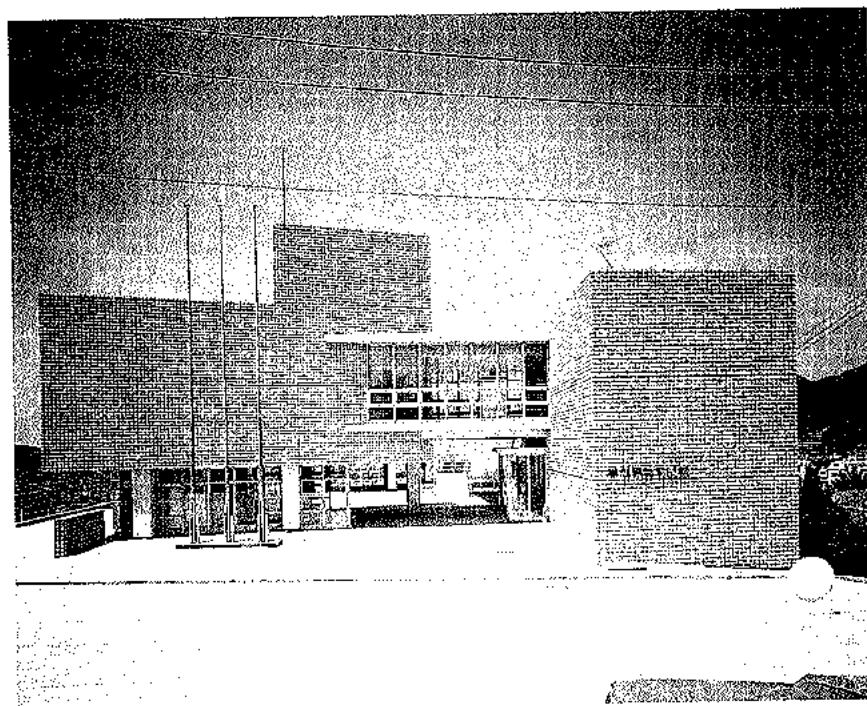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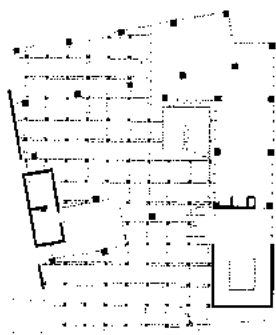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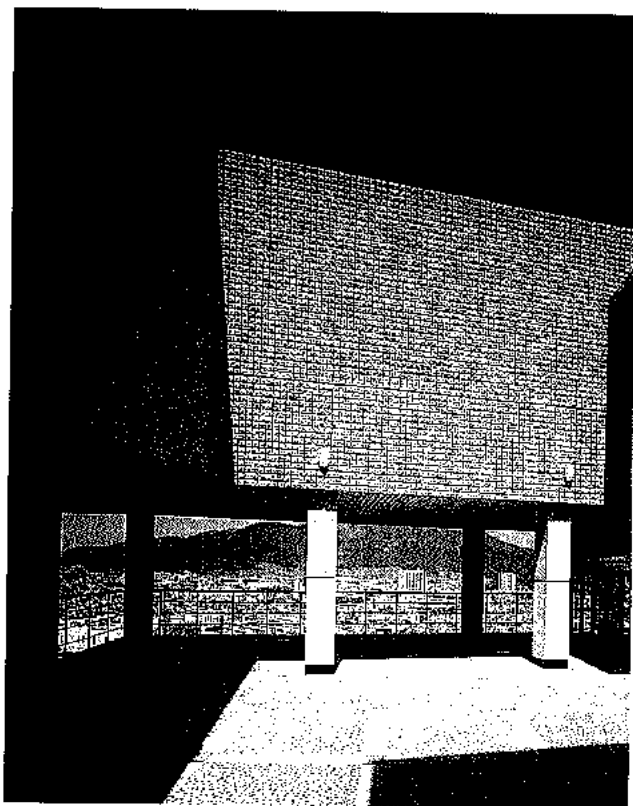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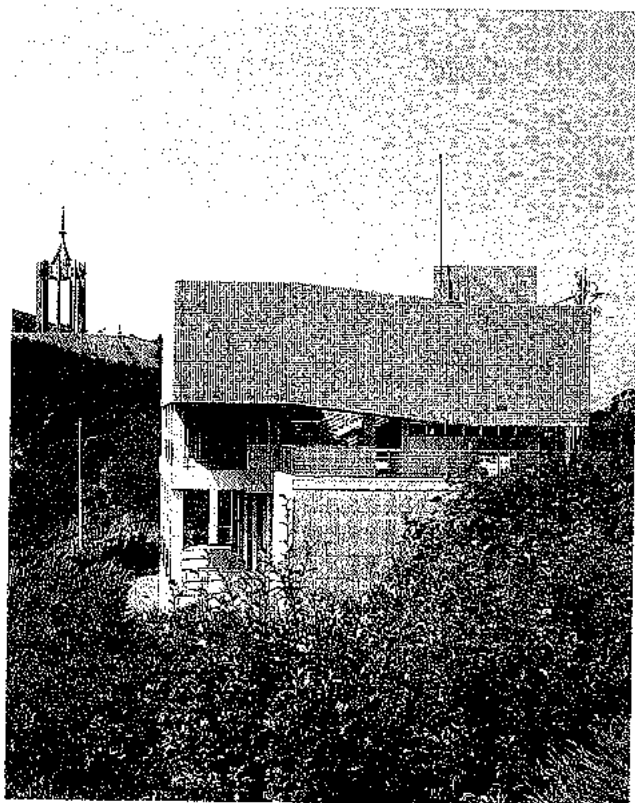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 99-11번지
대지면적 772.69㎡
건축면적 369.79㎡
연면적 832.7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석기질 외장타일, 드라이비트 코트
설계담당 한창훈, 조현철, 김범수, 박미영
시공자 (주)한주공영(정태석, 장수석)
발주청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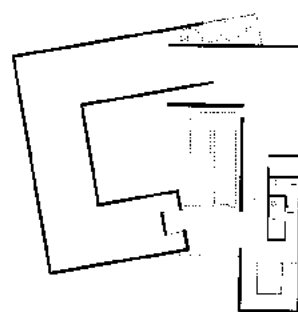
‘조각과 건축’, ‘일상의 기념비’ 등등 요란한 구호 뒤에 숨어 있던 그림자는 전형의 탈피였다. 건축으로부터의 탈피, 기념관의 위엄으로부터의 탈피, 열림과 닫힘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틈새를 노리는 전략. 이리 저리 굴러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씩 색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추구했다. 처음 거칠게 시작된 틈새의 공작은 현실적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절충을 거쳐 다듬어 졌다. 왜소한 규모에서 단순해진 형상은 조각에서 시작되었지만 다소 건축적(?)으로 변했다.

마당은 열린 듯 닫혀 있고 튜브의 그림자가 명암을 가른다. 공원의 산책로에 열려 있어 시민들이 자유로이 나든다. 사무공간이 개폐가 마당의 표정을 변화시킨다. 비어 있는 마당에 조만간 광복 인사들의 흉상이라도 놓여져 시가지에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튜브 속의 전시공간은 나름대로 빛을 호호하고 있지만 전시물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 자질 구레한 문제들을 좀더 명료하게 처리했으면 튜브가 좀 더 가벼워졌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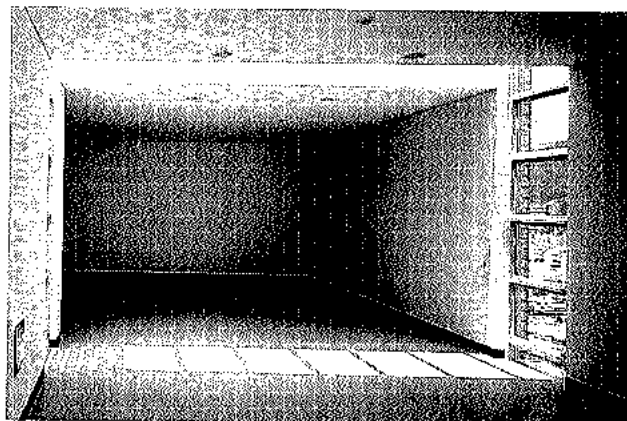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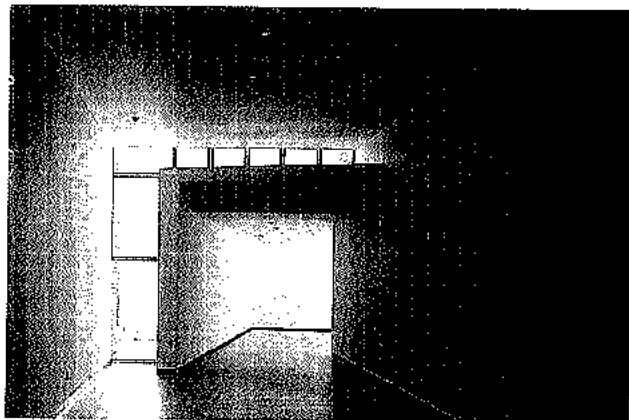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신원동 S씨 주택

Sinwondong Seo's Residence

장재소+조남호 / (주)솔토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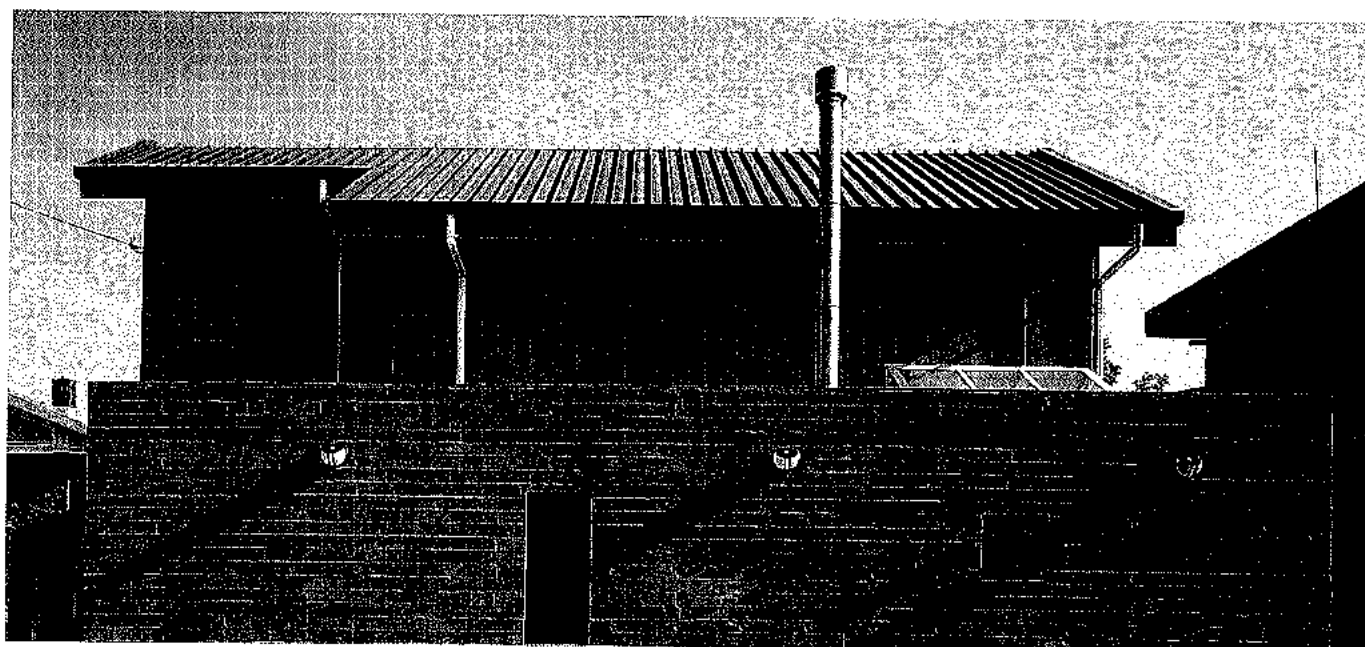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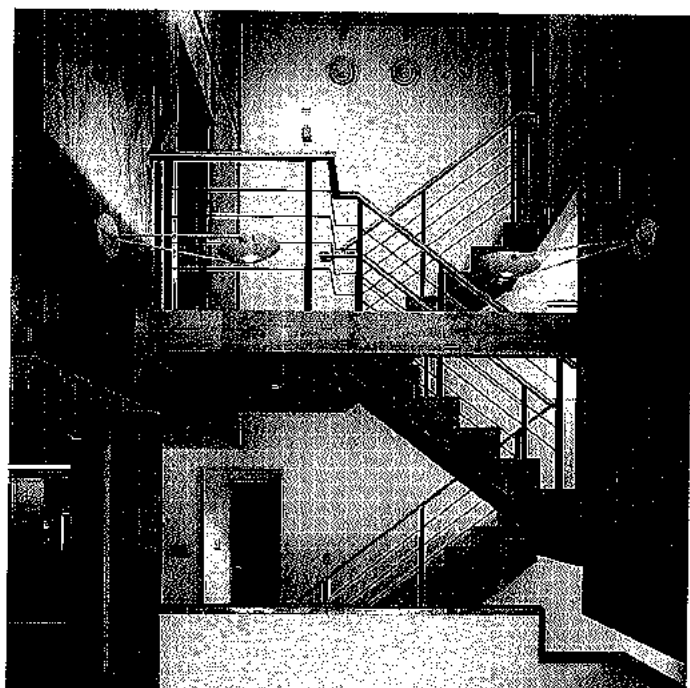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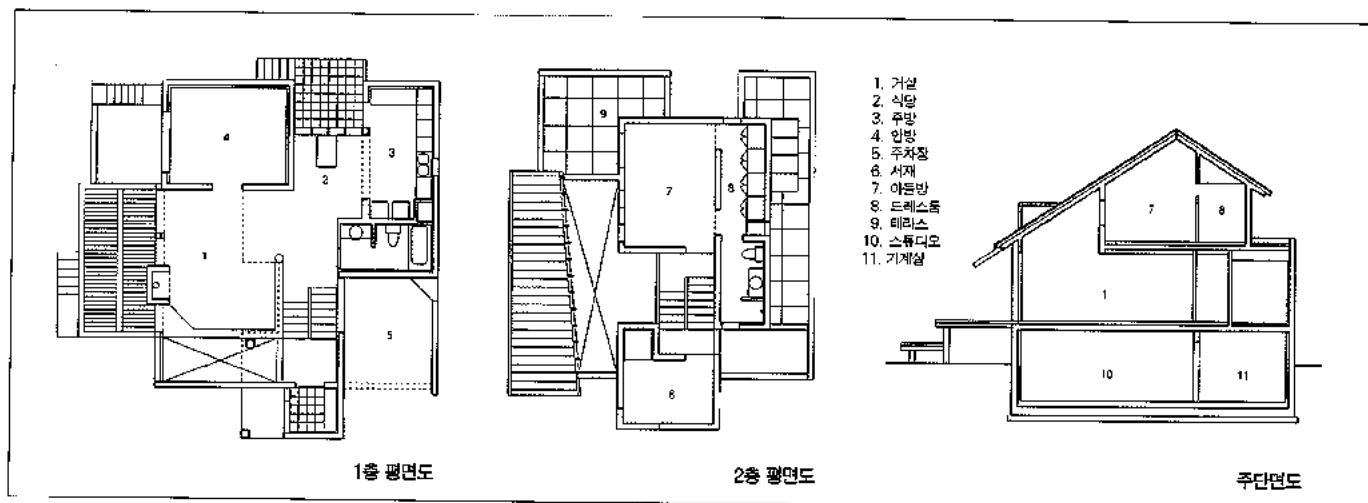
Designed by Jang Jae-So, Cho Nam-Ho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253-7
지역지구	자연녹지지구,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317.00㎡
건축면적	101.71㎡
연면적	209.60㎡
건폐율	32.09%
용적률	39.1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목구조(2"×4")
내부마감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외장합판
설계담당	이해구, 김용화, 정성희
인테리어	(주)솔토건축사사무소
시공회사	(주)솔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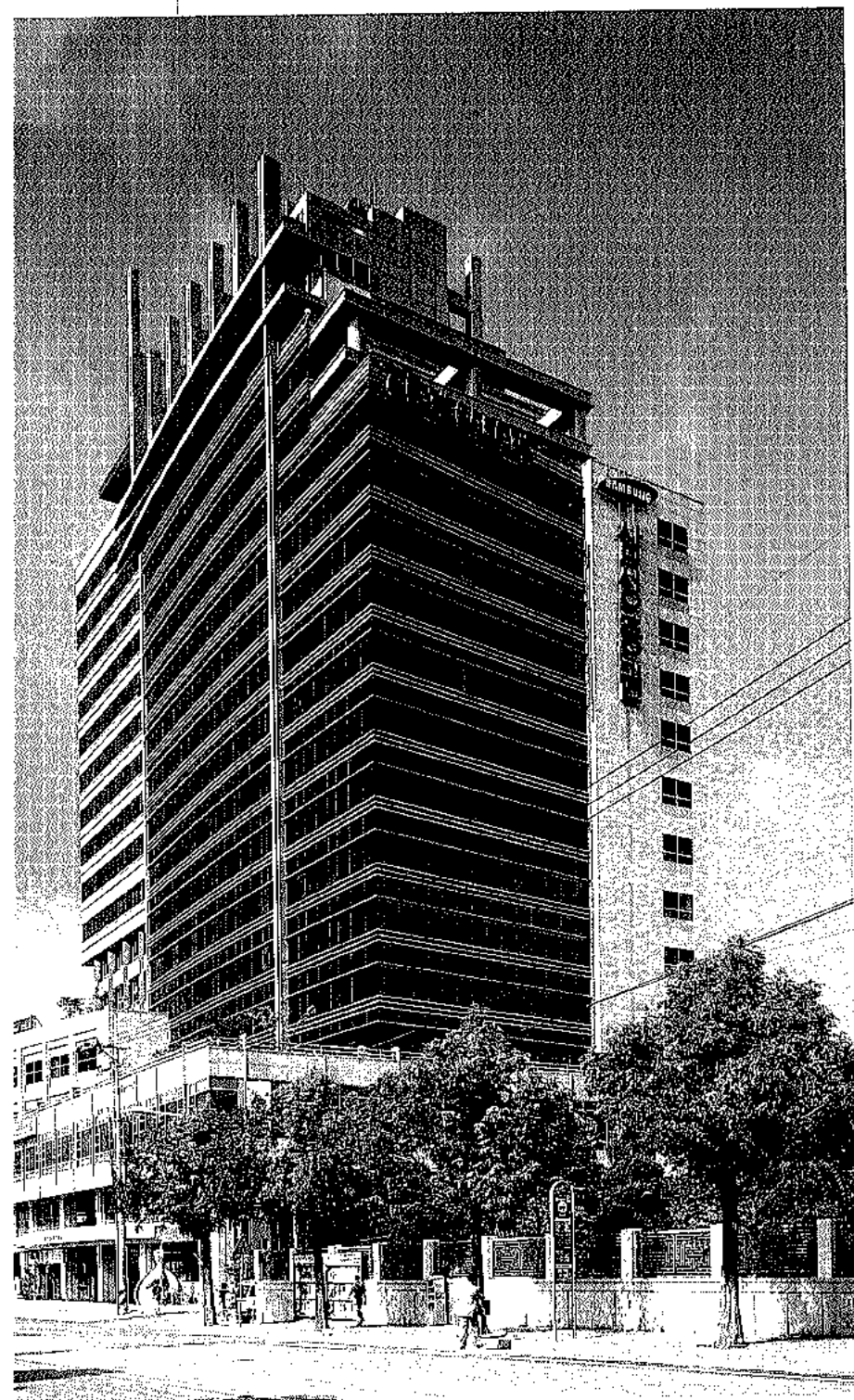


이 주택의 특징은 첫째, 목재의 활용이다. 세계건축사연맹(UIA) 1993년 시카고 대회 주제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호의존성 선언에 나타난 자원, 에너지,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목재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은 미래 건축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목조 건축은 플랫폼(Platform)방식으로 합리적이지만 우리 생활문화와의 차이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R.C조와의 결합으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R.C조와 목조의 결합으로 해결되는 기술적인 문제는 목조에서 습식은돌설치가 자유롭고, 욕실 방수가 용이하고, 물소리문제, 바닥 쿵쾅거림이 방지된다. 둘째, 도시 문맥과의 관계이다. 부지 주변은 거의 비슷한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형태 이전에 재료만으로도 목조주택은 이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기존질서를 의식한 벽돌 담장과 R.C조 부분, 새로운 활력을 주는 목조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철근콘크리트조와 목조의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조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R.C조는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고 목조외벽은 배튼(Batten)이용 그리드를 강조한 외부용 합판(Psywood)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나무처럼, 목조부분은 오히려 단순한 벽면 처리를 해서 이미지를 역전시키는 수법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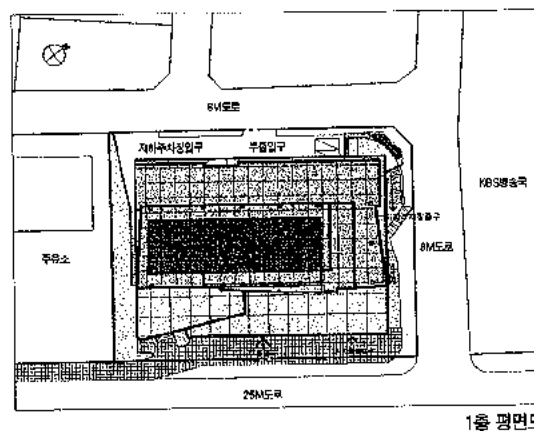
26센터
26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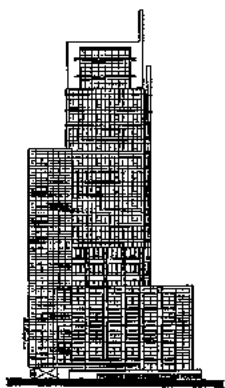
마성호 · 박주한 / (주)엠파 종합건축사무소
Designed by Ma Sung-Ho & Park Ju-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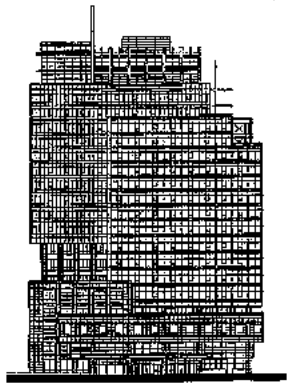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05 1외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대지면적	2,868.60㎡(867.75평)
건축면적	1,867.01㎡(564.77평)
연면적	35,337.39㎡(10,689.56평)
구조	철골 철콘크리트
규모	지하6층, 지상20층
건폐율	65.08%
용적률	779.09%
주요설비방식	중앙집중식 F.C.U+A.H.U
주차대수	353대
외부भाग	THK24 칼라복층유리, THK24 화강석버너구이 + 화강석물갈기
건축구조	(주)ALT구조
기계설비	(주)삼원설비
전기설비	(주)정명기술관
소방감리	(주)한국 E&C
시공	(주)동아건설
사진	염승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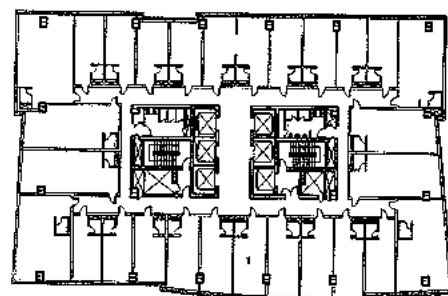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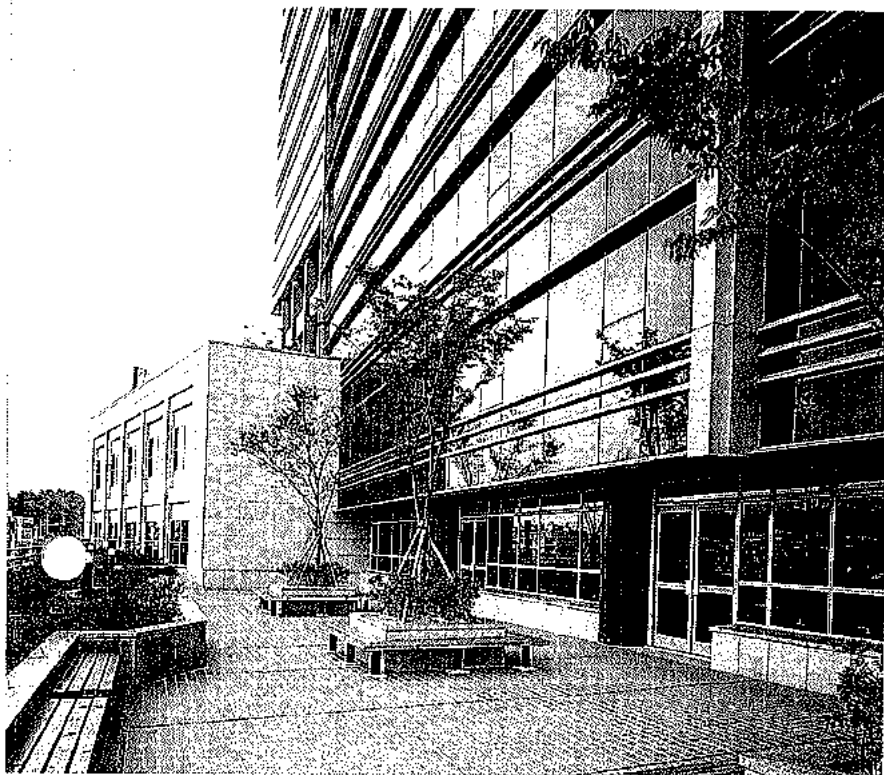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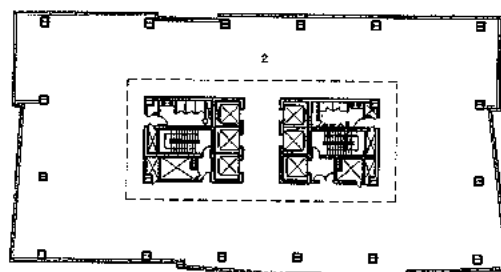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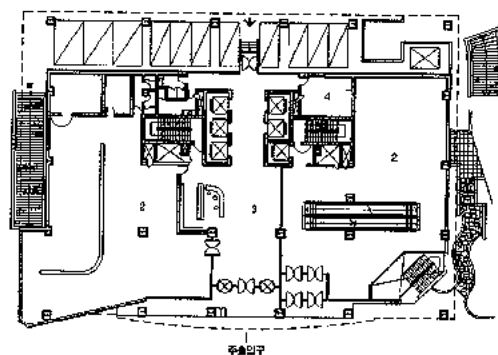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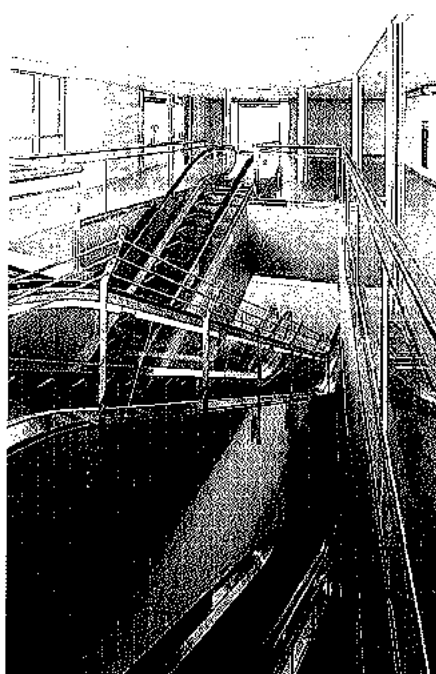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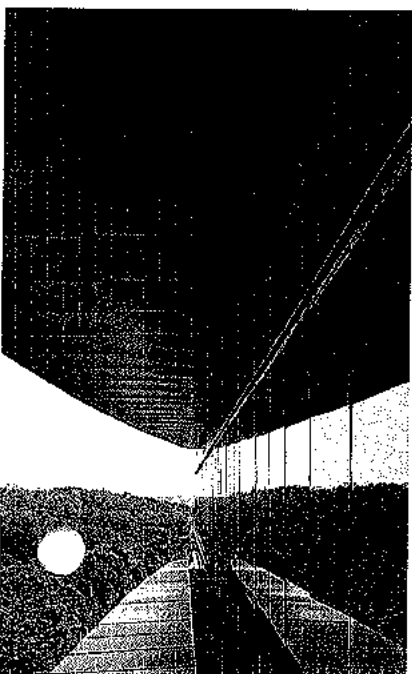


9층 평면도

- 1. 오피스텔
- 2. 업무시설
- 3. 로비
- 4. 방재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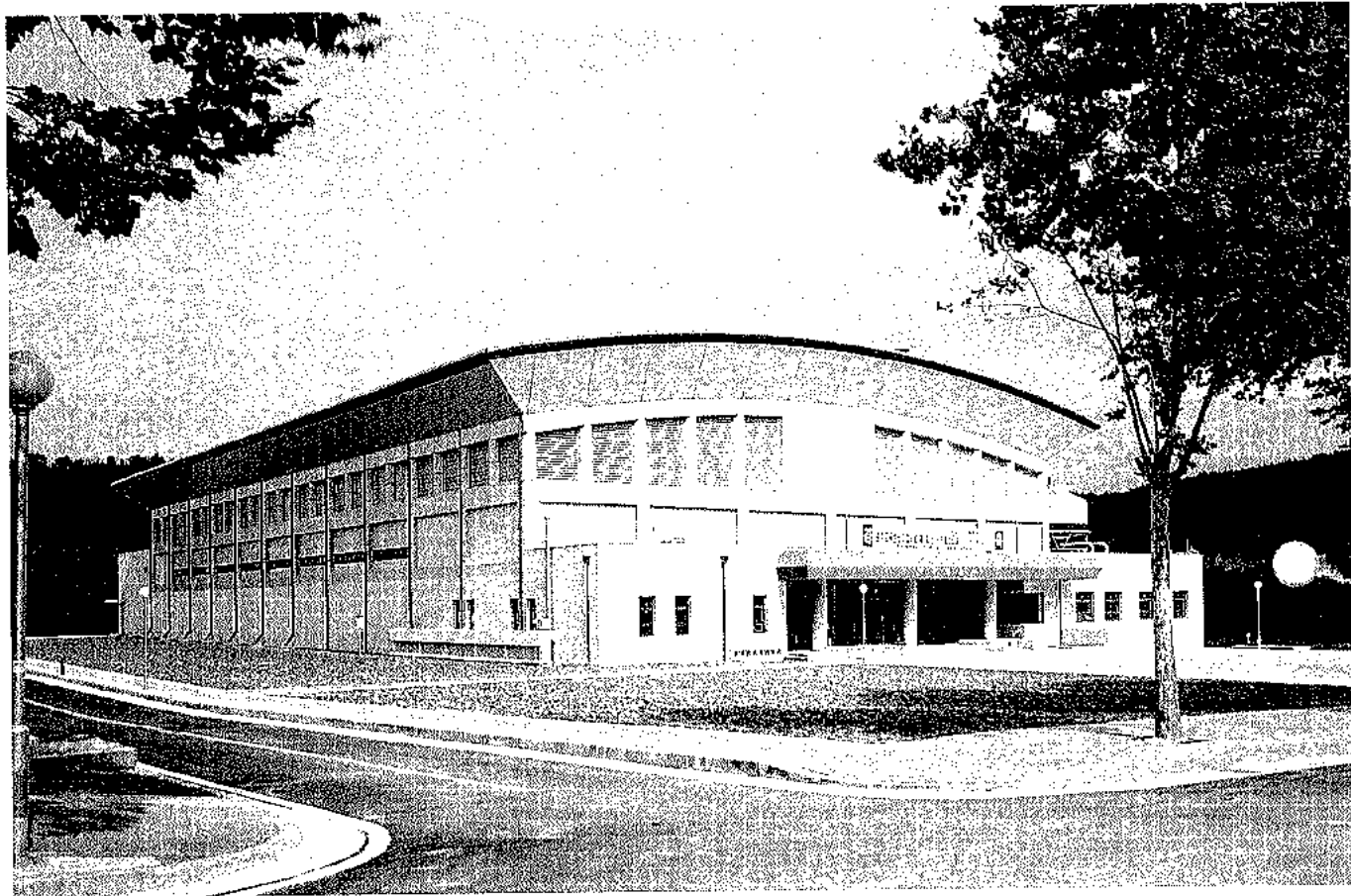


건국대 충주캠퍼스 실내체육관

The Gymnasium of Gunkook University, Chungjoo Campus

장석웅 / (주)아도무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ang Seok-Woong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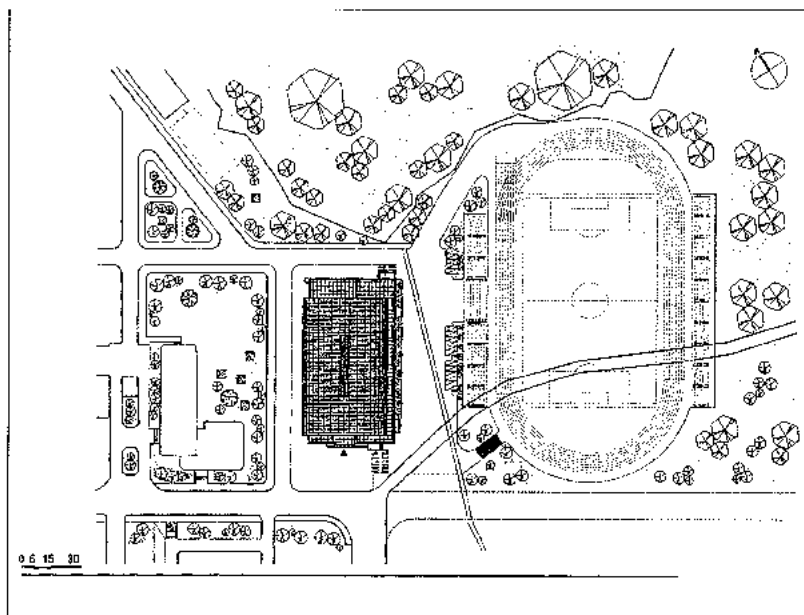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68,769.00㎡
건축면적	28,688.96㎡
연면적	94,982.96㎡
건폐율	10.67%
용적률	31.37%
구조	철근콘크리트+Space Frame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 마감	외벽-T30 화강석, 버너구이 및 물갈기/폴리메탈패널 창호-T18 투명복층유리/알루미늄 불소수지 코팅비

건국대학교는 1986년 상허기념도서관 지명 설계경기에 참가하여 당선의 영광을 얻으면서 인연을 맺게 된다.

대부분의 사학들은 자체내에서 설계를 소화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나, 이 곳 건국학원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인 설계경기나 실적에 의한 매우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에 이번의 충주 캠퍼스의 체육시설의 프로젝트를 작업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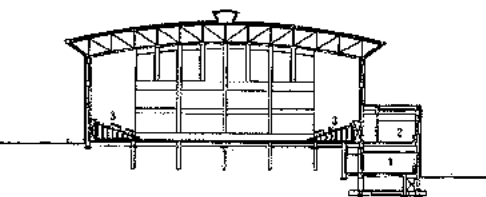
학교 Master Plan상의 종합운동장에 접한 대지로 고저차가 7~8m로서 실내 및 옥외 체육시설을 연계하는 기능에 충족하고 실내 체육시설로서 핸드볼 및 농구 등 구기종목 뿐 아니라 체육과의 교수실 및 교실 등 특별활동을 충족하였고 집회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겸한 다목적 대형 공간으로 마련하였다.

지형 조건으로 보아 지하에 수영장 시설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으나 한정된 학교 예산으로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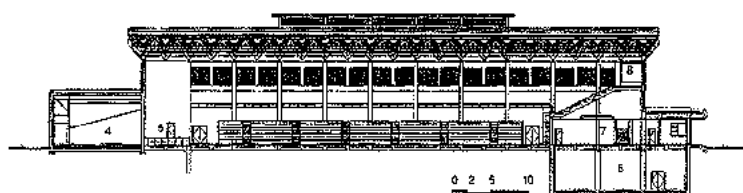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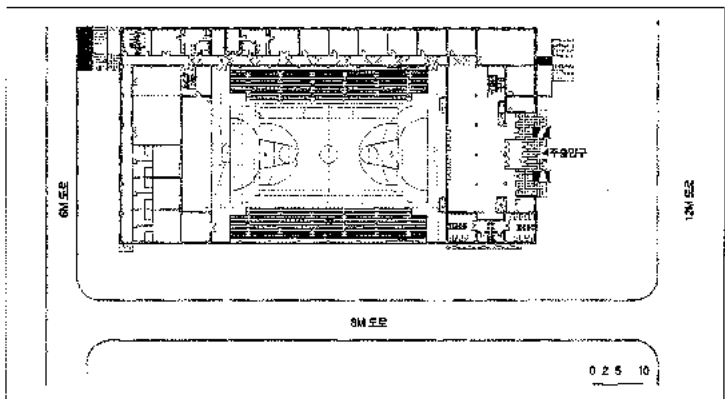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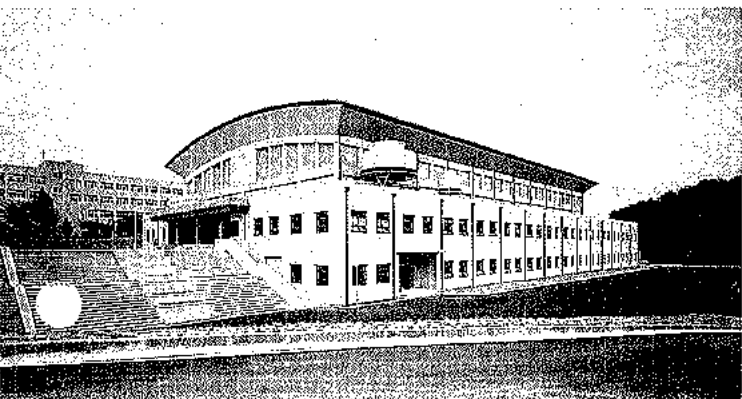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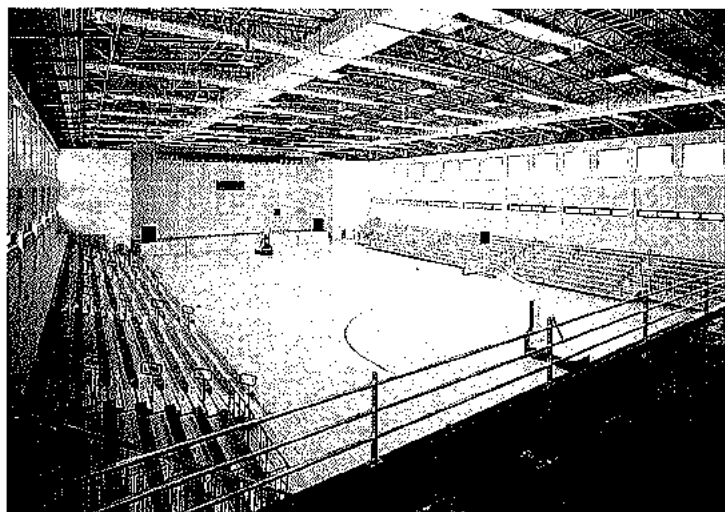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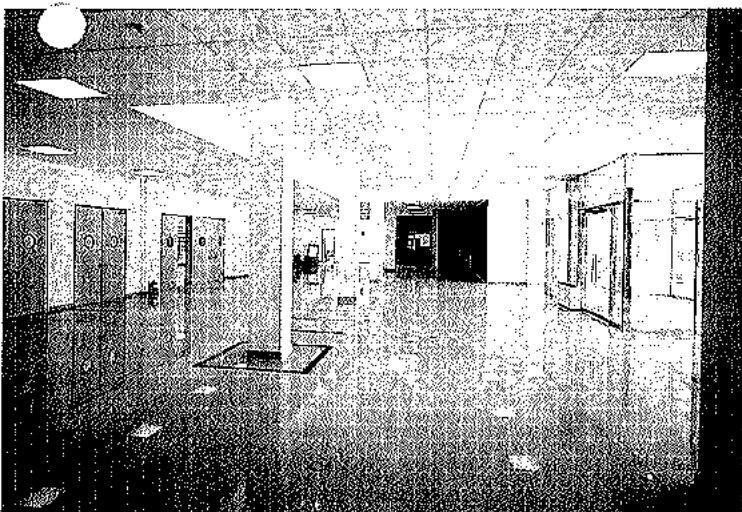
1. 강의실
2. 교수실
3. 이동객석
4. 스타디움
5. 무대
6. 기계실
7. 준비
8. 조종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1층 평면도

만남-1
Friendship-1

김희곤/공간건축사사무소
by Kim Hee-Gon

지나간 일에 대한 감상이나 과정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다. 사회에 대한 불만, 참여한 사람에 대한 아쉬움, 모두다 알고 보면 건축가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는 것이 세월의 흔적 사이로 적(積)층되는 깨달음으로 증명된다. 어떤 일이든지 순기능과 역기능은 공존한다. 양면성과 다원성사이에서 건축가 본인의 투철한 정신세계 및 철학이 지속적인 건축과정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

만남-1은 사무실을 십여 년 꾸려오는 중
필자 스스로 마음을 제일 많이 비우고 임했던 작업이었다.
처음부터 소박함, 청빈함, 평범함, 수줍, 비움, 없음... 이러
는 단어와 내용을 음미했던 작업이다. 선조들의 집짓기와
현대인의 집짓기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선조들은 일생에
한번 집을 짓는 일이 중요한 행사였다. 집을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장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식은 장성해서 결혼
을 하면 형편에 맞게 가족, 친지, 마을사람의 도움으로 집
을 지었다. 집을 짓는 과정이 마을 공동체 축제의 행사이
자 마을친교의 장소였다. 훗날 후손들이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대들보에 넣어 두는 자손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해마다 초가지붕을 교체할 때도 마천
가지였다. 또한 자연을 거스르거나 스스로 파시하기 보다
는 자연스럽고 이웃집과 조화되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
하는 일이었다. 필요한 만큼의 재료로 필요한 만큼의 공간
을 만들었다. 삶에서 주택은 상위차원도 하위차원도 아닌
인간과 동등한 삶의 동반자였다. 신분과 삶의 형편에 의해
달라지긴 했어도 삶의 깊숙한 곳에 내재된 주인의 인품과
부합되는 주택이었다. 높은 인품은 스스로 파시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것이며 이웃으로 베푸는 인정이었다. 주
택의 공간도 흐르는 물처럼 사회와 교류하는 것이었다. 오
늘날 건축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되는 과정에
물질문명의 독점으로 전통의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만, 그래도 그 속에 내재하는 전통적인 삶의 근간은 녹아
있다. 오늘날 건축물은 부동산의 가치로 전환되면서 개인
의 부의 대변자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평생 개인주택이

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는다. 도시에서 건물은 부의 수단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행복의 수치가 같아지며, 한정된 대지에 최대한의 평수만 지으려는 부의 산출 방식과 건물평수가 부합되면서 우리네 주변환경을 온통 욕심으로 채워지고, 인간의 순수성은 점점 더 밀려나게 되었다.

특히 소규모건축은 아주 저급하든지 아니면 고급으로 분류되었다. 소규모건축은 건축가의 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누구나 쉽게 설계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무너지지 않고 쉽게 바꿀 수도 있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으며, 전문가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건축의 가치가 전도된 채로 무법천지 속에 남아있다. 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곤 집장사의 손맛에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소규모의 건축물을 할 때마다 부딪치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소규모일수록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건축가는 큰 규모일 때만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역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건축가의 정신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푸념처럼 건축가는 권력과 부의 시녀인가? 우리의 전통이 고급주택 속에서만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얼마전 에도 서울 인근 전원지역에 주택과 작업실을 마련하려는 모 대학 교수 부부와 설계에 대한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적 가치와 주택의 의미에 대해서는 꽤 논리가 담겨있으나 집을 짓는 디테일과 세세한 작업과정, 자재선택 등 실질적인 이야기에서는 집장사에게 통용되는 공사비에 귀와 눈이 멀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전문가가 무조건 비싸게만 짓는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한 공사비에 맞는 시공재료와 마감디테일을 설명하면 집장사가 지은 걸만 번듯한 집에 눈이 멀어져 있었다. 문화는 가지고 싶은데 그 문화는 잘못된 허영이나 거짓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건축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의문이 남는다. 선진국은 전문가의 사회참여 내지는 봉사의 기치를 전문가의 덕목으로 중요

시한다. 일년에 한 프로젝트라도 소규모건축 저렴한 설계비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교통비 값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난하다고 저급한 문화는 아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저급함이나 결포장이 생략되고 서로간의 상식과 관심이 따뜻한 진실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만남-1이 위치하는 전원주택지에도 반대지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건축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서울의 잘못된 가치를 그대로 포장해서 지방으로 가져오다 보니 시골사람이 무섭다, 옛날 시골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 여기서 정작 병이 든 사람은 누구일까?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서 처럼 나만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웃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진정 이해했는지? 전원의 삶 속에 무엇을 가지고 와야하는지 반문해봐야 한다. 시골마을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돋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함께 어우러져 살 것인지의 삶의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지역의 공기와 물, 빛과 나무 만으로 살 수는 없다. 내가 사는 지역의 주체인 이웃과 공존해야 한다. 건축주는 아내와 지(知)인의 지아비로서 그 지역에서 토목회사를 경영하면서 마침내 조그만 시옥 겸 숙소를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여러 차례 만나서 인간적인 정을 나눴던 분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역과 작업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건축주로서 더 없이 좋은 분이다.

3층 규모로 건물을 계획하던 중 IMF의 위기로 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건축주가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콘센트건물 (평당 60만원)로 최소 사무실만 마련하겠다하면서 건축주가 직접 알아서 짓겠다고 말했다. 그때 문득 기억 속에 희미한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다. 제일 저렴한 농가의 창고 같은 집을 지어볼 수 없을까? 두 분의 건축주가 알차게 꾸려온 회사의 보금자리를 값싸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는 수수하지만 품위가 있는 우리네 어머니 같은 집을 지어 보고 싶었다. 건축가의 제안에 있는 돈을 거의 말간 상태로 신뢰가 밀전이 되었다. 인생은 만남의 매듭을 푸는 일이라 생각했다. 건축주는 두 분이었지만 한 분이 나서서 협의하고 다른 한 분은 철저히 동료를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상호적인 믿음이 들었다. 건축주는 두 사람의 만남에서 공동의 목표인 회사를 성장시키는 이상에 부합되는 생명의 나무를 생각했다.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하나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건축으로 옮겨 놓고 싶었다.

IMF의 위기는 건축가에게 다양한 설계의 경

험을 요구하였다. IMF전 복합기능, 에컨데 사무실, 자재창고, 기숙사 등 복합기능의 설계가 불가능하였다. 허가가 난 후 다시 최소규모로 재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건축주와 상의 후 정말 콘센트 가설현장 사무소 짓는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재료와 디테일이 저절로 결정되었다. 물류비용 뿐 만 아니라 그 고장 사람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디테일을 합리적으로 조합하였다. 토목회사가 사용하다 남은 녹슨 철근, 콘크리트, 자갈, 동네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콘크리트 블록, 공사장에서 쓰다 남은 목재, 합판, 집섬 보드 보다 값싼 합석판을 사용했다. 도시에서 보는 노출콘크리트가 아니라 다소 어눌한 콘크리트 면이지만 그대로 노출시켜서 질곡의 편안함을 유도했다. 시공과정에서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또한 쉬운 디테일로 처리됨으로서 거친 사공의 손맛을 그대로 공간으로 가져갔다. 그것이 또한 시골 전원마을의 여유와 만만함, 따뜻함으로 와 닿을 수 있었고, 언제나 열려있는 집 마당이 언제라도 사람을 반기는 풍족함을 담을 수 있었다. 만남-1 은 IMF의 산고 속에서 탄생하였다.

우리 전통 속에는 두레정신이 있다. 마을 사람 각자가 조금씩 도와서 하나의 집을 만든다, 거기에는 각자가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서로서로 도왔다. 시공과 디테일에서 다소 어설프더라도 거기에는 풍만한 여유와 공동체의 정신이 공간에 남아있게 된다. 집은 사는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이고 짓는 사람의 정신이 배어나기 때문이다. IMF는 모든 사람에게 비용절감이라는 삶의 단순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단순함은 풍만함과 여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복잡함의 반대말이다. 간결함, 소박함, 검소함, 수줍, 청빈함과 동의어가 된다.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함을 갖추고 나머지는 자연으로 채우고, 그래도 남은 것은 인정과 사람의 만남, 그 만남의 따뜻함으로 채우면 될 것이다. 자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도 자연스럽게 자연의 일부로 순환하는 것이다. 삶의 활력이 넘치려면 기정이 화목하고 이웃간 만남이 건전하고 서로간 정이 넘쳐야 한다. 정이 넘치려면 서로가 서로를 적당히 공유하고 왕래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전원에서의 생활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막고 닫으면 썩고 탁해져서 결국 생물이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최소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공기, 빛, 바람, 나무등 자연으로 채우는 일이 되었다.



평당 100여 만원의 최소공사비로 즉 조립식 창고 짓는 비용으로 집을 지었다. 이 집에는 작은 마당과 고창과 담장과 나무가 있다. 작은 마당도 토목 공사 때 버리는 나무와 포장용 자갈을 깔았고, 고창은 빛을 조절하여 실내공간을 여유롭게 하고, 담장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나무는 생명을 상징한다. 값싼 재료는 인식과 문자의 피해자이지 본래의 의미와 속성은 아니다. 재료는 그 만의 화법으로 답하는 것인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글 속에 “인간도 세상이라는 알을 깨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 다른 세상은 신의 세계이다. 그 신은 아브라삭스이다. 아브라삭스는 선과 악의 세계다.” 라고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 동안 한쪽에만 주의를 기울였는지 모른다.

건축 철학이라고 할 때 다른 의미로 건축의 가치관으로 줄여서 질문해 보자. 건축의 가치관은 인간의 건축에 대한 관점의 이야기이다. IMF의 상황에서 가장 깊게 직면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노자는 “화는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했다. 가난함은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관점의 폭을 넓혀 준다. 최소함이 최대함이 될 수 있다.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풍족함, 거침과 서투름이 만들어내는 높은 완성미, 비워둠으로서 채워지고 내어줌으로서 받게 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디테일의 세련됨을 잊어버릴 때 진정으로 완성된 디테일이 되고, 한 그루의 나무로도 농림을 앞지르고 어수룩함이 지혜를 이기는 우리네 전통의 정신이 지향하는 근거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을 때는 누구나 몸동아리만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 떠남 뒤의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욕심과 명성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이 남는 것이다. 결국 이타의 정신이 남는 것이다. 정신의 출발점과 근원을 중재, 조정하는 자가 생각한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값비싼 자연을 만나서 그 자연을 섬기고 싶었다. 부족함과 가난함은 인간을 지혜롭게 만들고 인간의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주었던 것 같다. 얼마 전 건축주와 한잔할 때 건축주의 표현을 빌리면 “손님들이 건물외부를 보면서는 시큰둥하다가 들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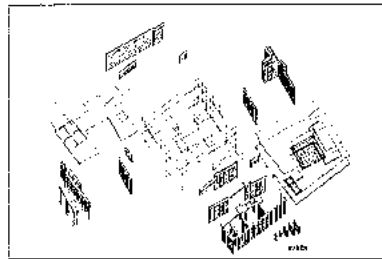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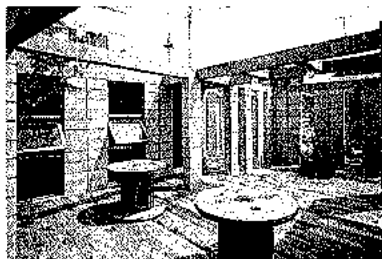
서는 아! 한다는 것이다.” 말인즉 미완처럼 보이는 건물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발견했다고 생각된다. 이 가치는 처음부터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 전부터 만만하다는 단어를 생각한다. 노자의 말에 “바람은 형체가 없어도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고,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형체가 변하지만 능히 산이나 언덕을 물 속에 잠기게 하는 힘이 있어 연약한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라고 했다. 자연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지만 속성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름지어져 있는 디테일 공법의 한계에 갇혀서 스스로의 상상의 날개를 하나씩 꺾었는지 모른다. 외국 유명건축가의 재료, 공법, 디테일의 마감에 아예 질려서 싸구려 건물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생각의 싹도 잘라버렸다. IMF는 진정 그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세기말 혼란한 상황 속에서 허약한 우리의 정신적 가치는 외부의 여건에 의해 다시 정립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중국의 중심사상은 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가 나와서 꽃을 피웠다. 전쟁으로 황폐한 땅에도 꽃이 피고 생명이 성장한다. 태풍이 불어 모든 것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혀도 이름 없는 들꽃은 제일 먼저 일어난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잃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잃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찾는 기회가 온 것이다. 혹시 우리가 낡은 끈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 보기보다는 끈을 놓아버리고 다른 세계로 가는 편이 빠를 것이다.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더 잃을 것은 없다. 물이 썩으면 썩을수록 맑아짐의 시작이요, 일이 없다는 것은 일이 있을 수 있음의 시작이다. 온갖 정실에 의해 수주와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원칙과 규정에 의해 선정되기 위한 시작이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미래는 위장을 줄이고 적게 먹고 최소한의 열량으로 정신을 맑게 하여 세상을 넓고 깊게 바라보는 즐거움에서 찾아야 한다. 유럽의 어느 건축가는 현상설계에 당선되기 직전까지도 사무실에 복사기가 없었다고 들었다.

나는 아직도 부자인 것 같다.

밥을 적게 먹는 한이 있어도 정신은 부자로 살아가고 싶다.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I)

The Vision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1999년 12월호

경제 / 위기의 다음은 기회이다 - 김준한
경영 / 경영혁신의 새모델 - 백준홍
역사 /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정체성 - 이상해
사회 / 건축의 현실, 현실속의 건축 - 정기용
문화 / 문화의 세기 - 윤호미

2000년 1월호

법 · 제도 /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건축이 산다 - 이관영
교육 / 21세기 글로벌시대의 건축교육 - 이상현
국제환경 /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건축의 생존전략 - 민경식
시장개방 / 더 이상의 보호막은 없다 - 김태환
해외진출 / 건축디자인 경쟁력이 해외시장진출의 성패를 좌우한다 - 허승희

숨가쁘게 달려오던 한국사회는 문득 21세기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지난 한 세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건축계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렇다 할 준비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건축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새로운 서구적 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는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이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다. 외래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건축이 겪었던 문화적 충격은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 아니라 기존 도시구조의 대대적인 변형과 파괴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로 인한 불균형한 개발은 급조된 건축물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 건축문화의 모습은 기형적인 도시환경의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21세기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정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축 분야 역시 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각국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그에 따른 교육 및 시험수준, 경력의 요구조건, 제반규제사항 등 각국의 상호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올해 열린 UIA(세계건축사연맹) 북경 총회에서 승인되어 표준안이 공포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건축계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건축계는 급변하는 세계속에 우리의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밀레니엄 특집으로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이란 주제로 한국건축의 새천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통해 우리 건축이 담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특집이 계획되었으며, 또한 한국건축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 보므로써 한국건축의 활로를 모색하고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의 미래지향적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위기의 다음은 기회이다

Opportunity Follows Crisis

김준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by Kim Jun-Han

험난했던 IMF 파고

우리 경제는 2년 전부터 IMF관리체제로 돌입하면서,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고통을 받고 있다. 외환 부족과 금융체제의 붕괴로 환율과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정부·기업·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진하였다.

정부는 IMF와의 정책 협의에 의거,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금융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기업들은 군살을 제거하고, 업종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은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둔화 내지는 감소가 불가피하였고, 장래를 대비한 투자 확대는 업무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다. 이로써 건축경기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축허가면적이 1998년중 전년대비 55%나 감소하는 등 건설 수요는 격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규 투자의 감소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설계·엔지니어링, 시공업체 등 건설업종은 여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 건축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중소건설업체 및 건축설계사무소는 아직까지도 침체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거시경제 회복 불구 건설시장은 침체 지속

최근 국내 경제가 IMF체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이미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에 들어서 1~9월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9%를 기록하였다. 최근 3/4분기의 GDP 성장률은 12.3%에 달하였으며, 그 규모는 1997년 동기의 104%에 달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3/4분기중 증가율이 32.2%를 기록, 1997년 동기의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999년 1~9월중 전년동기에 비해 10.5% 감소하였으며, 3/4분기에도 10%가 감소하였다. 3/4분기의 건설투자액은 1997년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7	1998 P					1999 P			
		1/4	2/4	3/4	1/4-3/4	연간	1/4	2/4	3/4	1/4-3/4
국내 총생산	5.0	-3.6	-7.2	-7.1	-6.0	-5.8	4.5	9.9	12.3	9.0
건설 투자	2.3	-5.9	-7.8	-12.0	-8.8	-10.2	-13.7	-8.5	-10.0	-10.5
설비 투자	-8.7	-38.3	-46.1	-39.3	-41.4	-38.5	12.9	37.2	48.0	32.2

* 자료 : 한국은행

〈표1〉 분기별 국내총생산 및 건설투자 증가율

구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건설계약액(경상가격, 억원)	576,063 (10.4)	687,490 (19.3)	749,240 (9.0)	471,847 (-37.0)	494,350 ^(e) (4.8)
건축계약액	404,085 (10.2)	459,271 (13.7)	453,515 (-1.3)	222,323 (-51.0)	289,110 ^(e) (26.5)
건축허가면적(천㎡)	117,327 (0.9)	113,818 (-3.0)	113,374 (-0.4)	50,965 (-55.0)	

* 1.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2. (e)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3. 자료 : 건설교통부, 대한건설협회

〈표2〉 건설계약액 및 건축허가면적 추이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의 공공투자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나, 건축부문은 성장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주택건설호수로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평균 60만호가 건축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40만호 이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즉, 건축부문의 경우, 앞으로는 물량면에서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동기의 7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경제 동향을 감안할 때, 건설투자의 부진이 IMF의 충격에만 기인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사실, 건설투자 가운데, 건축부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장기 동향을 살펴볼 때, 건축허가면적은 1996년부터 감소 추세로 반전된 바 있으며, 건축공사 계약액도 1997년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즉,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시장의 부분적인 침체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IMF 충격이 가세하면서 건축시장의 침체가 더욱 증폭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IMF체제가 건설시장의 침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인가? 이는 건설투자의 분석과 전망을 행함에 있어 시계열모형과 구조모형에 의한 분석치의 차이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8년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대비 37%가 감소하였는데, 이 가운데 약 20%의 감소율이 IMF의 충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축시장은 이미 성장 한계 노출

그러면, 현재 건축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떠한가? 우선,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1999년 2/4분기와 3/4분기중 각각 전년동기대비 22.4%와 76.6% 증가하였다. 따라서 민간 건축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과 상업용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지표에 의거하여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진단할 수는 없다. 현재 건설경기 지표가 상승하는 것은 급격한 침체 이후의 기술적 반등의 요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투자는 실물 경기에 비하여 3~5분기 후행하는 특성이 있다. 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1999년 1/4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했

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건설투자의 저점은 1999년 4/4분기에서 2000년 1/4분기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면 언제 건설투자가 완전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인가? 1997년의 수준을 언제 회복할 것인가?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던 멕시코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에서는 1994년말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는데, 1998년까지도 1994년의 수준의 건설투자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즉, 건설투자의 회복에 5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멕시코의 선례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도 건설투자가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하는데는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건설투자가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00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은 5% 내외로 보고 있으나, 건설투자 증가율은 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선진국의 예로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내외에서 GDP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로는 하향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 근거한다. 현재 주요 선진국의 GNP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은 5~8%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설투자가 부진했던 1998년에도 2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10~1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의 공공투자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나, 건축부문은 성장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998년에 92.4%에 달하였으며, 오는 2002년에는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부터는 신규 수요에 비하여 대체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인구대비 신규주택 공급량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격감할 전망이다. 주택건설호수로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평균 60만호가 건축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40만호 이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즉, 건축부문의 경우, 앞으로는 물량면에서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건축설계업체에서도 이제는 양적 성장 위주의 사고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설설계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건축설계경기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건축설계의 전문화도 진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주 방식의 선진화와 더불어 학제의 개편 등 과감한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로운 활로의 모색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건축 업계는 아직도 긴 터널속에 있다. IMF경제위기는 아직까지도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업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21세기 건축시장의 변모에 대비하여 지금 건축업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건설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건축수요는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건축 스톱이 증가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 수요가 점차 다양화·고급화·첨단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텔리전트 빌딩이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대응 방향으로서 물량 감소, 수요의 고급화, 개·보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공급 체계도 이에 부합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대량 생산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다양화의 진전에 따라 시공업체나 설계업체 모두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물량 위주에서 벗어나 품질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야 할 때이다. 수요의 질적 변화를 고려할 때, 부가가치의 창출 여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화·전문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문화가 이루어진 경쟁력있는 업체에게는 오히려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화의 예로서는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아파트는 과거에는 획일적 평면이 일반적이었으나, 그 후 옵션제가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방의 수, 마감재의 재질 등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맞춤형 설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었고, 선분양 제도도 외국의 선례로 볼 때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상품의 고급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설계업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설계업계의 방향 : 전문화와 고부가가치화

현재 건축설계 업계는 건축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체질 개선의 호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1994년부터 건축사 배출 인원이 3배 가까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진입장벽의 완화는 시장경제 체제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사회 전반적인 조류이기도 하다.

건축설계업체에서도 이제는 양적 성장 위주의 사고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설설계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건축설계경기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더구나 건축설계 시장이 개방되어 이제는 외국에서 밀려오는 건축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에서는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건축학과 의 개편과 건축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어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설계사무소도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넓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도 강화해야 한다.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외주 민생주의도 재고되어야 한다.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CM제도가 도입된 이상, 건축사도 컨설턴트로서 업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건축설계의 전문화도 진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주 방식의 선진화와 더불어 학제의 개편 등 과감한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영혁신의 새 모델

A New Model for Reformation

백준홍 /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Baek Jun-Hong

21세기 맞이하며, "건축"이라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 건축설계사무환경의 과거와 오늘을 통한 미래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이 글의 취지가 있다. 급속도로 발전해온 우리 나라 경제적 상황이 말해주듯이, 우리 나라의 건축설계환경 또한 70년대와 80년대 급속한 양적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세계의 이목은 우리 나라 현재의 건축실태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부실공사와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한 사고들은 세계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20세기 말 우리는 IMF라는 제2의 경제적 6.25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20세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양적 성장에만 급급해온 우리 나라의 건축업과 건축사무소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소위 감량경영(Lean Management)화 되었다.

더욱이 정부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의 부실요소가 드러나면서 건설업 자체에 대한 내·외부적 각성의 목소리가 증폭되어 있으며, 기존의 건설 관행이 철저히 경제 원리로 돌아서고 있는 이즈음은 건설업체가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98년 이후 건설업계의 하도급 공사도 전면 최저가 경쟁 낙찰로 전환되었다. 덤핑수주로 건설업체가 어려워지면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하도급 문화도 순식간에 바뀌었다. 협력업체라는 공존 공생관계로 유지되던 한 식구 개념의 원·하도급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도급 경쟁입찰시 등록된 하도급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수 협력업체에는 이윤을 보장해주는 적정 공사비 개념을 도입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협력업체개념이 파괴되면서 오직 무차별 최저가 낙찰만이 있을 뿐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최저 투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선 최저 투찰 업체를 낙찰시키고 있다. 이러한 덤핑가격에도 물량이 없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덤핑가격에도 물량이 없기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체들의 제살끼기, 또 건설업체에 대한 기름

짜기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한 결과인가? 각 분야의 전문가마다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4가지의 원인으로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유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건축설계와 시공의 대형화·복잡화 및 다양화에 따라 건축의 경영환경은 고도로 동태적(動態的)이고 난해해졌으나, 작금의 경영체계·관리방법은 전근대적인 태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사용 영역의 확산에 편승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경영정보화를 90년대 이후 진행해 오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둘째, 중·소규모 건설기업의 난립과 과다경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소기업들의 경영체질 변화와 산업 및 관리형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건설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여, 현재 일반건설업 5종과 전문건설업 25종이 면허제이고, 기타 전문 건설업 4종이 등록제이다. 또한 면허경신제 폐지로 99년 3월 현재 4,529개사에 이르는 일반건설업체와 26,610개사의 전문건설업체가 면허경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 받게 되었다. 이에 따른 영세건설기업의 난립과 과다경쟁 및 덤핑수주, 정치적 환경변화와 IMF로 인한 국내 건설수요의 격감외에 대외적으로는 건설시장의 개방을 들 수 있고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건설기업의 경영합리화의 필요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원가의 절감 및 관리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필요성의 인식을 들 수 있다.

셋째, 건설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체간 협력 체계의 구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업체들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소수 대형업체가 백화점 식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공사

이젠 우리 나라 설계사무소는 전문화와 M&A를 통한 몸통 키우기를 해야 할 것이며,
미국에서 CM의 1/3이 AIA출신인듯 우리 나라도 설계사무소 환경의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21세기는 CM의 3대 요소인 Control, Communication, Coordination을 갖춘 설계사무소 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발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형·중소, 건설·설계업체들 간의 협력이다. 업체들간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업체들은 서로 경쟁 상대이기보다는 협력 파트너가 된다. 또한, 업체들간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는 수주난 및 경영난의 해소와 더불어 기술의 교류 및 공유 촉진, 그리고 시너지 효과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실상은 그 특성상 관련 산업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관련 기업의 수평적 내지 수직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보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프로젝트의 고도화·전문화·복잡화되면서 점점 협력체계의 부재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건설업체의 전문화와 대형화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수준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시공기술분야에서 단순기술부분은 주요 선진국이 100%일 때, 우리 나라가 95~100%수준을 유지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있으나, 고급 및 첨단 기술부분은 크게 취약한 상태에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는 시공 기술분야보다 훨씬 기술수준이 낙후된 상태에 있다. 즉, 단순기술부분에서 90% 수준, 고급기술부분에서 30%수준으로 취약한 수준이다.

건설공법, 견적기술 등 종합적 시공기술은 선진국의 60~70%수준이며, 자금 수지의 효율화, 노무관리 등 경영관리 기법과 공사관리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수준이고, EC, CM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35%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건설기술연구원(1993)에서 조사한 시설물 분야별, 프로젝트 단계별 기술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의 평균치인 종합기술수준 수치가 기술 선진국의 70.1%를 나타내고 있다. (박병무의, 건설기술수준 지표 개발 및 장기발전 방향, 건설기술연구원 1993.12)

이것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전문화를 무시한 다양화에 따른 현상이다. 각 업체들마다, 각자의 기술정보 시스템과 독자적인 개발을 무시한 채, 몸 키우기에만 열중하여 발생한 후진국형 증후군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건축사 사무소의 현황은 더욱더 그러하다. 98년도 상반기 월별 건축설계 실적에서 1월 수주액의 50%가 감소한 수주액은 국내 각 사무소의 전문화를 무시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는 건설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와 IMF을 통한 국내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겹쳐 국내 사무소의 전문화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 70,80년대의 극심한 경기불황시 미국 건축사 사무소의 대처방안을 보면, 각 업체들마다의 독자적이고 특성화된 전문화를 통해 수주 확대 및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개척과 세계시장에 경쟁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건설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행하였다.

이상, 현 시대적 상황에서 전문 건설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반적인 산업 중에서도 건설시장은 가장 심한 격변과 거센 도전, 냉정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건설업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젠 우리 나라 설계사무소는 전문화와 M&A를 통한 몸통 키우기를 해야 할 것이며, 미국에서 CM의 1/3이 AIA출신인듯 우리 나라도 설계사무소 환경의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21세기는 CM의 3대 요소인 Control, Communication, Coordination을 갖춘 설계사무소 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30년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생존의 최후방안을 사용한다는 결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발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정체성

The Legitimacy and Identity of Korean Architecture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Sang-Hae

한국건축의 특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건축이 중국건축의 한 부류나 아류에 속할 뿐인 것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건축을 가능케 한 기법이나 제도에 속하는 많은 부분이 비록 중국건축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한국건축은 중국건축에서 볼 수 없는 뚜렷한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뿐 아니라 불교조각, 도자기, 회화 등 한국 전통예술 전반에 나타난다. 5세기 초엽에 중국에서 들어 온 불상은 석굴암에서 완숙한 조형미를 보이고, 고려청자 역시 마찬가지로 12세기에 이르러 세계에서 으뜸가는 청자가 되며, 18세기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에서 보는 회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미학자 조요한 교수는 최근 발간된 그의 『韓國美의 照明』(열화당 출판)에서 “한국의 전통예술은 중국의 영향에서 이루어졌으나 점차로 중국과는 다른 ‘대립적 변이’가 들어 생겼다.”고 요약해서 말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예술과는 뚜렷한 변이를 나타낸 한국예술의 성격이 무엇인가. 고유섭(高裕燮)은 한국예술의 특성을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말했고, 김원웅(金元龍)은 가능한 한 인공의 흔적을 줄이려는 ‘자연주의’라고 규정했다. ‘무기교의 기교’나 ‘무계획의 계획’은 한국예술의 비균제성(非均齊性)을 일컫는 말이고, ‘자연주의’는 한국예술의 ‘자연순응성’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조요한 교수는 한국예술의 성격을 비균제성과 자연순응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규정하며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한국 민족은 아득한 옛날에 서북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이동했다가 다시 한반도로 남하한 알타이계의 한 민족이다. 추운 지방의 삼림지대를 통과하면서 형성된 무교(巫

敎) 신앙이 한국인의 정신과 육체에 스며 있어 한국예술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사물놀이와 가야금 산조의 연주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대로, 진양조와 중모리 같은 느린 장단에서 시작하여 자진모리와 휘모리 같은 빠른 가락에 진입하며 신나면 규칙을 무시하면서 도취하는 무교적 기질이 한국예술의 비균제성을 낳았고, 북방지대에서 유목민으로 있었을 때에 천신(天神) 신앙을 가졌던 한민족이 남하하여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농경생활로 전환할 때부터 생긴 지모신(地母神) 숭배가 자연순응성을 낳았다고 해석한다.

이를 건축에서 살펴보자. 중국건축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지배층 제도권의 건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종법(宗法)과 예제(禮制)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몇 가지 특성으로 집약된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대칭적 균제성이다. 주택, 불교사원, 도교사원, 궁궐, 사묘(祠廟) 등 중국전통건축은 모두 축선(軸線)을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되는 배치를 한다.

고대에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면서 삼국 시대의 한국 불교사원 건축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좌우대칭의 배치를 하였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불교사원 터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평양 금강사지, 부여 정림사지, 군수리 사지, 익산 마륜사지, 경주 황룡사지, 감은사지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불교사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좌우대칭의 배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한국의 지형조건과 한국인의 감성에 맞는 사원배치로 바뀌기 시작한다. 현존하는 사원 중에서 이러한 배치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찰이 영주 부석사(浮石寺)·합천 해인사(海印寺)·구례 화엄사(華嚴寺) 등이다.

또, 어떤 사찰들은 불교와 관련된 종교의식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원 공간을 구성하여 사찰건축의 공간 구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케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찰들은 불규칙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필요한 곳에 다리를 놓고

한국건축전통은 엄격한 좌우대칭의 배치보다는 단위건물과 전체, 그리고 자연과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부분과 전체를 엮어내는 방식은 건물의 입지 해결, 건물로 생기는 외부공간의 구성 등 물리적인 해결 이상의 보이지 않는 관계적 질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단위건물은 그 하나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다는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지니며 조영되었다.

계곡 물을 사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자연과 함께 하며 거기에 순응하는 공간구성을 하여왔다. 이러한 건축형식은 중국불교사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건축 특유의 건축공간 구성 기법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주거건축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주택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건축 배치형식과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주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채택된 유교 성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국의 주택은 북경 사합원(四合院) 주택으로 대표된다. 주택 가운데에 있는 마당(中庭)을 중심으로 그 둘레 사방으로 건물이 중심축을 따라 좌우 대칭으로 들어선 배치를 하고 있는 주택이다. 이러한 배치를 한 주택에서 유교의 예법에 따라 실(室)들을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한국의 주택은 유교 예법에 따른 주거형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과 배치에 있어서 중국과 다르다. 중국은 주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중심되는 건물 주인 남자와 여자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의 주택은 남자는 바깥에 있는 사랑채에, 여자는 안채에 기거한다. 그리고 건물의 배치 형식은 기하학적인 대칭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있다. 안동 하회마을의 양진당, 충효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사대부 주거가 그러하고, 사대부 주거를 본 따 지었다는 창덕궁 안의 연경당도 그러하다.

궁궐건축 역시 마찬가지다. 경복궁만 보더라도 유교 예법과 종법에 맞도록 기본적으로 좌우대칭을 한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창덕궁은 그렇지 않다. 정전(正殿)인 인정전 일곽만 기본적으로 좌우대칭의 기하학적인 배치를 하고 있고, 편전(便殿)과 내전(內殿)인 침전(寢殿)을 이루는 주변 일곽은 좌우대칭에서 벗어나 있다. 지형과 지세에 맞게 다양한 좌향을 취하며 배치되어 전체 일곽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특히 중국 북경의 명나라, 청나라

때의 궁전인 자금성에서 볼 수 있는 궁궐 배치형식과 크게 다른 배치 형식이다. 자금성은 엄격한 좌우대칭을 한 배치를 하였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은 좌우대칭으로 기하학적인 배치를 한 경복궁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유기적인 배치를 한 창덕궁에서 정무(政務)를 보는 것을 더 선호했다. 창덕궁은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건축 배치형식을 한 궁궐로서 이는 중국과 다른 배치 기법이다.

이와 같이 한국건축전통은 엄격한 좌우대칭의 배치보다는 단위건물과 전체, 그리고 자연과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부분과 전체를 엮어내는 방식은 건물의 입지 해결, 건물로 생기는 외부공간의 구성 등 물리적인 해결 이상의 보이지 않는 관계적 질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단위건물은 그 하나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다는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지니며 조영되었다. 이러한 내용과 연관시켜 한국건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전통건축은 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건축이다. 한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과 상관이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이 고려된다. 단위건물은 그 자체로서 보다는 그 건물을 둘러싼 주변과의 관계가 더 중요시되어 들어선다.

둘째, 한국전통건축은 전체성(全體性)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건축이다. 이 전체성은 부분과 전체, 인간과 자연 등 모든 차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한국전통건축은 전체성 속에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며 이루어진 건축이다. 건물의 배치는 엄격하게 대칭적인 배치를 하지 않았고, 각 건물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며 변화 있게 배치되었다.

넷째, 한국전통건축은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 배치형식을 형성하였다.

주거건축, 불교건축, 유교건축 등 거의 모든 한

“

한국전통건축에서 공간의 질서와 조직은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전개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규칙적이고 정적(靜的)인 공간이 아니라 정제되고 생동적인 공간으로, 닫힌 공간에서 자연과 주변 환경으로 열린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경사진 지형에 세워진 건물들은 의도적으로 자연을 건축 속으로 끌어들이 자연과 건축이 하나로 합일하도록 하는 차경(借景)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전통건축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

국전통건축은 그 자체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건축을 만들면서, 동시에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합당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실제로, 복잡한 지형을 한 구릉지에서는 대칭적이고 규칙적인 건축배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지형에 맞고 주변 자연과 조화하는 배치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건축 배치형식은 평지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고 생동적인 건축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치방식과 공간형식은 거기에 건축적 질서와 조직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한국전통건축에서 공간의 질서와 조직은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전개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규칙적이고 정적(靜的)인 공간이 아니라 정제되고 생동적인 공간으로, 닫힌 공간에서 자연과 주변 환경으로 열린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경사진 지형에 세워진 건물들은 의도적으로 자연을 건축 속으로 끌어들이 자연과 건축이 하나로 합일하도록 하는 차경(借景)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전통건축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이러한 배치형식은 한국전통건축에서 건물의 외관, 즉 입면(立面)의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들로 둘러싸인 공간이 중심이 된 형식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이러한 건축형식은 공간 자체로서 건물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이는 서구 현대건축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한국전통건축의 단위건물 자체는 지붕, 기둥, 벽, 기단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특색 있는 조형을 이루지만, 건물이 집합할 경우는 크기, 고저, 장단, 명암이 서로 다른 단위 건물이 자유롭게 연결되어 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축 특유의 집합형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한국전통건축은 비양식적(非樣式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 형식은 건축을 둘러싼 외부공간과 자연을 건축과 함께 하게 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며, 한국전통건축이 서양건축과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하나의 피체(mass)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양건축은 결과적으로 내부공간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와 대응하는 한국전통건축은 외부공간이 발달하게 되었음은 물론, 내·외부공간이 상호 관입하는 공간형식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한국전통건축의 공간도식은 건축역사학자 기디온(Sigfried Giedion)이나 제비(Bruno Zevi)가 해석하는 서양건축의 공간발달사와 궤를 달리한다.

도면상에서 볼 때, 한국전통건축의 전체 평면 배치는 일반적으로 아주 평이하여 어떤 특색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한국전통건축의 배치 정신과 중요한 설계 이념은 평면의 형식에 머물지 않는다. 얼른 보아 비슷하게 보이는 배치 방식일지라도, 실제로 조성된 공간형식은 주변 건물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독특한 공간형식을 가져온다.

공간형식의 중심은 대부분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된 건물과 담장, 그리고 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공간의 변화와 전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통건축에는 정적(靜的)인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움직임 중에 있는 연속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 관계는 공간의 진입에서부터 절정에 이르는 일종의 기(起), 승(承), 전(轉), 결(結)을 이룬다.

중국의 문물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중국건축은 상당한 경우 한국건축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건축이 배치되는 방식이나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중국과 다른 한국 특유의 건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중국과는 다른 ‘대립적인 변이’들이 생긴 건축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또 삶의 방식을 표상하는 문화와 크게 연관된다.

서구건축이 한국에 유입되어 수용되는 과정도 중국건축이 한국건축에서 ‘변이’ 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건축이 맞이할 새로운 천년은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현대한국건축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도전의 날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육사는 일찍이 그의 시(詩) 「광야」에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하며 문명의 태동을 읊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며 먼 앞날을 내다보았다. 우리가 가야 할 새 천년의 길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주거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집합주택 모두에서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전통주거는 마당에서 각 방으로 들어가거나 대청을 통하여 들어가는 건축배치와 평면형식을 하였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한국의 주택을 보면, 현관을 들어와 거실을 통해 각 방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이 대부분이다. 현관은 전통주택의 대문에 해당하고, 거실은 마당이 된다. 이러한 평면형식은 서구현대건축에서 볼 수 없는 평면형식이다.

지난 100년간 동양사회에 대한 서양문화의 영향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컸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더 치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범세계적으로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는 자본화, 세속화 현상에 대하여 동·서양에 존재하는 문화의 정체성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전통건축에 내재하는 자연관과 건축공간조형형식은 앞으로 다가올 한국건축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서구건축이 안고 있는 위험은 과학기술 안에 있다. 서구 근대과학은 감추어진 것을 그 자신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낸다는 뜻을 가진 과학기술 본래의 어원인 포이에시스(poiesis)에서 벗어나 배반의 길로 치닫고 있다.

테크놀로지라는 수단을 통한 기형의 모습으로 건축이 들어내야 하는 감추어진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 자기를 초월함으로써 자신을 더욱더 들어내는 지혜와 탈출구는 동양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통해 건축이 건축답게 되기를 원하는 포이에시스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00년은 우리들에게 자명종을 울리는 것과 같다. 잠에서 깨어나기 싫어하는 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밖에서 들어온 건축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맑은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여 새 날을 맞이하는 자는 일찍 일어나 자기 자신의 하루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한국건축이 맞이할 새로운 천년은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현대한국건축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도전의 날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육사는 일찍이 그의 시(詩) 「광야」에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하며 문명의 태동을 읊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며 먼 앞날을 내다보았다.

우리가 가야 할 새 천년의 길이다.

건축의 현실, 현실 속의 건축 - 또다른 시대를 위한 성찰

Architecture's Reality, Architecture in Reality

정기용 / 기용건축연구소

by Jeong Gi-Yong

제로로씨의 건축

해방 이후 이 사회가 목격한 건축의 역사는 제도화의 역사이며 건축의 역사라기보다는 건설의 역사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건축이 잉태해온 역설이 있다. 건축이 한 사회 속에서 '건설'이라는 물리적 행위 이외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정체성의 혼돈을 보이고 있는데는 그 태생의 미약한 구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회가 목표로 질주해온 산업화, 자본주의화라는 근대화의 격랑 속에 휩싸여온 여파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급변하는 삶의 양식과 가치를 가능할 여유를 갖지 못해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또다른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는 이쪽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건축인들(건축사, 건축가, 건축관련 교육자들)은 질주하는 사회에 대해서 통찰하고 왜 건축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로부터 출발하기보다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 내어야만 그럴듯한 찬사를 받을까에 더 열을 올리거나 오직 서양의 대가들의 그늘 밑에서 근사한 건축의 뜻을 펼 시대를 기다리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모두 시공자나 사회를 비난하며 사회의 그늘 밑에서 공고히 한 제도로써의 건축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제도 안에는 법도 있고 관행도 있으며 언어도 있다. 건축을 둘러싼 온갖 종류의 분류법도 있다. 모든 것은 건축의 목적이나 의미를 거론하기 전에 법과 관행과 분류법에 맞기만 하면 가능하게 되었다. 법은 악용을 낳고 관행은 또 다른 관행을 만들며 여하한 분류에도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사족을 달기도 한 것이다. 다만 법과 관행은 '좋은 건축'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진지한 사회적 요청에 따른 정의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그 반대로 건축의 질을 하향 조정하는 당위를 제공해주었고 자본가에게는 사회적 요구처럼 보이게 하는 형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땅에 수백 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해온 역사와 과정과 그 행위 주체들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아도 얼마나 건축가들의 위상이 미미한 것이며 제도와 자본의 힘이 막강

한 것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30여 년 간 전국 방방곡곡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건설되고 획일적인 삶이 강요되어도 건축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건설회사의 지시와 의지를 따라 단순히 목청하며 종이에 옮기는 하수인으로써의 역할뿐이다. 이 견고하고 거대한 제도의 폭력 앞에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건축을 한다고 누가 큰소리 칠 수 있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입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거주할 권리가 박탈된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부짖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될 것인가? 다 잘 살고 있는데 웬 뉘트리인가 할만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런 모든 현상은 정치권력과 자본가와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상징조작의 희생자라는 국민들과 이런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축인들의 공묘 현상인 것이다.

건축의 생산과정에서 가장 상위개념이 들어설 영토를 잃어버린 건축가들을 사회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몰수해간 자본가들에게 건축가들이란 귀찮은 존재일 따름이다. 그들은 다만 제도적인 건축을 재생산해내는 데 법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들이란 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교류할 가장 큰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다. 변호사나 의사란 직업이 일제 초기부터 근대적 직업으로 촉망받아 오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명칭이 일치해온 것에 반하여 건축사란 거품경제 시대에 세무서에서나 챙기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될 뿐이었다. 물론 소수의 기업형 대규모 설계회사들이 산업발전에 따른 공간 생산에 이바지 해오거나, 건축가를 알고 있는 소수의 건축주들이 뜻 있는 건축을 해온 경우는 있으나 그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평범한 시민들은 필자의 사무실이 명륜동에 있다고 하자 놀라서 "아니 명륜동에 무슨 구청이 있나요? 설계사무실은 구청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묻는 것만 보아도 건축가들이 얼마나 준 공무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건축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무지함과 건축가들이 자행해온 사회적 현실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 사이에 큰

건축가들이 다가구 주택을 설계하기보다는 빌라나 개인주택을 설계하는 편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생적인 이러한 민중건축에서 필자는 오히려 한국적 모더니즘의 또다른 모형을 본다.

건축의 사회적 요청에 대한 서툰지만 진정한 해답을 건축인이 아닌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건축에 대한 균열과 요동이 그들 속에 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건축을 만들었고 결국은 사회 속에서 건축을 하나의 제도로써는 성취시켰지만 그 안에서의 입지와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건물은 있는데 건축가가 부재 하는 파라독스다. 그러면 이런 모든 현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다양한 기원을 갖는다.

현실과 유리된 건축

건축이 이 사회 내에 존재하며 그로부터 분리 될 조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건축'이란 말이 이 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일제 말기에 건축을 전문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조가(造家)이었으며 이를 가르치는 파를 조가학과라고 불리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후 '건축'이란 용어가 일본에서 유입하여 통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건축인이 배출된 것은 조선총독부 영선과로부터다. 그곳에 근무하던 조선인 몇몇으로부터 근대적 의미의 건축인이 탄생(?)한 셈이다. '제도사'들이 해방이후 '건축 대서사'로 불리다가 결국 이들이 본격적인 제도권내로 들어온 시점은 박정희 정권의 출발과 함께이다. 식민지 시절을 지나 조국 근대화의 가치를 내건 제3공화국의 탄생은 건설의 신화를 만들어내며 30여 년 간 이 땅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와중에서 건축문화를 말하기 전에 건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막대한 건물의 생산은 결국 이 사회에 '건설의 관성', '건설의 제도화'를 가져왔다. 그 와중에서 건축사들은 많은 일에 동원되었으나 그들의 뜻을 펴는 장으로써가 아니라 건설의 하수인으로써 작동할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의 발언은 너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물론 몇몇의 큰 건축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류에 힘써이길 거부하면서 건축이 문화로써 대접받도록 그들의 재능을 보여주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가 개인의 역사에 머무를 뿐 이 시대, 이 사회가 안고 있던 수많은 건축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나 시험을 외면한 것이었다. 절박한 시대적 요청인 주거의 문제나, 도시의 문제를 현실적 수준에서 고뇌하거나, 또는 세계 건축사의 다양한 흐름이나 문제의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너무나 개인적인 표현의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그토록 고민해온 도시주거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재벌 건설회사와 영세한 집장사들이다. 건축적으로 의미를 주지 않으려는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들을 보라! 도시풍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소도 없지 않으나 그것이야말로 소규모 토지주들이 소위 동네 집장사들과 공모해서 풀어 놓은 이 시대의 민중건축인 것이다. 좁은 대지 위에 층마다 다른 입구를 두려는 처절한 노력, 법을 지키면서 우회하려는 기발한 해결책들, 가장 저렴한 공사비를 유지하면서도 품격(?)을 유지하려는 온갖 장치들, 세월을 따라 조금씩 개조되는 옥상의 표정들, 이 모든 것은 가장 적나라하며 현실적인 시민들의 건축인 것이다. 이것이 물론 고급빌라나 TV 연속극에 늘 등장하는 일산의 단독주택들과는 다르다. 건축가들이 다가구 주택을 설계하기보다는 빌라나 개인주택을 설계하는 편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생적인 이러한 민중건축에서 필자는 오히려 한국적 모더니즘의 또다른 모형을 본다. 건축의 사회적 요청에 대한 서툰지만 진정한 해답을 건축인이 아닌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건축에 대한 균열과 요동이 그들 속에 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도권 "표준화된 행위양식 즉 전형화한 상호작용의 양식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퇴적되고 응고되어 더 이상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과 파괴가 없는 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되는 질서를 의미한다." (주1) 지속되는 질서, 제도는 그래서 항상 진형형이다. 그리고 하나의 제도는 생성해서 변화하고 소멸한다. 미세한 소요와 절규들이 기존의 제도에 균열을 가게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다. 건축인들이 사회와 유리된 채, 사회 속에서 만든 제도의 건축들-항상 문제를 야기하는 설계경기로 탄생된 건축들(공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그 수많은 공공건물들 중 우리를 감동시킨 건축은 또 몇 개나 있단 말인가!), 세상과 학생들은 변했는데 아직도 일제 시대처럼 지어지는 병영식 학교건물들, 다 비슷한 오피스 건물들,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그리고 저 논두렁과 산자락에 비집고 올라온 참혹한 아파트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혼돈에

“

서양의 대가들이 좋은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속된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기술과 시대정신에 대한 애정과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건축이 시대와 사회적 요청을 담는 그릇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며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

서 질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자리, 즉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르는 길목에 카오스의 가장자리”(edge of chaos)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집장사들의 집들이 바로 그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혼돈이라고 부르는 저 도시속에 저 현실속에 새로운 질서의 해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나 도시와 같이 비평형 개방계에는 수많은 작은 요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점점 큰 요동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산일(散逸)구조가 나타나면 자기 조직화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카오스의 가장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기를 일리아 프라고진은 화학, 물리적 변화로부터 생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이 분야를 연구했다. 특히 아메바의 일종인 점균(粘菌)은 평소 고립적으로 존재하나 영양이 부족해지면 (에너지 공급에 균형이 무너지면, 즉 산일구조가 발생하면), 하나의 화학적 신호를 발산하여 가까이 있는 점균에게 알리고, 이에 호응하여 모여든 몇 천의 점균은 일정한 임계치에 도달하면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 영양이 충분한 곳으로 이동하여 줄기를 생성하고 포자(孢子)를 만들어 다시 주변으로 흩어진다. 이 때 포자는 다시 하나의 점균이 된다. 점균은 위급한 상태에서는 집단으로 뭉쳤다(자기조직화)가 안정된 상태가 되면 다시 분열함으로써 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이다.(주2)

건축은 사회의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다. 사회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건축언어로 사회를 보려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란 체계 속에서 건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정교하게 들여다 보아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건축은 그 태생과 발전 과정의 일탈로부터 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건축인들은 그들의 역할에 알맞는 명칭을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통으로써의 건축

일제에 의해 강요된 근대화의 물결 속에 이 땅에 건설되었던 수많은 일본식 집들이 거의 다 사라진 위에 폭발적으로 다시 건축된 건조환경 그 자체가 경이로운 현상이다. 식민지배와 그 흔적의 소멸, 그리고 전쟁의 파괴와 그 잿더미 위에 30여 년 동안 일으켜 세운 건축행위 그 자체의 혼돈 속에 진실이 있다.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두고 건축의 역사를 통해 이 시대를 되돌아보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진실의 정체를 밝혀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이야기 해보았다. 이제야말로 사회 속에서 건축가가 어떤 건축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건축을 하는지에 대한 자성적 논의에 따라, 스스로를 자기조직을 할 때인 듯 하다.

올해가 건축문화의 해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전시를 하고 강좌를 한다고 해서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타자로 보는 한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건축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한번도 안겨주지 않은 것이 바로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 것이며 제도권 건축, 건축의 제도화가 이를 부추킨 것이다. 따라서 건축인들은 좋은 건축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법이나 비상식적인 권력이나, 폭력적인 자본에 의해 왜곡된다면 그에 맞서 발언하고 싸워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서 건축의 본질적인 힘인 공공성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새로운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적 날개짓을 건축계부터 가까이 수용하는 한 건축계는 비로소 사회적 분업으로써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주체가 될 것이다. 다만 건축의 대가들을 향해 고정된 시선을 돌려 여기 이 땅과 지금 실재하는 현실로 우리들의 시선을 옮겨야하는 단서를 잊어선 안 된다. 서양의 대가들이 좋은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속된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기술과 시대정신에 대한 애정과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건축이 시대와 사회적 요청을 담는 그릇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며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1) 사회비평, 개인의 일리성에서 제도의 신화까지 (조직과 시장의 사회학) 이재열, 1994년 11호 p.34
(주2) 김용운, 카오스의 날개짓, 김영사, 1999 p.92~121

문화의 세기
Century of Culture

윤호미 / 조선일보 출판부국장 겸 Feel 편집장

by Yoon Ho-Mee

문화혁명이 시작됐다

미래학회 미래전망 미래 학자 미래공상과학 SF
영화.....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첨단 우주복의 은회색을 떠올리
며 인상지워진 '미래'는 뭐였는가. 그건 바로 '21세기'였다. 그
저 머언 훗날로 미뤄두었던 '미래', 그렇게 떠돌고 연구하고 발표
했던 '21세기'에 우리가 들어선단 말인가? 우주복을 입고 있지
않아서인지 왠지 좀 불안하다. 과연 그 첨단세상, 지식사회, 인터
넷 문화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은 미래와 오늘이 겹쳐지지않아 머뭇거리게 될 것 같다. 확실한
것은 갈브레이스가 말했던 '불확실성' 뿐이라고나 할까? 너무나
많이 예고되고 계획과 전략이 쏟아져 나왔던 터라, 그 수많은 '전
망'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호기심, 희망과 기대 못지않
게 의무와 회의도 많다.

고충빌당은 더 필요할까? 거대조직의 시대는 가고 재택근무가 일반화하고 사이버거래가 생활화된다는데. 인간이 더 고독해지는 걸까? 지금까지의 역사가 집단사회를 기반으로 해왔는데 21세기는 그것이 급격히 해체된다는데, 20세기 '군중 속의 고독'은 여쭙힐 것인가. 이난말로 컴퓨터앞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정신체계가 어떻게 '미래형 괴물'로 바뀌지않을까 하는 의문까지. 당장 내앞의 생활이 어쭙될지 짐작못 하는 그런 상황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시대마다 다 그렇지만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저마다 일생일대의 대변역을 차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변해야 산다'면서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 같다. 이젠 바로 문화혁명이다. 백년 천년 단위를 끊는 길목, 끝과 시작의 연결점, 미래가 오늘이 되는 격렬한 시점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도 벅찬데, 엄청난 변화의 파도까지 맞아야한다니 그야말로 21세기는 문화쇼크와 함께 시작된다고 하겠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구호가 지상명령처럼 전개되는 마당에 서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간 줄기차게 '문화의 세기'를 부르짖어왔는데 묘하게도 우리는 문화쇼크부터 맞이하면서 새 세기를 시작하게 됐다. IMF시련을 포함 정치 경제 사회의 후

진성을 극복하느라 몸부림 치는 한국인들로서 참으로 더 거센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격이다. 선진국들보다는 몇 겹의 더 큰 변화를 치루야하기 때문이다.

가장 본질적인 이론바 문화적인 문제에서 한국
인들은 기본적인 삶의 질이 그 어느분야보다 뒤떨어졌다고 지적
해왔는데 '새롭게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이 변혁의 문화혁명시
대에 발을 맞추어가기엔 참으로 숨가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
나 어찌할 것인가.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고, 스스로를 추
스리는 길에 나설 수 밖에. 치료제와 보약을 동시에 먹어야 하는
과욕을 부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그 낙후되고 불합리한 규
제와 불공정 관행에 허덕이면서 한편으로 문화의 세기에 걸맞게
멋진 디자인 건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겠다는 의욕을 펼치지 않
을 수 없는 건축계의 현실이 바로 그하나의 예다. 어떻게보면 어
쳐구니없고 참으로 비문화적인 현실이지만 그러나 새 세기는 기
다려주지 않는다.

선택과 어울림

국경없는 경제전쟁은 이미 상식처럼 통하게 됐지만, 나이가 삶의 공간 구조에서도 21세기는 국경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고해왔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국경이라는 공간적 단위 안에서 어느어느 나라의 국민으로서 각을 갖고 행세해왔지만 이제는 그것도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국가중심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가 포괄적인 삶의 단위에서 한걸음 빗겨나와 하나의 사회조직으로 그 지위가 상대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생활지역이 고정되는 것이 아닌 좀 더 개방된 세계적 규모로 넓혀지고 삶의 양식 또한 개성이 우선이요 사회나 조직, 국가, 지역은 보조적 역할일 뿐이라고 점쳐진다. 사람들의 관심은 더 확대 분산되고 그 추세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인터넷 문화가 그 대표적인 예다.

‘정보화’ ‘정보가 재산이다’ ‘정보산업’ 등등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휘감겨들었다. 흔히 무회를 충체적 ‘생활의 존재양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같

“

역사의 교훈이라는 공존의 지혜에다 한발 더 깊게 문화적인 어울림을 보탬 때 비로소
새 차원의 행복의 세기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하는
제2의 문명 시대 로 끝까지면서 이제 우리의 아주 가까운 미래로 바라보게 됐다. 행복의 세기를 꿈꾸며 모든 인류에게
친근한 집을 짓는 작업부터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

은 혁명적 상황에선 자칫 대 혼란으로 여겨질 수 있다. 벽을 깨는
작업의 제2단계, 무한대의 허허벌판에 서서 수많은 온갖 새 것들
이 달려오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자유의 길은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시대의 조류인 '세계화'나 '정보
화'는 21세기 사람들에게 선택하는 삶이라는 가장 문화적인 과
제를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인터넷 세상속
에서 누구나 실감하는 문제다.

저마다 개성을 내세우면서 전 지구적으로 움직
이는 세상. 끊임없이 창조를 강조하면서 저마다 새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사회. 아무리 앞으론 같은 문화를 가진 민족이 주요단
체로 작동할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만인에 의한 만인
의 생활, 다양성의 극치로 치달을 것임은 분명하다. 단지 이를 어
떻게 서로 소통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가의 지혜만이 요구될 뿐
이다. 세계화라는 공통의 기호를 그리면서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표현해야 하는 어울림의 작업, 극단적인 니홀로 창의력으로 전세
계 인구와 교감해야 하는 너그러운 세계관이 아마도 이시대 가장
실질적인 문화생활이자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계시민으로 행복 만들기

21세기의 우주복 이미지는 참 정확한 것 같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세계가 그러나 '공동 운명
체'라는 인식에선 인류역사상 극점에 도달했다고 할 만큼 절실했
었다. 인류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까지
의 인간 영역들, 지역이나 국가나 열대지방 온대지방, 백연이고
유색인종이고 하던 모든 차별적 구획은 없어지고 이제 인류의 생
존단위로서 지구를 생각하는 단계에 다급하게 이른 것이다. 전
지구적 자연환경보호가 그 뚜렷한 본보기다. 유엔이 당초 분쟁해
결과 동서전쟁 힘겨루기 마당에서 전 지구적 기아해방이나 인권
보장에 더 많이 기능하는 것도 좋은 예다. 자연과 인간, 우주와
지구는 건축에서 영상매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술문화 분야에
서 이미 시작된 공통주제들이다. 전 지구적인 변화의 또 하나. 21
세기는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궁핍에서 벗어나 풍요

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왔다. 20세기
100년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량, 주거, 연료,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게 됐다는 풀이다. '인류문명사상 처음으로 겪는 질적
전환'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미래학자들은 (물론 발전적인 예상이었
지만) "21세기는 인간해방의 완성기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
해왔다. 세계 모든 인류가 독재자의 화정에서 해방될 것이며 압
박과 피압박의 정치구조는 자율의 체제로 대체될 것이라고 분석
했다. 정치의 지배 구조에서 상호 공존적인 문화 시대로 옮겨간
다는 의미다. 그 일부는 우리가 이미 동구의 붕괴와 동서냉전이
사라진 오늘의 국제정세에서 조금씩 실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
다.

역사의 필연이라고 까지 하면서 감수했던 정치
적인 압박에서 인류가 해방되고, 자연적인 조건이라고 감내했던
기아에서 전 인류가 해방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21세기는 분
명 '행복의 세기'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의 '글로벌
2000' 영국의 '2000년의 영국', 노르웨이의 '노르웨이 2000'
등 각국이 벌써 수십년전부터 국가적으로 준비해온 미래(21세
기)전망들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같이 21세기를 행복하게 내다본
다. 단지 전제조건은 문화적인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전 지구적인 인류의 화합, 협조. 무엇보다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인간들이 전 지구적 시민의식을 갖고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어울
림, 지구 문화를 형성하는 단계를 그 완성기로 잡고 있다. 역사의
교훈이라는 공존의 지혜에다 한발 더 깊게 문화적인 어울림을 보
탬 때 비로소 새 차원의 행복의 세기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하는 제2
의 문명 시대 로 끝까지면서 이제 우리의 아주 가까운 미래로 바
라보게 됐다.

행복의 세기를 꿈꾸며 모든 인류에게 친근한 집
을 짓는 작업부터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99건축계를 돌아보며

Looking Back at 1999's World of Architecture

김득수/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Deuk-Soo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갑자기 주변이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한다. Y2K 비상이니, 새천년 준비니 하면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평소 연말연시 같은 것에 무심하던 사람까지 마음이 부산해진다. 옆에서 떠든다고 함께 돌며 지내면 예년처럼 또 아쉬움 속에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되고 말 것 같아 잠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 즉 건축과 건축계의 올 한해를 조용히 되새겨본다.

1999년 건축계는 시작부터 흥분 속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1999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하자 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아, 건축이 문화였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고, 여기저기 관련 행사에 불려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다보니 어느새 건축문화의 해도 그 꼴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건축문화의 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의 해'라고 하는 지정 자체가 자칫 전시성, 일과성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아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것을 감지덕지하며 우리 모두는 혹시나 건축문화의 해에 건축과 건축인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며 온근히 기대를 했었다.

이윽고 건축문화의 해 광파르는 울렸고 보무도 당당하게 그 첫발을 시작되었다. 조직위원회가 결성되고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건축인들이 조직위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개인적인 문제로 조직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세우고 사태를 수습하느라 또 몇 개월..., 시작부터 빼먹거리던 건축문화의 해는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저물어 간다.

건축문화의 해와 관련해서 뿐만아니라 생각해보면 올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일들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는 것도 뜻있는 일일 것 같다.

우선 올해 연초는 어느 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던 것 같다. 지난해 말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 조직 재편성으로 인해 다소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조직, 어느 집단이든지 혼란과 생존경쟁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나온 지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것처럼 어려운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수의 조직들이 군살을 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많은 이들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준 덕택이었으리라 믿는다.

또 올해는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해다. 연초부터 건축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훨씬 용이해졌다. 여러모로 불합리하던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 체계를 세우고 정비한다는 행정 당국의 강한 의지에 따라 그동안 어지러웠던 법 조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뉴스였다.

얼마 전 공공기관이 발주한 탄키방식 대형공사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대학 교수들이 심사과정에서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과연 건축을 배우는 후학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될지 걱정이 앞선다. 심사위원이라면 당연히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어떠한 외압이나 공세에 휘말림이 없이 공정경쟁의 심판관으로서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은 학문이 깊은 교수도 중요하지만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예술감각과 기술이 뛰어난 건축사 등 전문가로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하며, 국가공인 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

한편 1999년 건축관련 제도의 개선 중 가장 커다란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 시행'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에 대해 처음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했지만,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든 지금 매스컴들은 위법건축과 각종 건축부조리 차단에 지대한 공로자로 이 제도를 들고있어 이의 성공적인 시행을 알리고 있다. 서울시건축사회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축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축비리 생산자'에서 '건축비리 및 부조리 감시자'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건축사에 대한 이미지 전환은 물론 이번 기획에 불법건축물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건축사·시공업체·건축주 모두가 각성하고 법을 지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올해 건축계에는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여러 가지 크고작은 행사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행사라면 지난 9

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카시아 포럼'이었다. 이 행사를 유치한 우리로서는 우리 나라 건축계가 아시아 건축의 한 가운데 서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 건축 속의 한국 건축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진 셈이다. 건축인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긴 했지만, 아카시아 포럼 개최는 우리 나라 건축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준 행사임에 틀림없다.

올해 건축관련 행사중 또 하나의 커다란 행사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린 '99한국건축문화엑스포'였다. 국내 최초·최대를 자랑하는 이 행사는 이제까지 있어왔던 건축관련 전시 행사들 보다 그 규모나 짜임새 면에서 월등하게 나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제 건축관련 행사들도 우리 건축인들의 집안 잔치가 아닌 범국민적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교훈을 준 행사였다는 점에서 기억할 만하다.

끝으로 1999년 최대 이슈로는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아닐까 싶다.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지난달 열린 이 공청회에서는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돼 건축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건축교육을 국제 기준에 따라 5년제로 바꾸고, 인턴 3년을 거쳐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며, 건축사 면허와 등록자격 개념의 정립, 그리고 건축사의 계속교육 등 국제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을 것이 예고돼 이에 대한 건축사 개개인의 준비와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처럼 올 한해 우리 건축계는 그 어느해 보다도 다양한 변화를 체험했다. 갑자기 어려워진 국가 경제상황에 따른 예기치 못한 환경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동안 듣도보도 못한 상황들을 우리 건축인들은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어렵고 힘든 이 같은 상황은 언제 어느 때라도 다시 재현될 수 있으며, 그 때 우리의 모습은 적어도 지금과는 달라져 있어야 함을. 급작스럽게 닥친 곤란 앞에 허둥지둥 갈팡질팡했던 지난해의 우리가 아닌 좀 더 외연하고 당당하게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해의 끝을 향하고 있는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 본 '기고'란의 내용은 본 협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tructural Problems in Design Modification System and Their Solution

이석목/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by Lee Seok-Mook

문제 제기

설계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시공 도중에 발생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원인의 상당부분(감사원 조사 결과 부실공사의 60% 정도)이 설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설계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설계변경 의의

설계변경제도는 설계도서(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 설명서)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설계 변경은 ① 계약 당시 제공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등이 있을 때, ② 공사 현장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 ③ 새로운 공법의 적용이 필요할 때, ④ 기타 발주자가 공사를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에 가능하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그리고 시공자는 설계변경 조치 없이 설계와 다른 내용의 시공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해당 사항 발견 즉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 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설계 변경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동 조건 제19조의 2). 또한, 설계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공사 금액 및 기간에 관한 사항도 함께 신청하게 되어 있다.

설계변경 실태

국내 설계변경의 원인, 빈도 및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설계변경 실태는, 김홍일 1998, 정책자료집:공공공사의 설계변경 원인 및 개선대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췌한 것임.) 우선 설계변경 신청자 내역을 보면, 발주자인 정부 측의 지시에 의한 경우가 61%, 설계 부실에 의한 경우가 31%, 시공사 요청에 의한 경우가 6%, 그리고 감리자 요청에 의한 경우가 2%이다. 설계 부실에 의하여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원인은 설계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① 수량 내역서 누락과 현장 여건 불일치, ② 수량 계산 착오 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개 공사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빈도는 조사 대상 총 공사(396개 공사)의 32.6%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67.4%의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는 공사의 경우, 평균 1.2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계 변경 1회당 평균 3.9개의 사항이 설계변경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은 그 본래의 목적인 설계상의 문제(설계 부실 등)를 위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26.9%), 다른 목적(공사비 보전 및 발주자와 감리자의 부담 요구)을 위하여도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정당한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도 발주자는 설계변경 책임에 대한 두려움(39.1%), 예산부족(38.1%)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하지 않고 있다(그림 2 참조). 이 경우 설계변경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정에서 추가로 처리하거나(28%) 혹은 부실시공 조치(25%)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외국의 사례

국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조치로 미국에는 시공변경지시(Change Order), FIDIC 계약서에는 변경지시(Variation)가 있다.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수행을 하려면, 국내에서는 실계를 변경한 다음에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시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FIDIC 계약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하기보다는 설계도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다는 개별적인 사실 확인 행위와 허가로서, 시공변경지시(Change Order) 혹은 변경(Variation) 지시가 이루어진다. 설계변경은 설계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FAR 36.609-2). 미국의 시공변경지시(Change Order)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시공변경지시(Change Order)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는 없음.

- 시공변경지시(Change order)의 구체적 내용은 설계서와 다른 시공을 지시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계도서에는 명시될 수 없는 사안(따라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도 변경지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의 보상을 하고 있음.

-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시공변경지시(Change Order)를 받고 실시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Constructive Change라고 하여 사후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음.

-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것은 시공변경지시(Change Order)와 동시에 변경 계약액을 동시에 확인하지만, 금액 변경 내용이 복잡하고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변경지시를 내린 후에 사후에 정산하여 요청할 수 있음.

- 시공변경 내용이 \$10,000이상인 경우 시공자는 그 지출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FAR 3.203 & 52.2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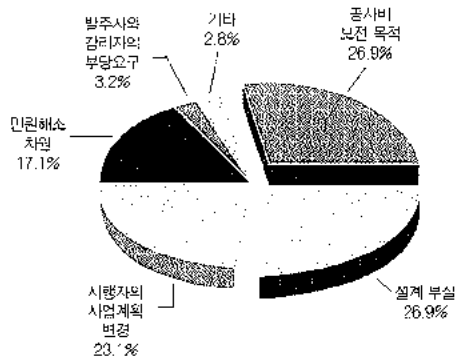
국내 설계변경과 외국의 시공변경지시(Change/Variation)는 <표 1>과 같이 접근방법, 대상, 절차, 관리상에 차이가 있다. 특히 <접근방법상의 차이>는 실제 운영상 외국과 많은 차이가 있게 하는 원인으로서 국내 설계기능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설계변경제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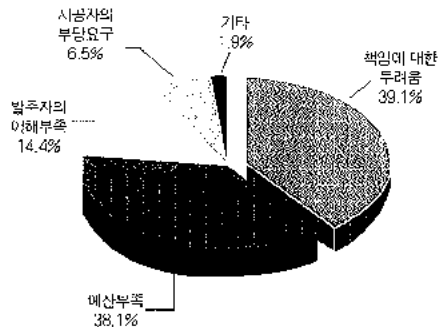
국내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무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국내 설계변경은 설계도서에 명시되거나 될 수 있는 것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대상사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추가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불명확하다. 둘째, 설계변경이 <先 시공, 後 설계변경>체 제밖에 운영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설계변경 비용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경미한 일로 매 건마다 전체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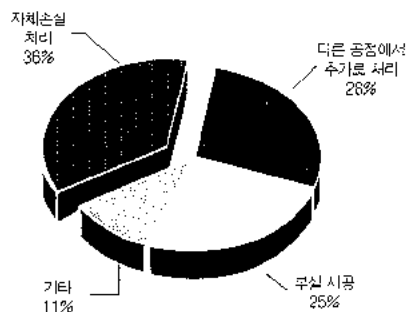
<그림 1> 설계변경 사유



<그림 2> 설계변경 불승인 사유



<그림 3> 설계변경 불승인 부분에 대한 처리 현황



〈先 시공, 後 설계변경〉 체제에서는 그것이 비록 시공 감독자나 감리자 묵인 하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공자는 일단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실제 설계변경이 여러 개의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정 사안 설계변경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다른 사안 처리내용과 형평성에 있어서 이를 문제삼지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시공자가 원상으로 돌아가서 설계변경의 완전한 반영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에 대한 소명(疎明) 자료도 불충분하다. 이러한 것들은 발주자와 시공자의 관계를 상하(上下)의 관계를 유도하여, 시공자가 비용보상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 셋째, 설계변경 허가자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개념적으로 설계변경을 당초 작성한 설계의 오류나 모호한 점을 시정하는 과정쯤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허가자가 지켜야 할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있는 면이 있다.

결론

설계변경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설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발주자와 시공자 관계를 계약관계인 수평관계를 주증관

계인 상하관계로 만든다. 상하관계는 다시 부조리한 관계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 정부 사정당국은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 자체를 감사하고 가능한 한 설계변경을 억제시키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부실 설계변경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설계변경이 가지는 계약변경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는 부실공사가 드러나면 일괄적으로 부실설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부실시공 원인과 관련하여 설계문제를 거론할 때에는 그것이 부실 설계에 있는지 아니면 부실 설계변경에 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만 부실시공의 근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부실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설계변경제도가 외국과 같이 시공변경지시(Change order/Variation)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첫째, 설계 도서상의 변경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도 시정 조치 및 추가 공사비 반영이 가능하다. 둘째, 설계 변경 대상이 개별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문서 절차를 가지고 처리될 수 있다. 셋째, 설계변경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올바른 계약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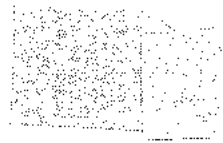
〈표 1〉 국내 설계변경제도와 선진국과의 차이

	한 국(설계변경)	외 국(Change Order/Variation)
접근방법	· 설계는 원칙적으로 완벽하여야 한다. 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시공도중에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가 이것을 예견하지 못한 오류로 인식하여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시공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사안의 발생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인정하여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내릴 뿐이고 설계도서의 변경을 하지 않고 있음.
대상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변경이 어려움.	·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가능
가능 절차	· 설계변경 절차규정의 불명료 · 설계변경 신청시 공사비 증액도 함께 신청하여야 함. · 변경대상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밖에 없음(공사 당 1~2 회)	· 세분화된 절차규정의 존재 · 공사비 증액문제는 추후에 협의 및 결정 가능 · 처리의 개별성 및 신속성 · 공사 건 당 보통 50건 이상
관리	· 설계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실제 운송상 계약위반 사례 발생 ·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는 당초 설계를 보완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설계변경을 제대로 못해 주더라도 그로인한 결과의 책임은 설계자에게 귀착한다는 입장	· 설계변경 여부의 책임은 발주자(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

PPC회의 참관기

Report of Professional Practise Commission Meeting

이근창/본 협회 국제위원장
by Lee Geun-Chang



이 글은 제 8차 국제건축사연맹(UIA)산하 Professional Practise Commission Meeting(전문 용역업 위원회)이 체코공화국 수도 프라하 Martinicky Palace(프라하성내)에서 지난 1999년 10월 8, 9일 양일간에 걸쳐 26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가협회에서 조영종씨가, 본 협회에서는 이인호 국제위원과 필자가 참석하여 회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필자주)

금번 8차 회의는 1998년 12월 워싱턴 회의시 보완 수정되고, 올해 2월 일본 나고야 이사회를 거쳐 제 10차 UIA 총회에서 채택된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UIA 건축 실무에 관한 국제표준 권고 협정)를 근거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임을 뒤늦게야 알 수 있었다. 이미 각 분과별 Topic과 전문실무위원회는 작년 워싱턴 회의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전문실무위원회에서는 주제별 내용을 연구, 조사하여 초안이 제출되었다. 전반적인 회의 순서는 주제별로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회의는 위원장인 미국 쉐러(Scheeler)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토의 안건의 검토, 북경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 협정내용의 세부지침 사항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회의 안건에 Publication policy와 WTO 활동 상황을 첨가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 장소 유치를 위해 일본이 참가신청 했음을 통보했다.

2. 1998년 12월 워싱턴(Washington D.C) 회의록이 추인되었으며 본 회의록은 1999년 2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수정없이 통과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 주요내용은 :

- 전문용역 정책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전문 실무위원회장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 본 위원회 비서는 북경대회에 제출할 서류를 통합 작성한다.

- 자문위원회에서는 UIA 회원국의 답변 내용과 건의사항을 검토한다.

- 자문위원회는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한다.

- 전문실무 위원회와 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다음의 부가적인 지침안을 작성한다.

① 건축 용역업의 업역 및 실무 형태 : Edward D. Silver (싱가폴)

② 주재국내에서의 실무 : James Scheeler (미국)

③ 지적 소유권 및 Copyright : Tillman Prinz (독일)

④ 전문협회의 역할 : Herve Nourissat (프랑스)

3. 1999~2000년의 PPC 운영 절차에 대한 UIA 회장의 서면 내용이 통보 되었으며, 현재 WTO로부터 위탁받아 진행되고 있는 협정안 작성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면서 최근 TWO로부터 입수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회계사에 관한 협정이 '98. 10월에 통과되었으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협정안도 다음 GATS협상 회기에 제출되어야 하고 일단 GATS에서 통과되면 GATS에 서명한 국가들은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회계사 관련 협정서를 사용하여 타분야 전문업에 적용하려는 추세이나 건축설계용역 부분은 현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각국의 정부에 현 진행상황이 정확히 전달되고, 2000년 말까지는 각국 정부의 입장이 WTO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권고했다. 이처럼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결과물이 각국의 건축관련 협회를 통하여 정부에 전달되고 각국의 입장이 정리되어 무역장벽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UIA의 최종 목표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PPC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1999년 말까지 각 분야를 담당한 전문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고, 2000년에는 각국의 정부를 통하여 WTO에 입장을 표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교육과 실무와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으로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으며, UIA PPC의 의견을 각 지역 교육 담당 실무위원(한국이 속해 있는 4지역은 오스트리아의 Mrs. Cox)이 통합 정리하여 UNESCO 교육위원회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서로 상충되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은 PPC 자문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전자

투표를 통해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북경에서 승인된 권고 협정은 진행방법과 골격이 승인된 것이고, 각국의 독특한 정책과 입지에 따라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를 바란다고 했다.

5. 건축사가 되기 위한 건축 교육의 정의와 내용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나 타 국가들은 혼선을 빚고 있고 너무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상호 인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본 문제는 고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에 관련하여 2000년 7월까지의 UNESCO에서 초안이 작성되어 11월중에 서로의 합의안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문단(Joint panel board)의 구성은 기존의 5개 지역 교육관련 대표와 PPC의 실무위원단(Drafting panel)이 연합하고 PPC의 비서(General secretary)를 포함한 10~12명으로 구성하면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고문단의 구성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쳐 회장단에서 재구성한 후 올 11월중에 각국에 통보하여 주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적합 여부를 위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

통보될 서류는 기본틀(Basic frame work)에 대한 사항과 정부에 보낼 내용을 UIA의 명으로 보낼 것이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주관 부서 이름과 내용을 발신자에게 보내주면 답변해 주기로 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축사는 왜 교육이 필요한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제도 인정과 관련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재정을 포함) 사회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기준의 평가를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하는가?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인식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단어의 선택과 번역이 정확히 되어야 하고, 서로 Over lapping 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명료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소수의견으로는 국제형건축사와 국내형건축사를 분리하여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며, 각국의 주관부서(Lead body)가 누구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 수행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 교환을하기로 하였다.

6. 1999년 9월 24일 EU 15개국이 참여한 프랑스 파리회의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럽시민의 기본권리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 암스텔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154.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국의 고유한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

- 건축주와 건축사는 공익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 공공개발인 경우에는 문화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중앙정부의 건축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 건축교육은 관련 전문업에 관련된 과목 뿐 아니라 공공이익에 대한 교양 과목도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 개발의 목적에 환경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시 민주화의 관점에서 오늘날 다양하고 다(多) 문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건설된 환경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도시와 공간개발의 수준을 결정한다.

7. 지적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으며, 소유권을 설계자 개인 또는 회사, 단체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창조와 복사를 건축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 어떠한 결론 없이 여러 예시를 들어가며 난상 토론되었으나 결국 선진국에서 개발된 제품과 상세, 시방서 등에 지적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사용·남용 내지는 로열티를 요구하게 하여 세계시장을 이면에서 잠식하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독일의 Tillman Prinz 법무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초안 내용을 근거로 이견이 있으면 제출하기로 하였다.

8. 주재국에서의 실무정책이 논의되었으며, 그 내용중 아프리카를 비롯한 일부국가에서는 건축사 등록제도 자체가 없음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고려되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이 요구되었다. 특히 이번 PPC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과 캐나다를 비롯한 UIA 비회원국의 의견도 존중되어 수용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Title protection과 Practice protection이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며 서로의 인정 범위를 규정하기로 하였다. 본 규정은 PPC 의장인 미국 James Scheeler 교수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영역의 범위(Scope of practice), 영역의 형태(Form of practice)에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Edward D. Silver가 작성하여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을 검토하여 각 국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10. UIA 협약과 지침서의 관련 정부 또는 관심있는 기관과의 대화 Channel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

을 프랑스 Herve Nourissat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내용을 검토하여 E-mail 주소 ACE.CAE@SKYNET.BE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11. 건축관련 협회의 구성을 정관을 비롯하여 제반 사항을 제출기로 하였고, 각국의 건축 실무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배부된 양식에 따라 제출기로 하였다.

12. 차기회의 장소유치를 위해 이집트, 일본, 코스타리카가 경합을 벌였으며, 투표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이집트 카이로를 2000년11월 회의 개최지로 결정하였다.

13. 기타 사항으로 설계비 산정 기준과 입찰 방법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Dr. Albakri의 보고가 있었으며, 체코 회장의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양일간에 걸친 정식회의를 마감하였고, 다음날 참석자를 위한 관광이 있었으나 비가 부슬부슬 내려 원만한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기 배부된 Agenda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이진회의에서 결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회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 차례에 걸쳐 각 분과별 전문실무팀이 구성되어 이미 서로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서 확실한 개념 정립이나 국내에서의 방향설정이 안된 내용으로 회의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소견으로는 PPC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한 국내에 전문인력을 3단체의 힘을 합쳐 확보하여 각 실무 분과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나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앞서 국내적으로 건축사 상호 인정에 관한 건축계의 일관된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본 건의 WTO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각 분과에서 작성된 초안들은(회원협약인 건축가협회와 상의 후) 번역하여 추후 관련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할 예정이다.

여러 통로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상호인정 문제는 현재 우리 건축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후배들에게 대한민국 건축사의 국제적인 위상을 정립하는데 많은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10)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Beaux-Arts와 합리주의 건축사상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건축학교들, 그리고 Beaux-Arts(보자르)식 건축개념과 이론은 고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유래를 이탈리아 Renaissance 시대의 문학과 예술로부터 찾을 수 있다. 17세기 최초의 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아카데미 루아얄 다쉬펙튀르: 왕립건축학교)를 지배하던 주된 건축 개념은 'bonne architecture(본느 아르쉬펙튀르: 좋은 건축)'이었다. 이 개념은 당시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겐 일견 막연하고 피상적이며 정의하기 어렵게 보인다. '좋은 건축'이란 확고히 고정된 취미(趣味 - 褊: goѴ:ut; 英 taste; 西: gusto 에 해당)의 원칙에 기초하여 탄생한, 아름다운 형태의 건축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의 교육자들에 의하여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었다.

François Blondel은 1671년 12월 31일에 열린 Académie의 첫 회합에서 Académie는 건축이론을 확립시켜야 하며 이 이론에 기초하여 건축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1주 간격으로 속개된 2번째 및 3번째의 회의에서는 Blondel의 발기로 'bon goust(봉 구스트: 좋은 취미)'의 문제를 의논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회의는 'bon goust'를 구성하는 사물들의 진정한 법칙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을 논의한 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bon goust'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지식인들의 위대한 저작 및 작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종

* 본명 김환석

은 design'이란 실용적인 필요, 재료, 시간과 장소 또는 건축가 개인의 특수한 재능 등에 의해 색다르게 결정되는 어떤 목적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건 동일한 가치를 지나는 전칭명제인 'bon goust'에 기초하고 있다. Académie를 풍미한 'bon goust'의 개념은 고전주의의 이상주의 철학,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신 플라톤주의의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두 전통의 영향이 순수한 플라톤주의의 영향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주의는 진, 선, 미의 덕목을 가장 숭고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Platon에 의하면 특수한 사실 및 자연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이나 감각 등은 단지 보편적 이데아(idea)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데아 또는 보편성은 특수성보다 주장함과 아울러 보편적 원칙은 특수한 일 또는 사건 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원칙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상에 따르는 건축가 및 이론가들은 건축의 보편적 원칙이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건물 또는 그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모범으로부터 기초하여 만든 원칙들을 특수성의 것보다도 한층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따르는 아카데미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모범적 원칙들은 특수한 예들을 바탕으로 공식화되므로 특수한 예들을 신중히 연구하고 본받아야 할 모델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추상적 개념인 대칭(symetrie), 질서 또는 주법(ordre), 조화(harmonie), 비례(proportion) 등을 단순한 노동으로써 형성되는 건축, 또는 공예적인 건축물로부터 진정한 건축작품을 분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변별요소로서 생각하였다.

Plotinus(플로티누스: 204-270년경)로서 대변되는 신플라톤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 그리고 플라톤의 학파와는 다르게 - 예술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 사상은 진정한 예술작품이란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며, 감각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특수성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통일체임과 아울러 추상적인 미를 갖추고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신플라톤주의는 특수성이란 단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플라톤의 전통과 세계의 기본은 바로 이러한 특수성으로써 구성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상은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신과 동등하게 취급되던 진, 선, 미의 절대적 이데아로부터 유출되는 존재들로 이루어지는 연속사슬 중 최하부 기초부

분에 가깝기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이데아로부터 유출되는 존재들의 연속사슬 중 어떤 예술작품이 위치한 장소를 알기 위해서는 최상부로부터 최하부까지 내려가야 한다.

François Blondel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보편적 일치(consentement universel)는 보수적 성향의 학교들이 지나는 사상과 이론의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 후원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와 신플라톤적 사고를 건축 및 여타 예술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건축 및 예술분야에서의 '훌륭한 디자인'이란 아리스토텔레스적 질서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대칭, 조화, 비례 등을 디자인의 기본 도구개념으로 하고 특수한 예를 기본으로 하여 합리적인 공식을 만들어 공식화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해와 파악은 시각을 동원한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무리의 주장을 따르면 - 현대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비논리적으로 생각될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 최고의 위치를 기념비적인 건축에 할애하고 있다. 왕궁, 교회 등으로 대변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항구 불변한 영원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최하부의 건축물은 빈약한 항구성과 기념비성을 지니는 것들로 특징의 용도와 경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 그리고 국민 중 최하층 계급의 작품 및 주거 등이 차지하게 된다.

건축계 및 미술계에서는 제각기 적합한 사상을 채택하게 되어 크게 2 그룹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상의 보수성 및 혁신성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고대인, 선배 등의 의미가 담긴 les Anciens(레 장시앙), 진보주의자들은 현대인이란 의미의 les Modernes(레 모데르느)로 지칭하였다. 이 두 그룹은 기본적으로 르네상스를 통하여 소화되고 전래된 고대문화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였지만 각기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아카데미 내부에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아카데미에서 주류를 이룬 그룹은 Les Anciens이었고 그 이외의 군소그룹은 모두 les Modernes로 분류되었다. 후자들은 미의 원칙은 보편적인 것이므로 모든 시간과 장소에 동일하고 적합하다는 les Anciens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그 예로서 근대의 중요한 건축적 발전은 Palladio(팔라디오), Vignola(비올라) 등과 같이 고전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형성된 사실에 근거하여 건축은 멀리는 고대로부터, 그리고 가까이는 르네상스시대로부터 발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개념에 따르면 건축의 원칙이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부분적인 것이며 상대적인 문화의 산물인 것이다.

les Anciens에 반대하는 les Modernes 가운데 한 무리는 좋은 예술작품이란 예술가가 품고 있는 이데아와 일치하는 창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무리 즉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이데아를 소유하고 있는 창조적인 개인의 중요성을 비(非)플라톤적인 방식으로 강조하고 조명함으로 이데아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성기 르네상스시대의 직설적 고전주의에 반하여 형성된, 적어도 예술가의 개인적인 환상이나 공상의 표현을 장려하는 이탈리아의 매너리즘적 수법에서 발견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후에 이 원칙은 각 개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기독교의 교리, 원칙에 의하여 보강되어 바로크 건축과 미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바로크 역시 개인주의적 낭만주의에 의하여 대체된다.

les Modernes 가운데 극단적 성격을 지닌 또 다른 한 무리는 'bonne architecture' 이란 자연의 특수성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연의 특수성이란 구조재료 및 구조기술 등이 특성의 시간 및 장소에 적합한, 건물의 본원적 성질에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물론적 기능주의를 포함하게 된다. 이 무리는 les Anciens이 산봉하는 고전적 출처란 영원한 법칙과는 거리가 먼, 단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므로 과거의 업적을 초월하여 새로이 발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서 17세기 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왕립 건축 아카데미)의 les Modernes 가운데 지도적 인물이었던 Claude Perrault(클로드 페로)는 의사이자 건축가였으며 특히 공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의 실증주의적 과학에의 관심은 후에 les Modernes들이 자연을 관찰하여 법칙을 만들어낸 Newton을 본받으려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Perrault에 의하여 고무된 일단의 인물들은 Gothic 건축이 합리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옹호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19세기의 Viollet-le-Duc(비올레 르 뒤편)과 같은 프랑스의 구조적 합리주의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전통을 이루게 된다.

아카데미의 이론에서 Descartes 역시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방금 언급한 두 번째의 les Modernes의 시각과 아주 유사하다. 이 시각에 따르면 명증성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하고 있어서 신화적이고 신학적 규범이 되는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등은 모두 권위적인 것이고 본원적인 진실을 상실한 본받을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Descartes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 이데아이다. 이것은 신에 의하여 주입되어 모든 인간에게 공히 부여된 본유적인 이데아로부터 유래하는 일반개념이어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며 기하학의 옷을 입고 있다. 그의 판단도구는 바로 이성(理性)인데 아카데미 내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와 les Anciens들이 고수한 신플라톤주의를 혼합하여 하나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Descartes에 따르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은 기하학의 형태의 근원을 구성하고 있다. 최상의 단위체로서의 기하학적 형태는 예술의 목적이 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사상은 과거 대가들의 작품에 의하여 예증된 형식주의적인 미, 그리고 본원적인 취미(goust inné)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François Blondel은 les Anciens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었지만 루이 14세 말기의 주요한 건축가인 Claude Perrault 및 아카데미의 회원이었던 Jules-Hardouin Mansart(쥘 아르두앙 망사르)는 양 진영을 합성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합성의 경향을 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아카데미 르와얄 다쉬벡뒤편: 왕립 건축학교)의 주요 인물이자 확고한 학교의 전통을 수립한 Jacques-François Blondel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예술계를 지배하던 또 하나의 아카데미의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시학'에서 언급하는 자연의 '모방(limitation)' 이론이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자연이란 단순한 자연이 아닌 일반화된 자연으로서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우발적인 것보다는 상위(上位)의 것이며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것을 제거한, 전형적인 자연을 의미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la belle nature(라 벨르 나튀르: 아름다운 자연, 진실한 자연)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모방이란 언급한 대칭, 질서 (또는 주법), 조화, 비례 등 자연의 일반적 특성을 차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Vitruvius의 '건축 10서' 가운데에 반영되어 언급되고 있다. Académie의 제 6차 회합에서는 Vitruvius를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권위있는 건축가로 지명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고학의 발달과 함께 축적된 정확한 고고학적 지식은 맹목적으로 찬양되던 신화적인 고대의 권위를 허물기 시작하였으며 좀 더 근본적이고 순수한 양식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의 촉매제가 되었다.

프랑스의 아카데미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에 일치하는 것으로 고전시대 및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디자인 규범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자 개념과 연관시키고 있다. 즉 Louis 14세 시대의 건축가들은 고대 및 르네상스시대의 건축가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비례 속에서 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런 견해를 가장 잘 표현하던 인물로 François Blondel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건축미의 원인이 되는 으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비례(proportion)라고

생각하였으며 주범(柱範)이나 여타 건축요소들이 지녀야 할 이상적 비례를 연구하여 이론화하였다. 그에게 좋은 비례란 단순히 인습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자연의 법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과거의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이전의 모델을 모방하도록 권장하지는 않았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과거의 모방이란 전거를 마련하여 준 이는 바로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인 Horatius였다. 그는 Ars Poetica(아르스 포에티카: 詩作法)에서 과거를 본받고 모방하도록 권장하였다. 아마도 이 사상에 의하여 고쳐된 프랑스의 아카데미학 전통은 이전에 확립된 모델, 특히 고대 그리스 및 로마와 르네상스건축의 고전성을 따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건축사 전반에서 본다면, 적어도 18세기 후반에 이를 때까지 유럽에는 그리스건축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로마건축과 르네상스건축은 그리스건축보다도 우위에 있었다. 이처럼 로마와 르네상스건축을 편애하는 분위기하에서 왕립건축학교의 제1서기관이었던 Félibien(펠리비앙)이 그의 저서 'Principe de l'architecture (프랭시 드 라쉬펙튀르: 건축의 원칙)'를 통하여 Vitruvius와 Palladio를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교적 개인의 천재성이나 독창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지닌, 과거의 고전주의적 건축을 찬미하고 따르는 움직임은 이탈리아의 매너리즘시대에 시작되어 낭만주의시대에까지 이르렀다. 비록 왕립건축학교가 고전적 전통에 고착되어 있긴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시각 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선 디자인에 있어서 고전주의가 표방하는 일반규범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고대건물 중 하나만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다수의 건축을 모범으로 연구하여 그 중 최상의 요소들을 취하여 가장 정확한 취미를 확립하려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정확히 말하여,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플라톤적인 규칙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특정의 경우를 강조하는 것은 고전주의적인 정신에 속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낭만주의적 시각에 의지한다고 할 수 있다. 비평가 또는 이론가들이 이 시대를 휩쓴 고전건축 가운데 특정의 모델을 복사, 재현하던 움직임을 가리켜 고전주의적 낭만주의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의 아카데미주의적 건축은 고전주의의 규범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최상'을 구성하는 개념자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취미의 변화에 따라 변천하였다. 그 결과 아카데미주의의 건축가들은 고대 또는 르네상스의 고정된 권위로부터 자신들의 이론을 변별화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왕립건

축학교의 건축가들은 고대의 권위를 자주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은 Vitruvius나 Palladio 등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Vincezo Scamozzi (빈첸짜스 까모찌), Jacoppo Barozzi Vignola (자코프 바로찌 비놀라), Philibert de l'Orme (필리베르 드 로름), Jean Bullant (장 빌랑)과 같은 16세기 이탈리아 및 프랑스 건축가들을 평가하여 그 우수성에 따라 급수를 선정하고 목록을 만들었다. Blondel은 고대의 권위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후대의 건축가들이 고대 그리스 건축이론과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이론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일반적인 고전적 건축언어와 규칙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에 전염된 건축가들은 비록 로마의 건축을 추종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있어서 반드시 로마의 건축을 따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관점에 가장 적합한 것을 발견하여 새로이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의 고전주의적 건축가들이 로마의 건축이론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이 실재론 Palladio, Vignola, Scamozzi 등의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들이 이루어 놓은 고전주의에 관한 해석과 시각이었던 것이다. 비록 르네상스시대에 널리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아카데미에서 채용된 원칙들은 고대 로마의 건축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었지만 전형적인 로마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의 성기 르네상스시대에 건축가들이 품었던 의도는 단순히 로마의 건물을 복사, 모방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추출한 모범적인 요소와 규범들을 합성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건축가들은 이탈리아의 건축가들보다도 훨씬 더 르네상스시대의 저작물에 집착하여 한층 더 엄격한 이론을 만들었다. 하지만 Palladio나 Vignola와 같은 고전주의 취향의 건축가들만이 프랑스의 아카데미즘에 영향을 끼친 건축가, 이론가들은 아니었다. 비록 정도는 달하지만 Michelangelo를 위시한 매너리스트들과 바로크 건축가들 역시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Louvre의 재설계안을 만든 Bernini의 라이벌이었으며 Borromini가 도입한 소용돌이 장식, 부서진 박공, 벽감에 위치시킨 원주 등을 이상한 건축이라고 눈을 찌푸리며 헐뜯은 Blondel에 의하면 이런 모양의 바로크 건축들은 진실한 건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발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실한 마를 타락시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ondel은 Michelangelo가 설계한 성베드로 사원의 후면 파사드를 칭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소재 17세기의 바로크 건물들을 아주 훌륭한 건축의 본보기로서 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술적 이상 및 정치적 이상 때

문에 성기 르네상스시대에 풍미한 고전적 경향이 Richelieu(리슐리유), Mazarin(마자렌), Louis 14세 치하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고전적 경향은 바로크와 토착양식인 Mansart 지붕의 건축과 합성되어 특징적인 양식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바로크와 Palladio양식의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독창적인 프랑스의 양식을 만들게 되었다. 이 특징적인 프랑스의 양식은 Louis 14세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중앙정부가 모든 예술분야를 관할하여 감독하였기 때문에 관청건물 및 건축학교의 설계경기인 Grand Prix(그랑 프리)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보수적인 보자르식 건축교육의 내용을 지배하였다.

프랑스의 전통에는 극도로 엄정한 고전적 경향 또는 팔라디오적 건축을 바로크 및 낭만주의와 결합시키는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경향이 병존하고 있었다. les Anciens 및 les Modernes의 분쟁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켜켜이 되었으며 결국은 les Modernes의 승리로 끝난 1968년까지 지속되었다.

보수진영은 Académie 내에서 항상 지배적이어서 독단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미의 본질은 확고부동하며 자연스런 디자인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원불변의 법칙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진보와 진화론적인 발전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로지 주기적인 전진과 후퇴의 개념만이 그들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Francis Bacon의 영향은 모든 분야에 대대하여 진보의 개념이 널리 채용되기 시작하여 건축을 비롯한 예술의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의 과학의 수준은 과거의 것보다 더 나은 상태이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진보와 발전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좋은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Blondel은 엔지니어출신으로 수학을 존중하던 사람이어서 당시의 눈부신 수학분야의 업적과 발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학법칙을 건축에 응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몰스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건축에 실제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 것은 18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이 숭고한 덕목으로서 독창성이나 유용성보다도 합리적 방식의 구성(composition)방법, 즉 수학적 법칙, 정확히 말하여 기하학과 수학적 비례의 법칙에 근거하는 구성을 높이 사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것은 왕립건축학교가 설립될 당시는 Descartes의 철학사상 및 조화(harmonie)라는 미학적 기준이 예술과 건축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미 Blondel 및 Félibien에게서 이성을 중시하는 Descartes적

rldnsdf 찾을 수 있어서 Académie의 3차 회의에서는 이미 이성의 도움을 얻어 건축물의 각 부분이 올바르게 어울릴 때 아름다운 미와 정확한 비례를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Académie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태도는 예술을 대하는 귀족적 자세이다. 어느 정도는 Vitruvius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자세는 신플라톤리즘과 르네상스를 거쳐 귀족중심의 문화가 꽃피었던 Louis 14세 시대에까지 전달되었다. 당시의 일반적인 시각에 의하면, 그리고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Blondel이 이야기하였듯이, 건축의 미를 식별하고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서 오로지 지적 귀족층만이 이런 상류의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었다. Blondel은 숭고하고 존경스런 Louis 14세가 건축예술을 비천한 삽과 모르타르로의 작업으로부터 구출하였다고 칭송하였다. 그는 또한 Académie의 건축가들의 지위를 귀족과 왕을 고객을 상대하는 위치로까지 고양시켰다. 아마도 guild의 조합원이었던 집에서 태어나 직위를 받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정부 고위직에까지 이른 Mansart는 이같은 예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귀족주의적 태도는 건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건물마다 지위를 부여하여 신플라톤주의적인 존재의 연속사슬개념에 근거한 위계체계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귀족주의적 취향은 우선 왕실 및 귀족의 건축에 중점을 두었지만 그 영역을 확장하여 증권거래소, 시장, 도서관, 화폐주조소 등으로 좀 더 분화된 공공건물의 범주를 포함하게 되었다. 왕립건축 아카데미의 교수였던 Blondel이 그의 저서 'Cours d'architecture(꾸르 다쉬텍튀르: 건축강좌)'의 2권에서 건물의 유형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항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뒤로 공화정이 된 후의 Académie des Beaux-Arts(아카데미 데 보자르: 미술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분류가 가장 가치있는 문제로 취급되었다.

이처럼 숭고하고 품위있는 건축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이론에 근거한 자연의 개선(改善)이란 정신으로부터 유래한다. 회화나 조각분야에서조차도 자연을 글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회피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위계에 있어 최하부에 위치한 풍경화와 정물화를 그리기를 기피하였다. 아카데미의 예술가들은 자연주의자라기 보다는 인본주의자들이어서 자연을 다룰 때는 단지 인간에 의해 '구성'되고 이상화된 la belle nature - 비례란 바로 la belle nature로부터 유래한다고 아카데미주의자들은 믿었다 - 만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Blondel 및 Félibien 등의 건축가 및 이론가들이 이상적인 미를 보장하기 위하여 la belle nature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형식주의적인 구성(composition)

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la belle architecture(라 벨 아르쉬떼뛰르: 아름다운 건축 또는 진실한 건축) 또는 la bonne architecture의 원칙은 고전적인 전통건축 및 선형적인 이상에 기본하고 있어서 항구적이고 영구한 추상적 형태의 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아카데미적 시각에서 본다면 자연은 보편가치를 지니는 형식주의적 구성의 원칙에 따라 예술가가 재구성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런 지적 컨텍스트를 고려한다면 Grand Prix의 참가자들이 실제의 대지를 선택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여 임의로 설정한 대지 위에 디자인 원칙에 따라 자연을 재구성하고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Grand Prix에서는 Descartes가 주장하는 추상적 논리성, 통일성, 명확성을 갖춘 고전주의적 '구성'을 따르는 작품만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고전주의적 구성에 의한 건축은 태양 왕 Louis 14세 치하 절대왕정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하고 과시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다.

Académie는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보다도 고전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디자인 방법론으로 통일적 배치, 중앙집중화한 구성, 대칭성 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20세기초의 이론가 Julien Guadet(줄리앙 가이데)는 이 전통을 이어 받아 건축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고전건축과 대칭성을 들고 있다.

왕립 아카데미가 성립될 당시 대칭성과 비례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어 그 사용에 있어 혼동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대칭성(symétrie: 英 symmetry)과 비례(proportion)이란 단어는 그리스 어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생긴 혼란상이다. 고대 그리스의 개념, 그리고 고대 로마의 Vitruvius의 개념에 의하면 Symmetria란 현대의 언어가 정의하듯 양편에 동일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전체와 부분이 완전히 조화되어 어울리는 관계를 말하였다. 당연히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아는 지식인들에게는 - 비록 당시에 symétrie란 대칭의 의미로서 사회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 이와 같은 고전적 정의가 더 한층 당연한 것으로 비쳤다. Perrault가 번역하여 1673년에 출판한 Vitruvius의 '건축10서'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잘 반영되고 있다. Vitruvius의 원작은 단어 Symmetria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Perrault는 proportion(비례)로 번역하고 주석에서는 일상적 의미로는 대칭을 일컫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Blondel은 'Cours d'architecture'에서 Symmetria를 좌우대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게 좌우대칭이란 비례의 일종이며 구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가운데 으뜸가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아카데미스트들이 지상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질서(ordre)와 형식성(formalité)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성방법은 통일성, 대칭성 등과 같이 한정된 항목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통일성과 대칭성을 지니는 논리적 모델로서 로마시대의 욕장(浴場)이나 Pantheon(만신전) 등을 채택하곤 하였는데 Grand Prix의 디자인들은 일반적으로 욕장의 평면에서처럼 한 두개의 초점을 가진 단순 기하학적 형태로써 이루어진다. 흔히 보통 초점이 되는 공간은 Caracalla의 욕장이나 Constantinus의 바실리카에서의 같이 두 개의 축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된다. 실제 도면에 있어서 축이란 빈 공간을 가르는 단순한 선이 아닌, 그 중심선에 위치하는 중앙의 실(室)들로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축에 의지하는 축적 구성은 그 구성에 있어서 단순한 기하학적 명료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더욱 그 정당성을 뒷받침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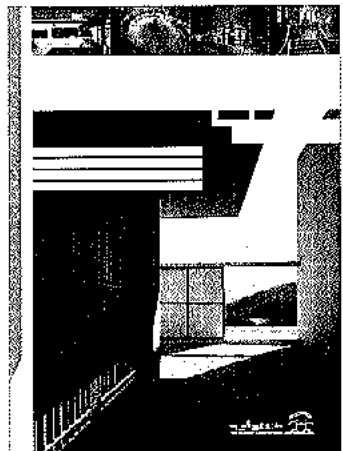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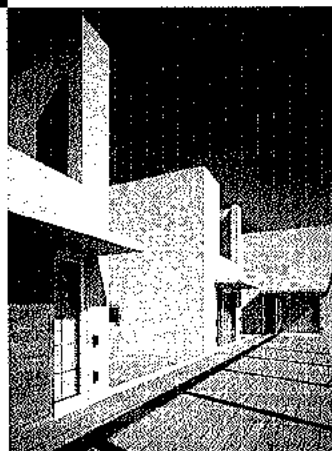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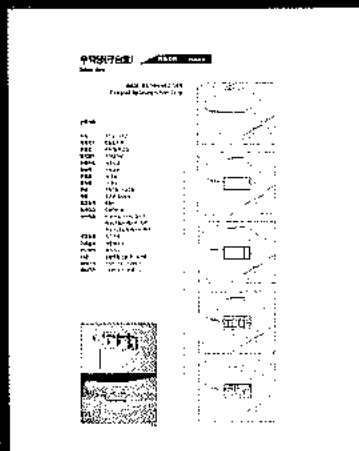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아카데미즘이 명료성과 가장 순수한 미학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사실주의적 회화의 기법이나 개인적 취향 등의 요소는 제거되고 관습적인 건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고전주의적 건축의 효과를 잘 재현하기 위해서 채택된 재료와 구축방법은 기념비성을 초대한 보장할 수 있는 것들만이 채택되었다. 육중한 석조건물의 기분을 내기 위하여 얇게 지른 석조 외장재로 외무를 치장하는 것, 주요 실과 홀(hall) 등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대칭축을 이루는 평면배치, 돔(dome) 또는 볼트(vault)를 지니는 단순한 기하학적 입면의 채움 등이 주요한 수법이었다. 프랑스의 아카데미 건축가들은 주로 조적식 구조의 건물형태에 건축언어를 한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추상적 구성이나 올바른 비례(proportion correcte)란 그 구조의 성격을 전혀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평면계획(plan correct)'은 언제나 재료의 성격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석조조건 벽돌조건, 외피에 석판을 대거나 석회석을 바르거나 벽돌로 치장을 하는 잡석조(雜石造)의 구조조건 어느 것에 상관없이 동일한 표면처리와 한결같은 고전주의적 요소로써 건축물이 구성되었다. 자연히 축조재료나 구축방법이 건축물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적 정신과는 완전히 대치된다. 토목공학이 합리주의자(rationalistes)로 불리우는 아카데미적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이러한 미학적 모순의 굴레를 벗게 되었던 것이다.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
할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5컷 내외(본협회 촬영가능), 설계개요, 설계소묘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회원동정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회원 및 회원사를 소개할 만한 신변잡기,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20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집팀
(우편번호 137-070)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지역건축탐방 15 - 신도시(상)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Newtowns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부터 건설되어 왔다.

행정기관의 분산정책과 함께 개발된 과천 신도시와,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하여 급조된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건설업계는 한동안 호황과 함께 자재, 인력 부족이라는 몸살을 앓기도 하였다. 고층 고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도시는 주택 보급률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주거의 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빠른 기간에 거대한 신도시 건설은 세계 도시사에 신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배경이나 건설과정의 어려움을 잊고 이제는 위성도시로 자리잡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신도시의 주민은 수도권 주변에서 퍼들다 모여들었고, 서울을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도시설계 기법으로 설계된 낯선 도시에서 만나 살아가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급변하는 우리 현실에서 신도시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도시, 그곳에도 지역성은 있는가? 각 지역별로 새롭게 형성된 신 문화지형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도시건축문화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은 건설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또 계속 팽창되어 가는 신도시에 던져질 화두이다.

지역건축탐방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 이제 신도시와 북한 편으로 마감을 하게되었다. 이 연재를 계기로 지역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었고, 또 지역건축에 관심이 있었던 건축사(가)나 학자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기도 하였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꾸준한 관심에서 출발되고 그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건축사(가)들의 의식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또한 지역건축의 활성화는 지역문화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우리문화의 원천이 될 것이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되어야할 영원한 과제이다. 신도시 편은 이번호에 상편을 실고, 하편은 2000년 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정근(인하대건축공학과 교수)/편집디렉터>

〈상편〉	신도시 건설의 배경과 도시계획적 의의 / 민범식(국토개발원 연구위원)	62
	과천 역사와 삶이 담긴 지역만들기 / 이영수(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67
	평촌 역사환경에 따라서 / 최승원(양가주망건축)	71
	중동 주변과 지역성 / 손기찬(동이건축)	74
〈하편〉	신도시 문화지형 /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분당 건축과 지역성 / 이영(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일산 신도시 산책 /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좌담 신도시 지역성, 정체성, 문화지형, 신도시와 건축	

2003년
2월호 예정

신도시건설의 배경과 도시계획적 의의

The Story Behind New Town Projects and Their Significance in Urban Planning

민법식 /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by Min Beom-Sik

신도시 건설의 시대적 배경과 신도시 특성

신도시 개발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의 신도시 역사는 과거 신라의 도읍 경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려조의 송도, 조선조의 한성 등 주로 나라의 정체를 새로이 세우면서 이를 증거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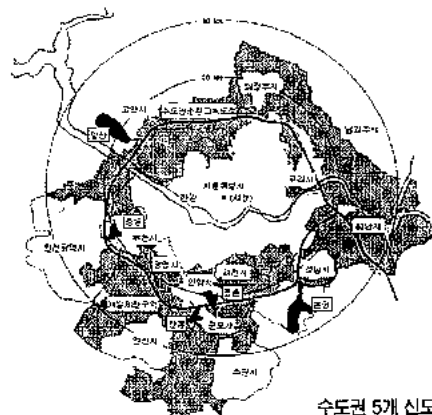
현대에 들어와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울산 신도시로부터 최근의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 신도시들은 대체로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하나는 국토 및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된 신도시들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신도시들이다. 우선 국토·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는 60~70년대 공업화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건설하였던 산업기지의 배후도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석유화학단

지와 함께 조성된 울산산업도시(1962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건설된 포항(1968), 구미(1973), 창원·여천(1977), 광양(1982)과 같은 신도시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

서울 및 수도권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로는 1960년대 후반 서울시가 불법주택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조성한 광주주택단지를 시작으로 서울의 행정기능 분산을 목적으로 정부종합청사 기능을 일부 이전하여 건설한 과천(1979), 대전 둔산(1988), 계룡(1989) 신도시가 있다.

최근에 건설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도 이 범주의 신도시로서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이다.



수도권 5개 신도시 위치도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배경

수도권의 5개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직접적 배경에는 서울올림픽 이후 주택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1987년 12월말 당시 공식 통계에 의한 서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개요

구 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개발목적 및 특성	-수도권의 중심업무상업지역 -자족적인 도시	-예술·문화시설이 밀집된 전원도시 -수도권 서부중심도시 -남북통일 전진기지	-안양시의 신중심 업무지역	-군포시의 신중심업무지역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전원도시	-부천시의 신중심업무지역 -서울~인천간 공업 지역 중심의 근교주거지
위 치	서울 동남쪽 25km 경기도 성남시	서울 북서쪽 20km 경기도 고양시	서울 남쪽 20km 경기도 안양시	서울 남쪽 25km 경기도 군포시	서울 서쪽 20km 경기도 부천시
면 적	1,964ha (594만평)	1,574ha (476만평)	510.6ha (154만평)	420.3ha (127만평)	545.2ha (165만평)
수용인구 (수용세대)	390,320인 (97,580세대)	276,000인 (69,000세대)	168,188인 (42,047세대)	165,588인 (41,397세대)	170,000인 (42,500세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부천시
사업기간	'89.8~'96.12	'90.3~'95.12	'89.8~'94.12	'89.8~'94.12	'90.2~'94.12

(출처: 한국토지공사,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물의 주택보급률은 50.6%에 불과한 실정이었고, 가구수는 연간 3.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택증가율을 압도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86~'88년간 연속 12%에 이르는 경제성장률과 약 286억불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투기는 서울 강남지역을 전진지로 하여 주택가격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전세가 파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정치적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게 되었다.

서울시는 목동과 상계동 개발 이후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동토지가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적극적 방안으로 1989년 4월 27일 분당과 일산에 인구 42만명과 30만명을 각각 수용하는 신도시개발을 발표했으며, 이미 추진되고 있던 평촌, 중동, 산본 등 3개 대규모 주택단지와 함께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다. 5개 신도시는 서울시 외곽의 대규모 개발가능지 중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20~25km권에서 기존 도시기반시설과 연계가 용이하고 지가가 저렴한 지역이라는 입지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분당, 일산신도시는 자족적인 도시형성이 가능한 450~600만평 규모로 각각 서울 동남부 및 서북부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였고,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는 기존 도시 보완형 신도시로서 120~170만평 규모로 개발하였다.

수도권 신도시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신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

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및 기타 공공기관의 광범한 참여가 있었다.

당시 건설부 내에는 1989년 7월 5개 부문의 담당관으로 구성된 '신도시건설기획실'이 설치되었는데, 1994년 5월 해체에 이르기까지 신도시 개발과 관련계획의 총괄, 관계기관과의 업무조정, 신도시개발사업의 지휘 등 사업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여 포괄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용지취득에서부터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내외의 기반시설을 포함한 택지개발 및 공급, 주민입주대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주체로서 역할하였다.

경기도와 해당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조 및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부천시의 경우는 중동신도시 일부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상기 주체들 외에도 철도청,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이 주로 지구 내외 기반시설의 설치에 참여하였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택지 선분양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택지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5개 신도시는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어 전면매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자금력과 경험 및 인력이 풍부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됨으로써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었다.

신도시별 토지이용계획 비교

(단위: 천 m²)

구 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비 고
계	19,639.0(100.0)	15,735.7(100.0)	5,105.9(100.0)	4,203.2(100.0)	5,455.8(100.0)	
주택건설용지	16,350.2(32.3)	5,261.0(33.4)	1,931.4(37.8)	1,810.5(43.1)	1,876.8(34.4)	평촌 180%, 일산 168%, 평촌 200%
상업업무용지	1,639.8(8.3)	1,233.1(7.8)	247.1(4.8)	160.6(3.8)	568.1(10.4)	
공공시설용지	11,649.1(59.3)	9,241.6(58.7)	2,927.4(57.3)	2,232.1(53.1)	3,010.9(55.2)	
도로등 교통운송시설	4,036.5(20.6)	3,420.9(21.7)	1,247.4(24.5)	747.9(17.8)	1,412.2(25.9)	정류장, 주차장, 철도용지 등
공원녹지등 도시공간시설	4,219.0(21.5)	3,637.5(23.1)	776.6(14.0)	810.9(19.2)	708.0(13.0)	유원지, 광장, 공공공지, 하천 포함
유통공급시설	524.6(2.7)	741.6(4.7)	247.2(4.8)	34.3(0.9)	-	유통센터, 상하수도, 전기공급, 집단에너지, 쓰레기처리, 전선전화극 등
공 공 학 교	732.0(3.7)	583.5(3.7)	343.5(6.7)	327.1(7.8)	416.0(7.6)	
기 타	355.7(1.7)	320.5(2.0)	161.2(3.1)	240.6(5.8)	179.7(3.3)	공용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운동장, 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159.0(0.8)	78.6(0.5)	40.3(0.8)	13.4(0.3)	20.9(0.4)	
하 천	1,529.81(7.8)	-	154.2(3.0)	-	-	
기타공공시설	93.5(0.5)	465.8(3.0)	21.8(0.4)	57.9(1.4)	274.2(5.0)	

주: 1) 신도시별 최종변경 승인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신도시별 토지이용분류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어 토지이용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

자료: 한국토지공사, 분당·일산·평촌신도시 개발시, 1997
대한주택공사, 산본신도시 개발시, 1997

도시계획 및 설계상 특징

수도권 5개 신도시는 계획 및 개발시기가 거의 같고, 개발주체와 계획기관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환경의 수준, 각종 지표, 도시공간구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부문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용지에 충실한 토지이용 배분

토지이용은 과거 어느 신도시보다 도시환경 수준의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용지를 많이 확보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리된 표에서도 보듯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비율을 보면 전체 면적의 60%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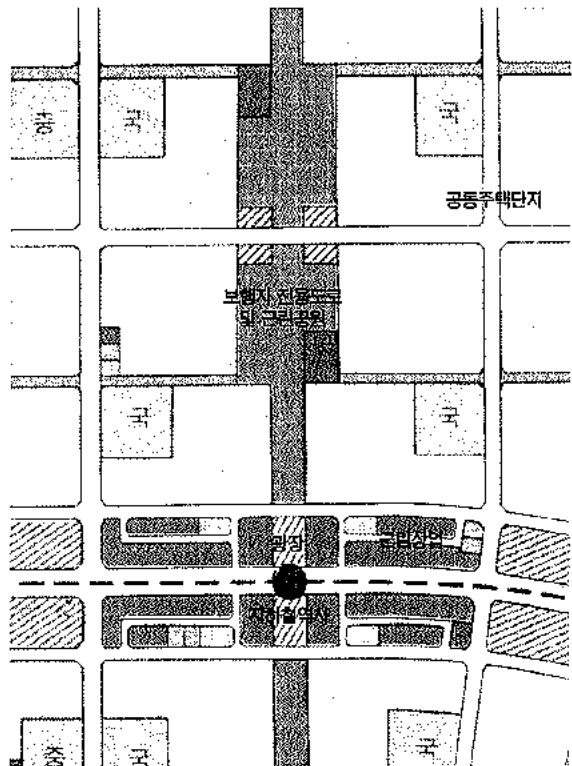
현재 공공시설 중 문화 및 체육시설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나머지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완비되어 주민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¹⁾

생산가능 도입을 위한 업무용지 배분

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 상 제약으로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제외한 공업용 토지이용은 계획될 수 없었다. 따라서 공업지역 비중이 3~5%정도 차지하고 있는 일반도시에 비해서 생산가능 도입에 불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대신에 업무서비스용지 배분을 강화하였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업무용지로 전체 도시면적의 3.7%를, 일산신도시도 외교단지, 출판단지, 종합전시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분당보다도 높은 5.0%의 토지를 업무용지로 할당하였다.

그러나 유치전략과 분양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많은 토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미분양 상업용지의 발생은



신도시는 역사를 중심으로 보행접근 및 환승이 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광장과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해 주거지로 연결하였다. 이 유형은 서울 상계신시가지에서 그 원형을 볼 수 있다.

서울시 기능분산에 의한 유인책의 미비,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위기 등 물적 계획 외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시행자 부담에 의한 광역간선도로 및 전철 건설

신도시는 수도권 전체 공간구조 및 교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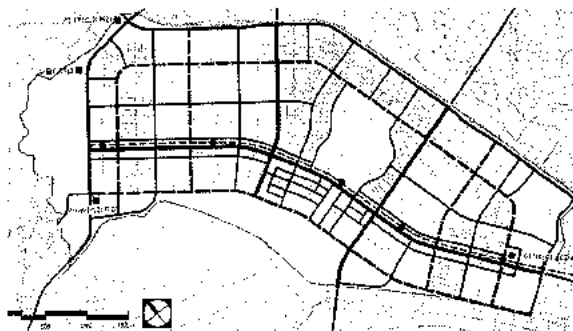
주 : 1) 한국토지공사, 수도권신도시 종합평가연구(1999), 119-134쪽

주변도로 확충현황

신도시명	도로유형	도로명	차선수	연장(km)
분당	도시고속도로 신설	27개노선	4~8	31.4
	국도 확장	43호선, 3호선	8	9.7
	지방도 확장	393호, 389호, 385호, 342호선	4~8	33.4
	시군도 확장·신설	37개노선	6~8	5.8
일산	도시고속도로확장·신설	17개노선(자유로·강변북로)	6~8	19.2
	지방도 확장·신설	310호, 398호, 310호선	4~8	26.2
	진입도로 신설	지방도 398호, 307호선, 시도 62호	6	4.7
평촌·산본	고속도로	17개노선	4	12.5
	국도 확장	47호, 1호선, 47호선	4~8	24.2
	지방도 확장	2개노선	4~6	12.4
	시도 및 기타도로	57개노선	4~6	32.6

주(사): 각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시행비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한 노선임

자료: 한국토지공사, 분당·일산·평촌신도시 개발사, 1997



신도시의 도로망은 격자패턴으로 영국 후크뉴타운의 오픈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따른 간선교통시설 계획을 동시에 마련하여 추진되었다.

5개 신도시는 모두 서울로부터 20~25km권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의 교통연계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는 도시고속화도로와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을 중점적으로 구축하였고 전철 역사를 중심으로 환승 체계가 원활하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광역간선시설 사업은 법령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나 신도시의 경우는 개발이익에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다만, 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입주보다 늦어져 일시적이나마 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개방형의 내부 가로망과 광로 위주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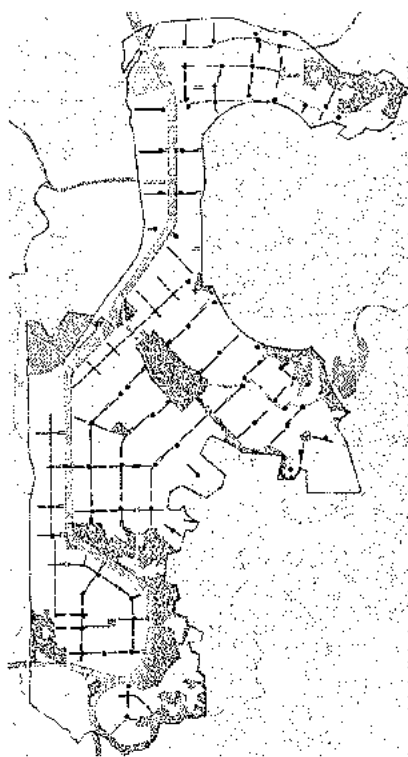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내부 가로망은 주간선, 보조간선, 집분산, 국지도로의 4단계로 위계적으로 구축하되, 개방형(open system)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해 격자형 가로망을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다.

도로 폭원은 25m이상의 대로 및 광로의 비중이 신도시별로 23.0%에서 41.3%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광로 위주의 도로망 구성은 생활권의 단절,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를 가져오는 단점과, 실제로 도시내부 통행발생량도 많지 않아 도로 폭원이 과다하게 계획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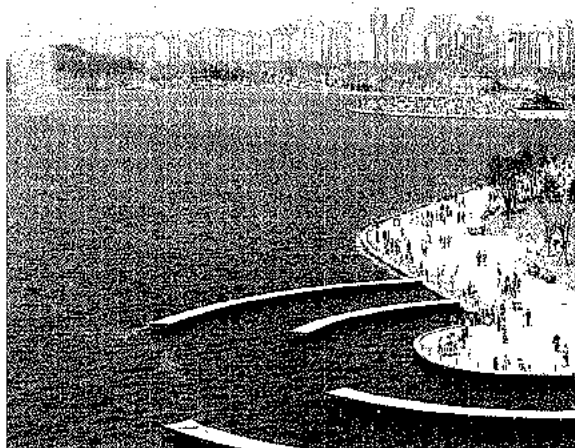
풍부한 공원녹지면적 배분과 공원녹지체계 구성

신도시는 토지이용에서 공원녹지면적을 많이 배분한 데다가, 도시중앙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신도시는 블록 내부에 폭원 4m ~ 30m에 이르는 다양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각종 공원을 연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권내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전철역과 연계시키고, 중심상업지역에 쇼핑몰을 조성한



공원녹지체계는 서울의 옥동신시가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데, 신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하였다.



일산의 호수공원과 같이 앞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것이 특징이다.

일산신도시의 30만평 호수공원을 비롯하여 분당신도시의 불곡산과 중앙공원을 잇는 폭70m, 길이 약 2Km의 생태통로를 조성한 것도 우리나라 도시계획 설계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 위주의 고밀도 주거단지

신도시의 주거지역은 대량주택공급을 위하여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로 계획되었고 움직률은 168%에서 206%정도였는데, 서울의 옥동신시가지보다는 높고 상계신시가지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전원풍 신도시 이미



아파트 등 배치 시 남동 및 남서 방향의 위요형 배치가 유도되도록 가구를 45도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분당신도시의 일부)

지와 비교되면서 용적률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나마 현재 서울시의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 그리고 준도시지역에 건설되는 고층주택의 민간아파트와 비교하면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어 용적률 저감문제는 사업자의 사업성과 관련되어 앞으로 도시개발의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한편, 아파트단지는 아파트의 위요형 배치유도를 위해 남향을 향해서 45도 방향으로 블록을 구획하였다는 설계상의 특징이 있다.

사회문화계획

분당, 평촌, 일산신도시의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대규모 건축비가 소요되는 도서관, 문화회관은 아직 계획한 물량대로 들어서지 않은 곳도 있으나 시의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하나 둘씩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신도시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맞추어 용지를 확보하였으나, 일부 신도시에서 보듯이 기입주한 주민의 반대 등도 있고, 시제정 확보 상 우선순위에 서 처지는 관계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신도시개발에 대한 수도권 정책상 의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개 신도시는 최근의 계획기준과 기법으로 계획되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발전된 점을 엿볼 수 있으나, 수도권 신도시가 태어난 것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었다.

따라서 개개 신도시의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주택정책 나아가서 수도권 정책의 측면에서 논란이 더 많았다.

신도시 건설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주택 및 토지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는 반면 과열된 건설시장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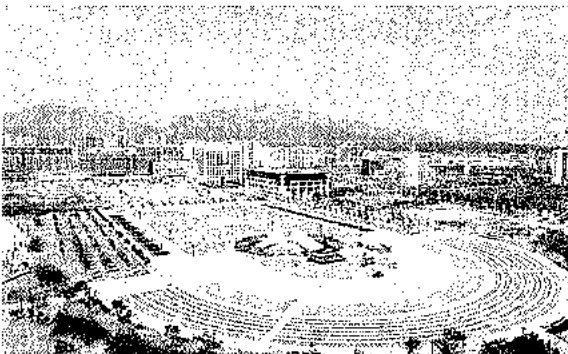
수도권정책 측면에서는 당초 수도권 외곽지역

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전입인구도 감소현상을 보여 이는 우려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대로 신도시인구 중 절반 이상인 53.0%가 서울에서 유입하여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도 한다. (1) 같은 책, 52-58쪽

수도권 외곽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주는 구직이나 전직을 전제로 해야하므로 주택자체의 건설로는 유인효과가 적었던 것이다.

그 외 부차적인 것으로,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에의 효과도 들 수 있다. 수도권 공간구조는 신도시 건설이전까지만 해도 경인1축(부천-인천방면)과 경부1축(수원-평택방면)에 인구산업이 집중되었지만, 신도시건설로 광역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활거점의 역할을 제공한 결과 경의축(고양-파주방면)과 경부2축(성남-용인방면)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개발축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한 시기에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 평가가 나왔고 이들 평가들을 다음 신도시개발 시 참고로 해야할 것이다.



평촌신도시의 다목적 중앙공원은 공연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진다



분당신도시는 지표발굴조사 결과 발견된 고인들을 중앙공원에 모아 정리하였다

역사와 삶이 담긴 지역만들기 Building a Place of History and Life

이영수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Young-Soo

과천 신도시의 일반현황

우리에게 과천은 신도시이면서도 다른 여타 신도시와는 사뭇 다른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인지되는 첫번째 이미지는 과천 제2종합청사로 인한 행정도시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원도시풍의 신도시일 것 같다.

과천시의 역사는 고려 태조때 파주군, 1896년에 과천군으로, 이후 과천면으로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갖춘 1986년에 과천시로 승격되었다. 과천 신도시 개발은 1978년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제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시작되었으며 주택공사의 공사일지를 보면 대부분의 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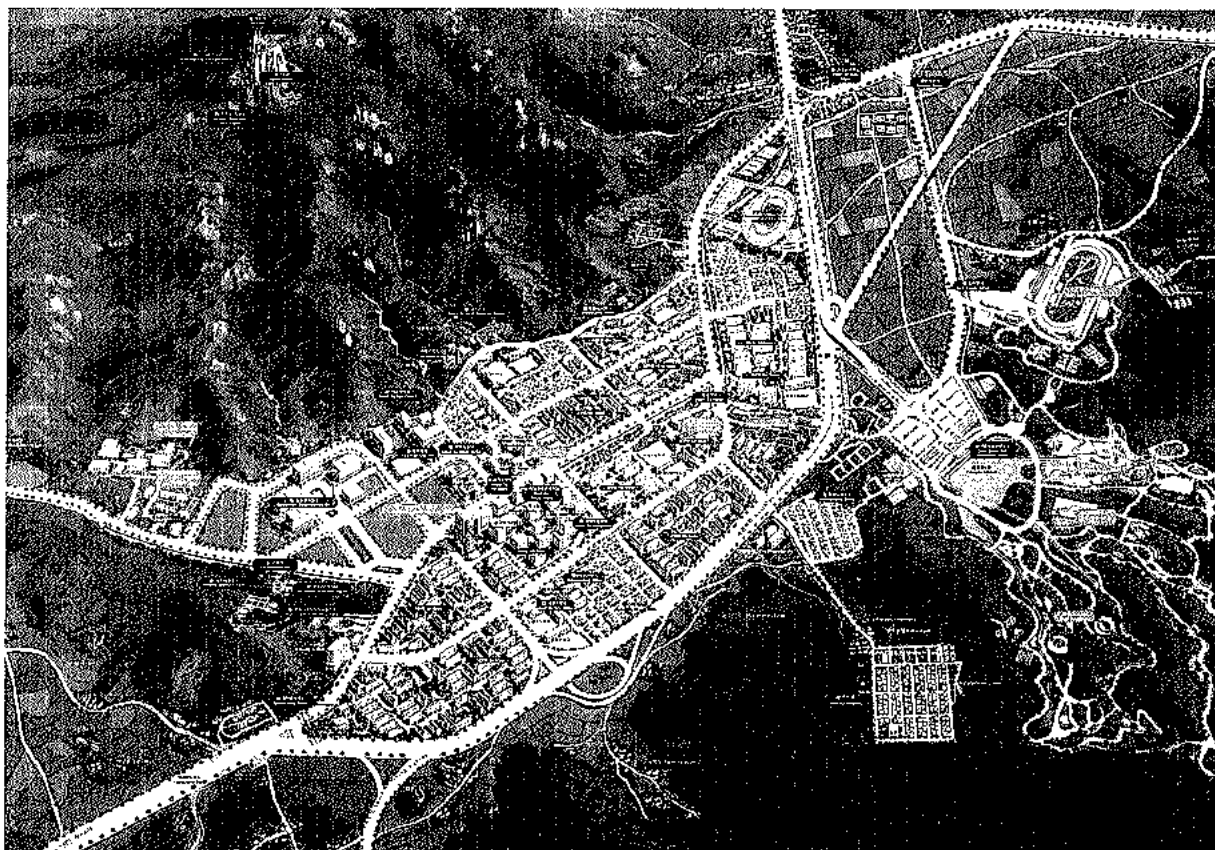
개발과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따른 많은 비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과천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규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80년 8월에 착수하여 84년 8월에 완료되었으며 건설호수는 약 14,000호, 수용인구 45,000명, 총계획면적 1,580,000m²에 건설 연면적 990,000m²로 모든 사업규모나 건설기간면에서 서울의 개포나 경기도 광명 철산자구의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현재의 모습은 정부 제2종합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1984년으로 볼 수 있고 1986년 과천시로의 승격을 통하여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 특이한 점은 개발 이후 코오롱과천사옥, 교보빌딩 등 몇 개의 주요 건축물들이 건립되기는 했으나 거의 공시중인 건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개발 초기 마스터플랜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도시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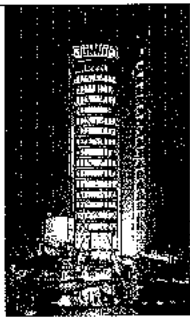
과천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

과천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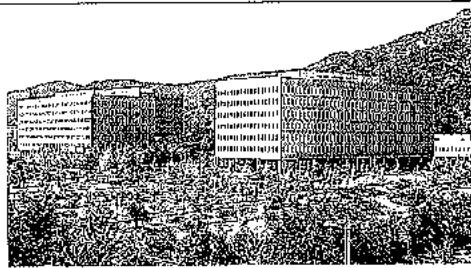
첫째, 자주적인 도시라기보다 서울과의 근접성, 중앙행정기구 일부를 분담 수용하는 독특한 성격부여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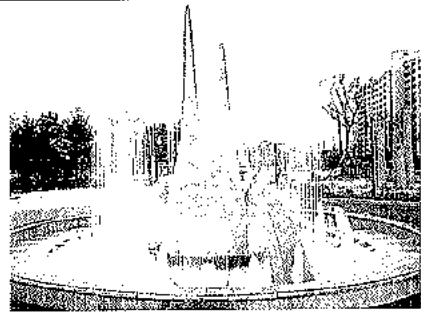
과천 안내도



코오롱 사옥



정부 과천청사



중앙공원의 아름다운 분수대

시속의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서울의 일일생활권 내에서 하나의 상업, 업무중심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적 성격으로 도시 기능자체도 서울의 상업, 업무중심지의 한 계층으로서 서울권역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종합청사의 완공과 더불어 각 행정 부처가 이전되고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 가구들이 진입하여 주민구성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고(물론 현재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이는 동일 유형의 가구가 집단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전반적인 주거환경 분위기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거 분위기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의 가구들에게 이주 의욕을 유발케 하여 서울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신도시 정착감 조성과 주거환경의 활성화 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편리한 거주시설, 생활편의시설 및 수려한 주위 환경 여건, 서울과 근접한 입지적 여건 등으로 이제까지 조성된 어느 신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보다도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다.

셋째, 주거단지군을 근린주구단위로 설정하여 슈퍼마켓, 연쇄점 등 상업시설과 동사무소, 각종학교 등 공공시설을 근린주구에 포함하여 주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보거리 500m 이내로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과천만의 지역적 특성은 종래의

주택을 중심으로한 단지개발형식이 아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개발된 신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초기 개발목표가 자연과 조화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고 단지의 기본골격 형성에 있어서 단독, 연립, 중층, 고층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유형과 규모를 혼합하여 사회계층간의 혼합을 시도한 점 등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유발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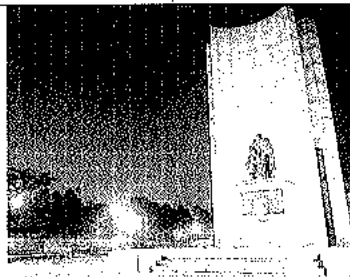
그러나 80년대 초 500만호 건설계획과 맞물려 2,3단지의 경우 층고의 혼합은 실패하고 5층의 아파트군이 집단적으로 배치하게 되며, 개발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 연립주택부지는 단독주택대지로 변경되게 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과천 신도시의 도시구조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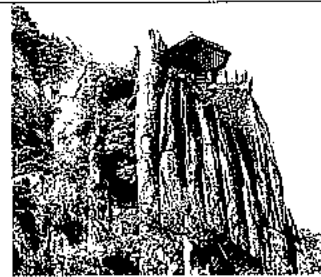
과거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중의 하나로서 기능을 담당했던 남태령 길을 넘어오면 안양과 과천 의왕고속도로 방향으로 외곽도로인 과천대로와 시 중앙을 관통하는 중앙대로로 나누어지며, 내부도로는 관악산 남단의 부림로, 과천제2청사를 지나는 관문로, 그리고 과천대로와 중앙로 사이의 단지 내 통과도로인 문원로등 크게 5개 도로로 나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신도시로 개발된 중심지역은 동쪽으로 서울대공원, 북쪽으로 관악산과 접해 있으며 도시중심지역은 뉴코아백화점, 코오롱과천사옥, 교보빌딩을 중심으로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대우중진



중앙공원내 현충탑



경기도 기념물 제20호 연주대



관악산



교보생명부근 빌딩군



과천의 야경

의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즉 도시중심은 고층으로 그리고 주변은 저층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초입부의 고층아파트인 8,9단지과 도시 중심상업 지역에 바로 인접한 고층아파트인 5단지로 인하여 전원도시의 느낌이 경감된 도시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천은 위에서 열거한 지역적 특성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주요도시라면 필수조건인 수공간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는 주변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가나 여러형태의 분수와 기타 중앙공원내의 수로나, 안개분수등의 수공간으로 도시경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천을 기본 사람이라면 정말 자연과 조화된 전원주택단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지라도 교통소음과 함께 도시민의 정신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수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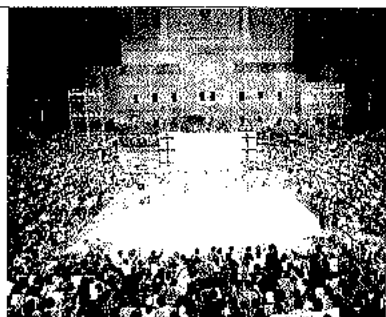
다행히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가로로 긴 형태의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일명 굴다리 시장의 모습은 계획되지 않은 어수선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상자박속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삶의 자연스러운 정감어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과천은 개발부터 자주적인 도시라기보다 서울의 부도심 역할을 하는 베드타운으로 개발되었고 근 10여년 동안 몇 개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개발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건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90%가 주거건물이고 정부제2종합청사를 제외하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사외곽에 위치한 몇 개의 공공건물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시말해 과천의 건축적 특성을 읽기 보다는 전원예 둘러싸인 형상을 하고 있는 주거단지 모습이 과천의 제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사외곽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지만 과천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며, 20만평의 대지에 건설된 과천청사 역시 건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된 18층 규모의 오피스건물인 코오롱과천 신사옥은 주변의 박스형 기존 상업건물과는 달리 하이테크미와 유리의 투명성을 강조한 공간을 형성하여 가로에 경쾌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천의 새로운 명물로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충분하다.

그리고 대우증권사옥 및 교보빌딩 등의 사무소 건축과 주민편익시설인 부림동 다목적 회관과 시민회관이 과천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타 건물들은 그저 평범한 도시의 건물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



'99 과천세계공원에슬레



삼성빌딩과 코오롱 사옥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도 위에서 알려진 건축물 외에 과천의 지역성을 표출하고 있는 건축물은 중앙공원내에 위치한 경기도립도서관, 과천시립도서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뉴코아백화점, 서울 호프관광호텔, 과천관광호텔 등을 들 수 있고, 국사편찬위원회와 과천 향교를 비롯한 경기도내 유형 및 유형문화재 등을 들 수 있다.

중앙공원과 과천시민회관

과천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는 건축물도 있지만 도시중앙에 위치한 중앙공원과 중심북단에 위치한 시민회관일 것이다. 모든 단지로부터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 도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과 오락의 장으로서 중앙공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앞마당으로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공원내 도서관은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소규모 집회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이벤트 홀과 가로수길, 수로와 분수 등은 도시민의 정서적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청사 근처에 있고 중심상업시설의 북단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주민들의 문화 및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중요한 건축물이자 야외공간이다. 시민회관은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과천 세계공연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문화공간이자 사회체육기능도 함께 갖고 있고 있으며, 또 건물 전면광장은 낮 뿐만 아니라 멋진 가로등이 켜지는 밤이면 꽤 근사한 마당의 모습을 갖춘 주민 휴식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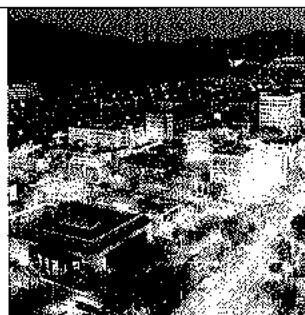
과천은 6개동으로 구성된 인구 75,000여명의 신도시이면서도 서울의 한 대규모 전원단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과천이 꼽힐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도시이며,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으로 인하여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재정자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이 우수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조건과 서울대공원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위락기능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과천의 도시구조와 건축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요약된 글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과천이 좋은 10가지 이유

1. 서울과의 근접성 및 교통용이 - 전철과 외곽순환도로
2. 도시라기보다는 서울의 부도심적인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의 분위기 - 인구 72,000여명 24,500여가구
3. 편리성 - 모든 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
4. 높은 녹지율 - 도시내 중앙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
5. 주변 경관 수려 - 청계산과 관악산
6. 정리된 시가지와 보행자 우선 - 보행자 전용도로 및 녹색선 자전거 전용도로
7. 시민의 높은 의식
8. 높은 재정자립도(95.3 %) - 전국 1위
9. 위락시설 근접 - 서울대공원, 현대미술관, 경마장
10. 수도권 주거환경 최우수(국토개발원 평가)

과천은 이상과 같은 10가지 이유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공공문화시설을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인구 7만의 소규모 도시이긴 하나 진정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지향적인 모습보다는 생산기능을 갖춘 자주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 당시 모든 단지가 지상주차로만 계획되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 과천 신도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은, 물론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어 지역성을 표출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의 확장이 없다면 현재의 모습대로 차분하고 전원풍의 도시다운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의 역사와 삶의 모습이 담긴 지역만들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천시 야경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환경



중앙공원내 수로

역사환경에 따라서 Following the Historical Environment

최승원 / 건축사사무소 양가주망
by Choi Seung-Won

신도시 평촌(별말)은 89년 발견된 남방식 고인돌의 선사시대부터 조상의 집단생활터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는 마한에 속했다가 백제의 근초고왕(345~375)대에 이르러 백제에게 멸망되어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89년 당시 온돌유적도 발굴(명지대 박물관)되었는데 백제초기 온돌이라고 보도되었다. 아궁이는 서북방에 있었는데 이는 겨울 강한 서북풍으로 불길을 구들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장수왕(394~491)때 백제가 패망하여 안양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평촌은 울목군(栗木郡)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안양시 시정백서를 볼 때 백제의 지배는 길어야 70~80년 정도로 계산된다.

신라가 당나라와 교역키 위해 서해항구를 확보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평촌의 쌍개울에서 여름철 4개월간은 강수가 66% 집중되기에 배를 띄우면 안양천을 거쳐 마포와 강화도, 임진강 주변 개성까지 뱃길이 열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 경덕왕 6년(757)에 울진군(栗津郡)으로 개명되었는데 군포리는 지명과 더불어 갯벌흔적으로 보아 서해로 나가는 교두보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제2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순환도로 개통으로 30분대 인천공항 도착과 비교할 때 신라시대의 국책이 현

대에도 은연히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려는 울진군을 과주(果州)로 개칭하였는데 별호는 부림(富林)이나, 조선시대 태종때 과천(果川)으로 하였다가 이듬해 금과현(衿果縣)이라는 명칭이 있다가 오래못가고 예전 지명으로 환원되었다.

땅이름과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이 지역은 60년대 말까지 밤나무가 많았고 조선말기에는 밤쥬기 테마여행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밤과 아울러 포도의 명산지로서 이름을 떨친 적도 있다. 또 산이 좋아 사찰과 암자가 많은 지역으로도 알려져 왔다.

평촌의 북서쪽이 금천(衿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는 질 좋은 물이 풍부했던 것 같다. 20세기의 산업이 안양유원지 수영장과 더불어 방직공업과 제지공업이 주류를 이룬 것도 이러한 자연환경과 연관이 있다. 1944년에는 평촌에 비행기 제조공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다 해방이 되었다. 당시 건축가 김중업이 여기에 징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역사를 참고하여 지리와 지형을 살펴보면 이 지역을 원초적 바탕으로 봤을 때 물과 특히 관련이 많은 도시이다. 평촌이 베드타운의 탈을 감소시키려면 안양유원지의 산수(山水)를 살려 관광도시의 힘을 키우고 식용수를 만들어 발달된 교통망을 이용하여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됨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순리적인 개발이다.

2개소에 발견된 온천수를 잘 관리하고 절약하여 사용한다면 관광도시 형성에 일조할 수 있다. 아울러 불거리를 첨가시키기 위해 전시장, 미술관, 민속촌 등의 문화시설 계획도 병행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전자(38.4%)산업이 기초가 되어 정보통신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에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보이며, 현재 시청 7층이 벤처를 위해 준비중에 있다. 민원실을 문화시설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식량이 부족하기에 도시에서도 밤이나 포도재배, 오리사육 등으로 도시농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농촌에서 유입된 도시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온난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시농업으로 이용되는 정부소유 공한지 안양시청 앞

친자연적인 평촌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신도시 평촌의 생노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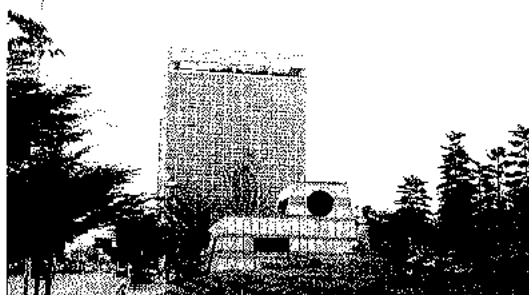
1899년에만 하더라도 누가 감히 조선이 망하고 전통건축이 거의 다 없어지리라고 예견했겠는가? 1930년 전후만 하더라도 누가 감히 일본이 망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4대문 안에 일본건축이 거의 없어지리라고 예견했겠는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현재의 혼란한 건축이 파반수 이상 헐려버린다고 피부로 느끼겠는가? 실제로 신도시의 건축들은 2010년부터 헐릴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것은 우리의 도시가 생노병사의 순환이 빠르게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이 생노병사 과정에서 20대초에 결혼하여 후손을 가지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신도시도 거의 같다고 본다. 건축의 수명도 인간의 수명과 같이 70~80살이 되면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다. 기념비적인 것을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

전쟁 등 국가가 불안할 때, 20대 초반이 대량 소모 되듯이 동양건축과 서양건축의 전투과정에서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건축이 줄을 잇고 있다.

도시는 일장춘몽으로 생노병사 한다. 평촌은 초등학교 2학년정도이나 서서히 자기 환경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인간의 생노병사를 막을 수 없듯이 도시의 생노병사를 막을 수 없다. 단, 장기교환으로 수명을 연장하듯이 건축도 설비의 보강이나 내외장재의 수리로 일시적으로 그 수명을 연장 할 수 있다.

우리는 서울 4대문 안의 건축형태에 대해 낙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낙담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간다면 2020년대에는 파반수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평촌 신도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 의미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이야기이다.



평촌 신도시를 설계한 국토개발연구원

평촌의 도시와 건축

신도시 평촌의 도시계획은 구 도시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인구증가로 웅색하게 지내다가 시청 부지를 준다고 하니만큼 결정하고, 평촌의 중앙으로 이사하였다. 균형발전이나 교통문제로 볼 때는, 서울시 같이 별관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과거의 시청자리가 안양시의 중심지역이다. 문화시설도 시의 중앙에 있음이 바람직한데 평촌의 산업도로변이 이용에 편리하고 다음이 동안 구청자리이다. 2010년에는 동안구청을 시청 동측 공지(주차장)에 이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현 위치는 문화시설로 내주는 방법도 있다.

교통문제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인터체인지를 만안구 남쪽지역에서도 이용해야 하는데, 2차선 정도의 작은 터널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평촌의 통과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 산본 신도시 주민들이 평촌 중심부를 통과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불리하다. 산본 주민의 서울순환고속도로 사용을 분당까지는 무료로 하여 평촌의 통과교통을 없애야 한다. 산본 신도시는 배터타운용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에 인터체인지를 민박사업을 발달시켜 신공항개장과 발을 맞추어 나감이 바람직하다. 또한 아파트가 직장이 되게끔 주택에서 직주일치로 하며, 사업소득세를 내는 주민에게는 아파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시책이 오히려 평촌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합벽을 사용한 변화가 거리는 비교적 활기를 띠우고 있고, 경제적인 건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간판이 문제이므로 간판의 크기에 따라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도 일석 이조의 효과이다. 시민로로 접근하는 장미터널도 매우 아름답고, 평촌우체국 주변은 살고 싶은 평촌을 볼 수 있다. 시민로 양측이 공공시설로 가득차 있기에 전철을 타기에는 매우 멀다. 시민로에는 버스 노선이 극소수이다. 평촌 신도시 마스터 플랜은 있었으나,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되어 있기에 주민의 편리성이 떨어지고 자가용 위주의 도시계획이다. 단기적 수정과 중장기 계획이 같이 수립되어야 한다. 평촌주변은 계속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것이 평촌 신도시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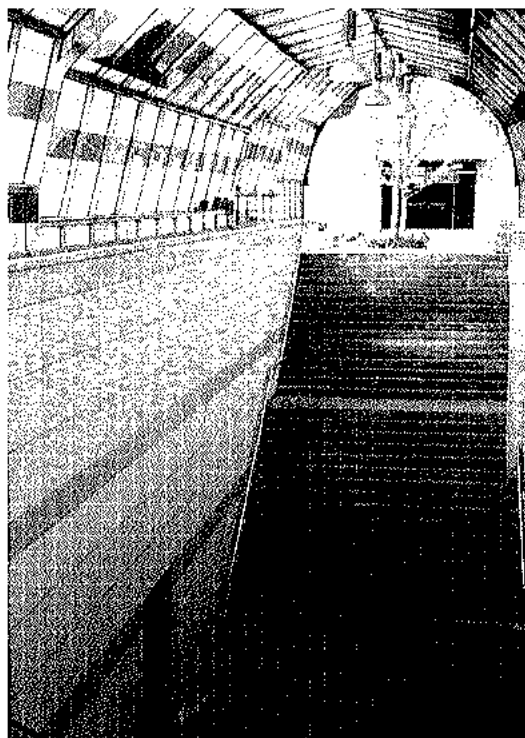
조선일보사 주변 플러스케이트장

신도시 평촌은 전문적인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신도시들이 문화로 자립한다면 문화벨트를 만들어 서울의 미술관 셔틀버스와 같이 과천 현대미술관, 안양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하루코스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평촌 신도시의 질이 높아 질 것이다.

각국에서 만든 이상도시들이 많이 실패하였는데, 그래도 200년전에 만든 수원은 현재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급하게 아파트를 지어 공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도시이기에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 주어진 도로와 아파트들을 단기적으로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평촌은 관공서 부지들이 비어있다. 정부가 소유한 토지라도 5년이상 지나면 공한지세를 내든가 지방에 다시 돌려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소각장은 좀 더 부드럽게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도시 내에 밤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 녹지조성에 특색있는 평촌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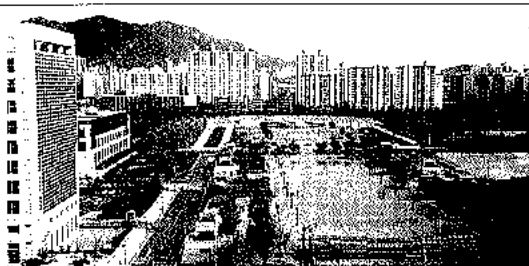
시청앞길 시민로 주변에 획일적으로 늘어서 있는 건축들이 친근감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에 걷고 싶은 인도가 만들어져야겠다. 시청앞 위용을 자랑하는 자연석 간판은 자연보호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남방식 고인돌식으로 늘려 놓아야 시청의 친근감이 나올 것이다. 조잡한 조각들은 다시 심사하여 3류의 문화지표를 올리는 의지가 필요하다. 시청의 배치는 서북풍이 부는 쪽을 열어 놓았기에 매우 공허하고, 특히 시청이 서쪽에 뒤집어 배치되었다면 매우 안온한 상태가 되었겠는데, 매일 바람 잘날 없이 불안하고 허전한 배치이다. 의회동은 서측에 도로를 따라 16m 폭으로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다. 평촌의 문화시설 보강은 관청을 재배치한다든가 주변의 공지를 활용하면 새로 토지의 취득이 없이도 건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평촌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며, 안양시가 10년내에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다.



이용자가 없는 시청앞 지하도



전시장으로 사용될 예정인 시청앞 지하주차장



시청에서 본 평촌광장. 플러스스케이트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10%의 이용률을 보이는 대규모 지하주차장

주변과 지역성

Circumference and Regional Value

손기찬 / 동이건축, 인하대겸임교수

by Sohn Kee-Chan

아마 도시는 자연과 인공의 합류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소중한 것으로 평가될는지 모른다. 도시란 그 생물학적 역사를 도시의 경계 안에 가두고 있는 동물의 협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에 의해 도시는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는 그것의 유래와 형태에 의함과 동시에, 생물학적 출산, 유기적 진화 및 미적 창조와 요소를 소유하게 된다. 도시는 자연의 대상인 동시에 문화의 주제이니 개인입과 동시에 단체, 체험된 것임과 동시에 꿈꾸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인 것이다.

「슬픈열대」중에서, 레비스트로스

기실 내가 알고 있는 중동은 수십년전 부천역 앞 대로변의 의원건물 계획안 작업을 하면서였다. 측면도로 건너다 보인 돌판이, 그후 중동신시가지가 되었다는 사실과, 학교 다니면서 항상 경인 전철 차창밖의 중동역 너머에 무심히 내다보이는 일상적인 아파트단지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내부인의 관점이 아니라, 이 글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다른 신도시와 다를 바가 없는, 아니면 무언가 다를 수 있는 도시를

현장탐색하는데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신도시에 대한 성찰로서 보기 위한 글로 읽어낼 수 있다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

중동이 지리한 부천시 또한 서울 - 인천간 연결교통망인 경인 고속도로, 경인국도 그리고 경인 전철과 도시 내 간선도로인 중앙로를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부천시 도시공간구조의 문제점은 경인고속도로, 국도, 경인전철 등 광역교통망에 의해 시가지가 양분되어 부천시 남북간 연계성이 미약하다는 점과 서울과 연결된 주거기능의 위성도시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부천의 성장과 변천을 <표 1>과 같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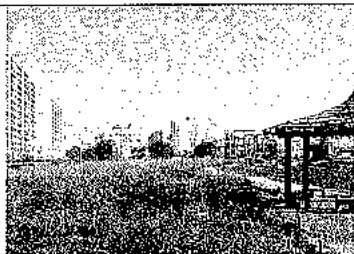
서울에 대한 종속성은 이 지역의 성장에 구조적 불균형을 가져와 도시환경의 수준은 수도권내에서도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중동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은 또한 서울과 닮아가는 도시와 풍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구분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한 장소성이 갖는 의미도 약화되어 가고 있다.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의 틀을 깨면서 문제의 해결안을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심은 그 주위에 주변이라는 영역이 없이는 중심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도시는 결과적으로 주변이 있는 조건에서만 도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중동신도시는 부천이라는 주변세력범위안에서, 시의 핵심적 도시기능을 집중시키고 있는 기이한 현상아래 놓여있다.

<표 1> 부천의 성장과 변천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보고서」중에서 요약

요 인	관 련 내 용
경인선개통(1899년)과 함께 소사역 설치	취락의 발달 촉진
일인들에 의해 복숭아 과수원 형성(1908년)	노동력 필요에 의해 인근주민들의 급격한 이주
만주사변(1913년)을 계기로 군수공업 육성	식료품등 소비재공업의 활기
소사읍 범박리에 제1신양촌 건설(1957년)	각양각색의 사업을 일으켜 '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1962년)	경인공업지구 형성
경인고속도로의 개통(1967년)	경인고속도로변에 공장입지
부천시승격(1973년)	서울과 인천의 「Bed Town」으로서 주거기능과 공업기능 분담
경인철도의 전철화(1974년)	소사역이 부천역으로 개칭되면서 북부역사 확장
주거지 개발(70년대)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제1,2,3지구)
급격한 도시화	서울의 인구집중에 의한 과대화 및 과밀화로 주변 위성도시 급성장
주거지 개발(80년대 이후)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제4,5,오정지구)



공지로 남겨진 중심상업지역 벨트



같은 상업지역내의 또다른 풍경



같은 블록내의,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만한 활기있는 저층 상가

상업지역의 허실

중동신도시의 주출입구는 사실 중동역이 아니라 송내역이다. 그러나 역의 규모나 넓은 상업 지역의 인배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느낌을 감출수가 없다. 이는 도시중심기능의 부천역 편재로 도시의 불균형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다. 더구나 시청 좌우로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상업지는 몇몇 단색 빌딩과 중단된 백화점의 철골조를 제외한다면, 온통 들판으로 방치되어 있다. 그나마 저층 근린상가에서 오히려 최고의 분위기를 자랑하는 업소들의 현수막과 시야를 온통 뒤덮고 가로막는 입간판들이 잡초처럼 도시의 빈 공간을 온통 메우고 있다. 이렇게 도시공간이 더 이상 생산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산업조직 사회에서 이탈한 개인들이 문화적 다산주의적 이합집산 공간이 되어 버려 의도되는 다른 산만하고 경박한 장소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은 무엇을 생각해 하는 것인가? 특히 청소년들의 대중적인 경박성을 두고 그들의 발랄함과 자발성과 솔직함의 표현은 어쩌면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문화(경직된 빌딩)에서 탈출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대중적인 선호는 반드시 도시건축 실무적 이상과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만 할 것이다.

닫힌 아파트, 열린 아파트

중동지구 개발밀도가 타 신도시에 비해 매우 높아, 고층 위주인 아파트 용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커 지구전체 경관을 지배하므로, 파일을 느낄 정도가 5개 신도시 중 가장

플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 중동지구는 부지조성단가(성토구간)가 여타 신도시보다 높아 택지개발계획 승인 당시 공동주택 단지용적률이 평균 229%였음을 알 수 있다.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180%	168%	190%	214.6%	2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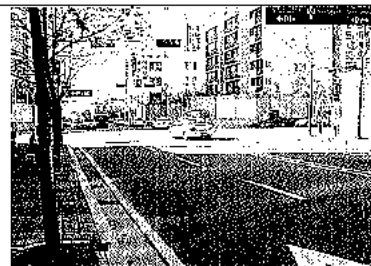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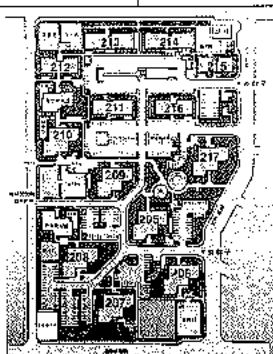
그럼에도 대부분의 단지아파트가 판상형의 일자형의 아파트 단지임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여유있게 보였다. 이는 저층아파트를 아예 할당하지 않았고, 시가지의 형태상 블록의 크기가 적게 나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1동의 폭이 좁아 보행자에게 시야가 확보되어 있음을 단지내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외곽을 담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개발됨으로서, 오히려 잘게 나뉘어진 가로변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가로망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한, 오히려 단조롭지 않고 아파트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우선 시공(분양)업체 단위로 나뉘어진 블록의 적응자체가 인위적인 생활단위로 조성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여기에도 아파트단지가 담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이고 자기완결적인 형태로 조성되므로써 지역의 접근성이 저하될뿐아니라, 아파트 단지는 단순히 통행목적에만 이용되는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인 도로들로 둘러싸이는 도시환경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꽃샘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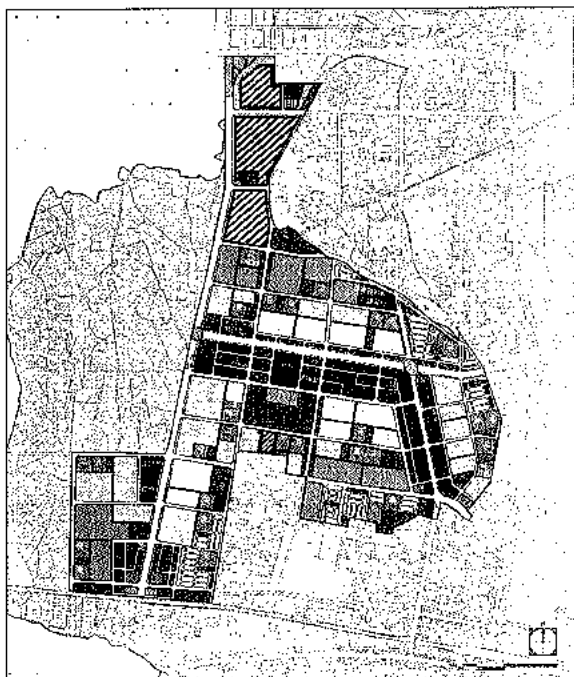
아파트 속마다/사람몸속에/꽃눈분다



부천시 도시구조도, 「부천중동지구 도시설계보고서」에서



자동차도로중심의 블록계획은 사거리를 온통 방음벽으로 메우고 있음
소규모 블록 단지배치의 일례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개발면도. 「부천중동지구 도시설계보고서」에서

같은 삶에도/몸오는 것은/반쯤때운/사람은/틀
새 일은 늘/틈에서 벌어진다.

틈,중에서, 김지하

단독주택지의 한계

단지 밀도상 순수한 독립주택은 배제된 채 다
가구주택군들이 기존시가지와 연결하여 배치되어 있다. 이는
저층의 기존 시가지와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배려인 것 같
다. 또한 기존주택개발단지와는 달리 도로폭의 위계가 급격히
변하지 않아 골목도로가 여유있게 보인다. 이러한 개발형태가
일반화됨으로 인해 단지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여건및 가능성을 지닌 단지 외곽부의 주택들이 특색없는 무미
건조한 3층 벽돌조로 일관되어 있었고 불려내의 한 뼘의 울타
리에 둘러 싸인채, 주민들만의 다양한 형태를 담은 골목과 이
로 인한 풍요로운 주택지공간 형성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저층주택의 건축법규를 정비하여 차라리 밀도가 높

고 연이은 타운하우스의 형태를 개발함이 단지환경에 순기능
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그나마 주택지 중앙의 중정식
소공원은 숨막히는 주택 울타리에 숨통을 틔우는 소중한 오픈
스페이스 표본으로서의 가능성을 돋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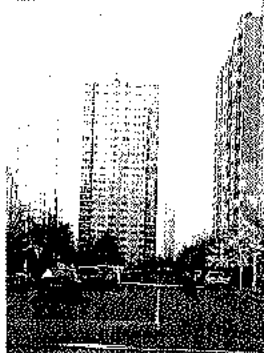
우리는 가로들을 유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방향없이 무작정 걷던 나에게는 무서로 자동
차도로와 선뜻신뜻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항상 자동차도로계
획을 우선하고 아파트단지를 만드는지, 주택단지 한 가운데를
신도시내보다 더 많은 통과 교통량은 엄청난 상동택지개발지
구와 이웃해서 10차선 중동대로는 거침없이 가로 지르고 있
다. 어느 경우, 도로로 갈라진 아파트단지 네 모퉁이가 전부 방
음벽으로 둘러쳐진 건물목을 지날 수밖에 없는 괴이한 풍경에
마주치기도 하였다. 교통하면 빠른 것이 선(善)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다. 교통의 중심가치는 신속성이고 빠른을 위해
서라면 다른 요소들은 얼마간 희생돼도 좋다는 이 논리는 서투
름중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퍼진 교통 이데
올로기이다. 속도의 문화와 미학은 자본주의에는 걸맞는 논리
일지 모르지만 사람과 환경에는 지극히 적대적이다. 속도는 타
인과 환경에 대한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 도
시는 더 이상 도로의 회로망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동차는 도
시의 기본모들이 될 수 없으며, 획일적이고 과도하게 기능적으
로 분절된 모더니즘적 실패를 이제 복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
다. 왜냐하면 중동시가지에서는 학교 정문앞에서 불쑥 횡단도
로와 마주쳐야하고, 중앙공원을 만끽하기 위해 횡단도로를 넘
어가야만 한다. 송내역으로 향하는 중앙방향의 주동선과는 달리
횡으로 늘어선 보행로에선 쌓인 낙엽과 함께 자유분방한 학교
길의 학생들과 휠체어를 만날 수 있었음은 뜻밖에 도심을 벗어
나 시골길을 마주치는 행운이었다. 우리는 다시 자동차도로를
가로지르는 도시의 산책로가 필요하다. 마음껏 도시를 활보할
수있는 보행로와 모여서 타는 곳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망의 체
계가 함께 요구된다. 우리의 도시는 자동차들 그 이상이다.
그래서 걸으면서 여러차원에서 도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신도시 전경.
「2011년 부천시 장기개발구상보고서」에서



폭이 좁은 아파트는 시야를 확보하고 있음



단지내 상가의 접근성이 재고되어야 함



도로폭만 개선된 단독주택지



고밀한 단독주택지(다가구군)내의
중정형 소공원



단지와 단지사이에 놓여진 여유로운 보행로
(Mall)

신도시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뽀족하고 드높은 첨탑은 신도시지역에 파고들어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여전히 백화점버스처럼 흔해버린 교회버스와 엄청난 주차장의 모습은 전혀 낯설지가 않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교회라는 조건이 지녀온 독특한 자리에 주목할 뿐이다. 신앙 이전에 핵가족으로 뿔뿔이 흩어진 개인들에게 교회는 가족을 넘어선 집단으로 포용하면서 친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성을 박탈당한 대다수의 도시 이주민들에게 교회는 이민가족들만큼이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적극적인 장이 아닐지? 그렇다면 교회는 크게 성장하면서 외부로부터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성이 퇴색되어 가게되는 신도시의 새로운 공동체로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지? 바람직한 교회공간의 활용이 주시되는 대목이 될 것이다.

분리된 광장으로부터 도시(자연)와의 공간으로

빈틈없이 채우기만 하던 신도시는 그나마 여유를 가져 빈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형식적인 도상(圖上)작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중앙공원은 나무가 우거져 있지는 않지만 도시중앙에 자리잡아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베드민턴 등 4만4000평의 공원은 시청사의 앞마당구실과 함께 드넓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거대한 도로에 갇힌 채 유치원 어린이들의 행사에 이용되는 전시적인 블록광장 이하인것 같다. 지난 세기의 제인 제이콥스가 불평한

엄청난 따분함의 폐해가 또다시 서울의 수도권 신도시에서 드러나고 있다. 도시를 사람이 기능만 추구하는 기계가 아닌 이상 도시를 기능주의 안경만 끼고 이해하고 만들어 나갈 수는 없다. 이용의 대상일 뿐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도시는 건물과 도로, 자동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건물과 도로 이외에 개방공간과 자연환경 등 여러요소로 구성되며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새삼 오픈스페이스의 양(量) 못지않게 보행로 등과 함께 체계화를 이루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용은 사회적 성장과 변화의 지표로 측정될 수 있는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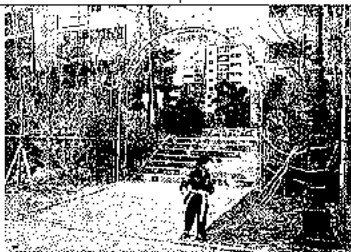
공공행정의 도시문화화

중동 신도시에 빠진 것은 공공영역보다 오히려 기존 부천시의 주요한 공공시설이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의 서비스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다는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문화제도, 관행, 의식속에 공공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고 낯설기 짝이 없다. 대형빌딩앞에 문제같은 표지로 세워진 수많은 건축물 부설 예술장식품만큼이나 기관간에 서로의 이익을 적당히 절충한 결과물일 것이다. 공공시설은 공공적 성격의 자원과 공공장소와 공공으로서의 관객을 필요로 하며, 공공적 맥락으로서의 내용과 과정은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중앙에 여유있게 자리잡은 단아한 시청사



보행로는 도로와 블록에 의해 차단됨



보행로(Mall)에서, 블록단지와외의 접근성을
고려치 않은 계단



잘다듬어진 공원보다 융통성있는
빈공간의 가능성

는 중앙공원까지 독차지한 전면광장과는 달리 측면, 후면은 한치의 여유도 없이 도로에 빈틈없이 메꾸어져 있음은 지나치게 전면 파사드만 의식한 배치일 것이다. 비교적 권위적이지도 않고 차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검찰청사는 나란히 아파트 단지 앞을 가로막고 서 있고, 교실이 모자라는 여타 신도시에 비해 기존 시가지의 부족한 교육시설을 신도시공간으로 활용하므로써 자주 눈에 띄는 학교는 보행로(Mall)과 공원을 등진채 자동차통행을 위한 도로만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과 토지의 사적인 소유가 있고, 이윤추구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세계 어디에서나 좋은 도시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란 공공적인 존재이다. 상호무관한 개체의 집합체가 아니다. 특정이익과 집단이기주의만 돌보이고, 공익성과 공공성은 보이지 않음은 이 도시자체의 시행계획이 주택공사, 부천시, 토지개발공사로 나뉘어 집행되었다 함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부천시청광장에 펼쳐지고 있는 99 경기공공미술제는 1999. 11. 13 이후 영구전시된다 하니 미술관 밖의 열린 예술은 부천시의 독특한 도시환경의 CIP작업과 함께 행정의 문화화의 가능성을 되짚게 한다.

다음세기에는 문화적 힘이 경제력을 선도할 것이다.

기 소르망,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지역성의 창조 - 문화공간

도시는 결국 시민이 만들며 그들이 또한 도시를 바꾼다. 지금의 중동 신도시는 도시적 공간형태는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사회로서의 일체성은 탈색되어 버린 장소이다. 지역사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 그 중심적 개방화 때문일 것이다. 중심으로만 향해있던 시선을 돌려 중심 주변의 허구에서 벗어나 탈 중심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특성은 자연, 인문, 사회, 건조환경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게 되며 점차 자연환경보다는 도시구조나 문화, 사회 환경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시청앞의 광장과 황량하기만 중심상업지역의 빈 공간은 문화공간창출로 재구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실로 빈 도시 공간을 임시로 이용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상상력이외에는... 국제적인 문화이벤트나 개방적이고 고유한 지역적인 문화공간을 연출시키므로써 중동 도시민의 아파트와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심을 고양시켜 궁극적으로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3회째 진행되고 있는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의 행사는 좋은 예이며 이는 바람직한 모델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는 지역도시민의 참여와 함께 강한 지역성의 바탕만이 진정한 세계화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 프로그램은 시민과의 또다른 세계가 아니라 일체화를 위해, 전도시적인 보행로(Mall)가 재구성되어 하드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도시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탈중심주의적 지역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21세기는 국가가 중심 주체가 아니라, 지역 즉 도시가 경쟁력의 주체가 되리라 확신한다.

까치가 철타 위에 동자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왔습니다.

이윽고 그 철타 등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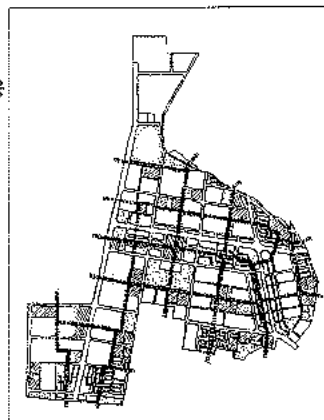
까치가 날고

까치새끼가 날기 시작하였습니다.

철타 위 그곳이

내 고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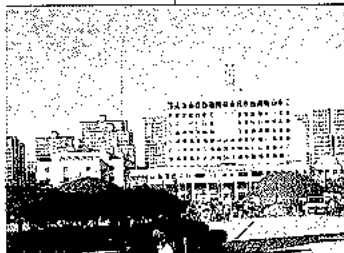
「까치동지」 김신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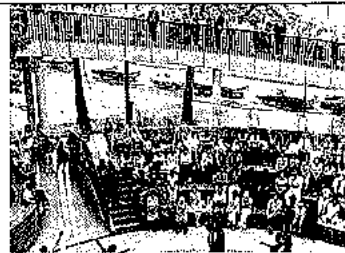
중동신시가지보행로(Mall)의 재계획안(기존의 자동차도로의 중심에서, 구 시가지와 상동지구와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보행중심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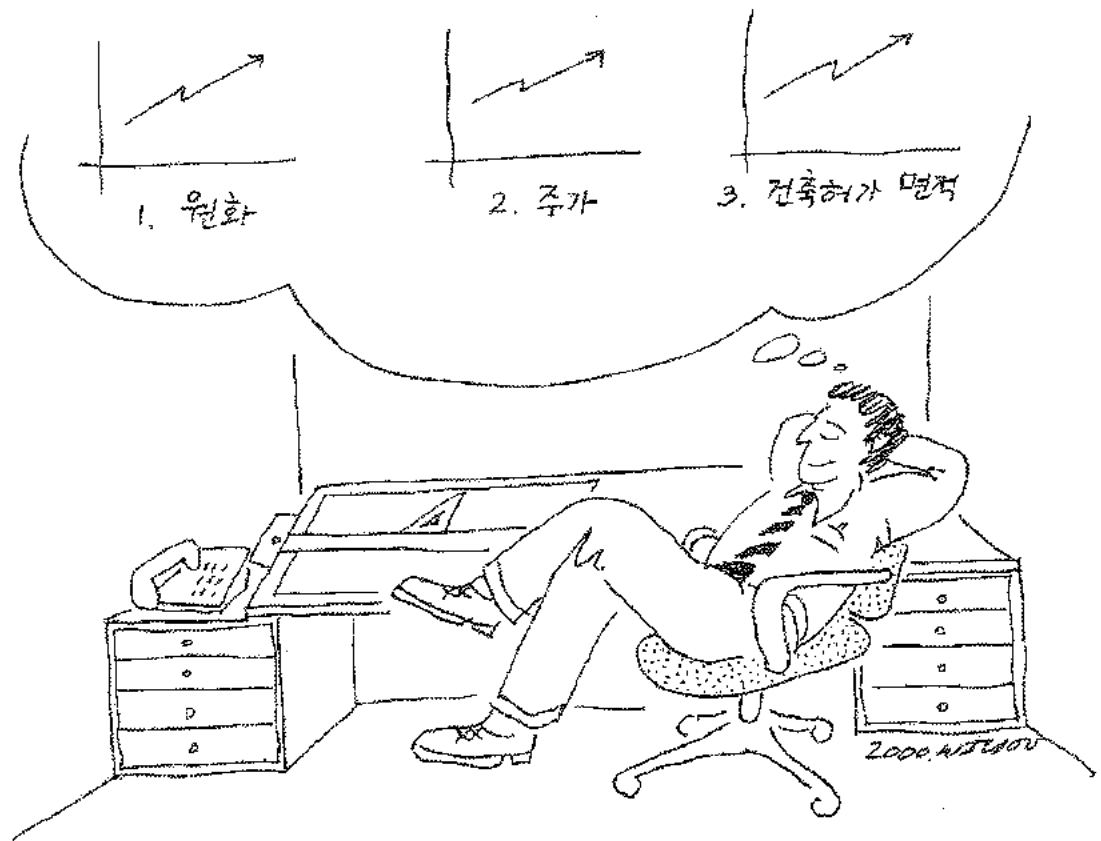
신개발 아파트단지내의 교회와 상점



시청앞 도로 건너편 중앙공원



공공공간은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함께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음. 퀸즈게이트 제2터운센터, 신시네티, 미국 「Community Design by the People」에서



3번째 그래프는 거꾸로 그렸습니다.

희망찬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아직 기지개를 펴지 않는 건축경기로 인해
의기소침하고 있다.
허나 무엇인지 모른채 기대되는 다음 프로젝트의
준비된 설계자로서 새해를 슬기롭게 지내고 싶다.

유원재(다건축)

협회소식 / 80

건축계소식 / 82

현상설계경기 / 89

해외잡지 동향 / 95

법령 / 101

통계 / 105

협회소식 KIRA news

99년도 제11회 이사회

아카시아포럼 유공자 표창수여
승인의 건 등 처리



이사회 풍경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9일(화)에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이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아카시아포럼 유공자 표창수여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각시도건축사회장, 서한건축(오임석), 신원기계공업(주)(김태호) 등 포럼행사에 협찬한 업체 및 회원사대표 59명에게 감사패를, 유신건축(김지덕), 위드건축(김홍일), 위가건축(민선주) 등 1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

〈기타사항〉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의 사업검토시 참고하기로 함.

우리협회, UIA가입 신청

건축가협회와도 논의 예정

우리 협회가 지난달 UIA(세계건축사연맹)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건축계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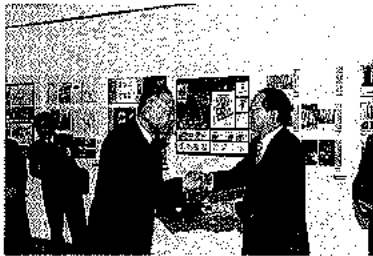
현재 UIA에는 한국건축가협회가 회원국 단체로 가입돼 있으며 국제활동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와 별도로 우리 협회가 UIA가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사자격상호인정 관련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UIA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상에 실무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나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건축사의 의무와 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한국건축과 국내 건축사의 국제적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축계의 국제적 협상 창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원화돼야 한다는 건축계의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그동안 국제사회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건축사협회가 ARC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에, 건축가협회가 UIA에 각각 회원국 단체로 가입 활동해 오며 따라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음은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건축계 내부의 공조체제 구축에도 적지않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국제회의 참석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 각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2개의 단체가 국제기구조직에 따로 가입하고 있는 예가 없어 어느 경우든 자국내에 동일한 단체로 일원화되어 있어 국제적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우리도 급변하는 국제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외 창구를 단일화 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 수상 작 특별전

12월 14일부터 2000년 1월
30일까지 협회 갤러리에서



지난 9월 아카시아포럼10 기간중 선정
발표된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의 부문별
수장작품이 협회1층 아키텍트 갤러리에
서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연구소·사회시설부
문의 제주 신영 영화박물관(김석철작)등
부분별 금상 수상작품 6점을 비롯해 총
71점의 출품작들이 소개되고 있다.
전시회는 오는 2000년 1월말까지 계속
된다.

99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면허증 교부

99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최
종합격자를 12월 10일 발표했다. 합격
예정자중 00519(이병관), 04044(한상
철), 20739(성민경), 20844(안성삼)
4명을 제외한 1,119명 전원이 합격했

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최종합격
자에게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협
회 대강당에서 12월 22일(수), 23일
(목) 이틀간에 걸쳐 소양교육후 교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증명서
와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
우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

일 자	교육시간	대 상 자
12월 22일	10:00	용시번호 00001~02559
	14:00	용시번호 02563~04995
12월 23일	13:00	용시번호 10031~30200

광주건축사회, 제3회 미술동호 회원전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롯데화랑에서

광주건축사회 미술동호회(회장 김용주)
에서는 취미활동을 통하여 회원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지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롯데화랑에서
제3회 미술동호회원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용주(한길건축), 김병모(지도교수),
강성철(삼강건축), 김유지(유지건축),
김신채(뉴텍건축), 김주연(다운건축),
전기택(요람건축), 신정철(광장건축),
심상봉(예지건축), 양동현(예일건축),
임정규(신세기건축), 정원석(디자인건
축), 한진수(토방건축)



실경 / 김용주 작



월출산의 봄 / 김유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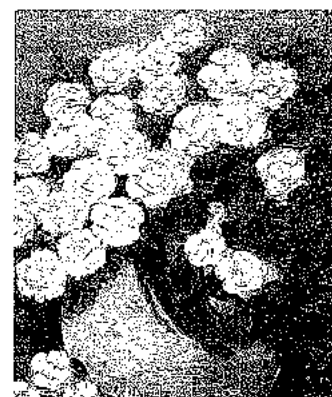
깊은 가을 시색 / 김주연 작



월출산 / 전기택 작



누드 / 양동현 작



꽃병 / 강성철 작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1차공청회

이관영 분협회이사 '건축사제도' 주제발표

건축3단체와 건설교통부 등이 공동주최한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개선을 위한 제1차 공청회」가 지난 11월 19, 20일 이틀간에 걸쳐 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교육, 설계실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교육의 국제화 및 국내건축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요명제하에 마련됐다. 좌장은 이명호(중앙대)교수가 맡았으며, 19일은 이문섭(인하대)교수의 '교육제도개선'과 박한규(전북대)교수의 '교육인증분야'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20일은 이관영(한인건축) 분협회 이사의 '건축사제도'와 '건축사보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제건축사연맹(UIA)의 인증기준을 만족시켜 우리 건축사들이 해외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건축교육과 자격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이 제기됐고, 앞으로 건축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국제건축사연맹이 제시한 5년 이상의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인턴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부 4년제+석사과정 2년제, 건축비전공학과 4년제+건축전문대학원 3년제 등의 학부제 모델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안이 발표됐다. 또 건축학과 교육을 설계 중심으로 하면서 도시, 조경, 시각디자

인, 사회학 등과 연계하여 실무감과 현장경험이 필수적인 건축설계교육에 실무 건축가들이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진들은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국제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4년제 교육제도로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하고, UIA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제도의 혁신적인 개선과 함께 건축3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차공청회는 내년 1월 14일에 건설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 발표요약문은 본지 9911월호 21쪽 참조.

제1회 충청북도건축문화상

대상에 충북과학교육원



대상 / 충북과학교육원

충청북도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이를 기념하고 21세기 새로운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충청북도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제1회 충청북도건축문화상을 제정하여 도내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건축물중 가장 아름답고 우수한 기능을 가진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 대하여 시상했다. 대상에는 충청북도과학교육원(오선교/선건축)이 차지했으며, 금상에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유대현/건양기술공사건축), 은상에는 원봉초등학교(박광범/이일건축), 동상에는 충청대산학협동센터(권오준/신성건축)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6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서울건축사복지회, 신용카드발급

연회비 1년 면제 등 혜택

서울건축사복지회(이사장 이태희)는 삼성카드사와 제휴, 서울건축사복지회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카드발급 신청을 받는다. 이 카드는 단순한 신용카드 기능 외에 복지회 회원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와 다양한 서비스 제휴기능이 부가되며, 개인 및 법인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카드발급 신청은 각자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나 제휴기능 최소 발급 매수가 500매 이상 되어야 카드기능에 의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존 삼성카드를 이 카드 신청과 동시에 건축사복지회카드로 교체, 발급해 준다.

문의: 02-583-5040

학교건축의 과거 · 현재 · 미래

포스코센터에서

한국교육환경연구회에서는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개최한다. 교육환경을 보다 더 전문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연구 · 개발하고, 선진교육환경을 도입하여 연구, 보급함으로써 교육환경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과거 1백년 동안의 학교건축 역사 재조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학교시설을 가능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연구회는 지난 11월 30일 '새 밀레니엄을 향한 학교시설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문의: 02-456-9442

생태건축학교 개설

한겨레문화센터에서

한겨레문화센터는 20기 겨울 건축강좌의 주제를 생태건축으로 설정하고 참가 신청을 받는다. 12월 18일(토) 개강하여 10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된다. 수강료는 15만원이다. 문의: 02-3272-7575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생태학의 개념과 구성요소/김현수(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 ▷ 생태학의 철학적 인식/최병두(대구대학교 교수)
- ▷ 생태마을을 위한 조경계획/양병이(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 전통마을의 생태적 공간의 재해석/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생태적 건축계획/윤웅진(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 생태적 삶과 모듬살이/양희구(간디학교 교장)
- ▷ 생태마을의 사례분석 I -독일/이태구(세명대 교수)
- ▷ 생태마을의 사례분석 II -일본/이정재(동아대 교수)
- ▷ 한국 생태건축의 현재적 전망-사례중심/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생태경제학의 패러다임/이정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99년도 제2학기 건축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연건동 디자인 센터에서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은 99학년도 제2학기 건축전을 개최한다. 12월 14일(화) 오후 5시부터 17일(금)까지 서울 종로구 연건동 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5개 졸업 스튜디오 외에 9개 디자인 스튜디오 학생들의 가을 학기 작품 및 건축과 기술, 드로잉 과정의 선정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문의: 02-390-5245

제1회 한서대 건축공학과 졸업 작품전

「뉴밀레니엄 - 서산의 미래」 주제로



한서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첫 번째 졸업 작품전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산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New Millenium-서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졸업작품전은 4학년 학생뿐 아니라 2,3학년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윤성호, 이근하, 박동소, 최수경, 심승현, 장양순, 오세출, 김영은 교수의 지도로 전시됐다.

99예총문화예술대상 시상

건축부문 대상에 강석원, 공로상에 변 용

99예총문화예술대상 건축부문의 대상에 강석원(구름가건축)회원, 공로상에 변용(원도사건축)회원이 각각 수상하였다. 이는 매년 건축, 미술, 조각, 음악 등 예술부문 10개 분야에 각 대상 1인, 공로상 1인을 선정하여 예총회장이 수여하는 상으로 올 해는 지난 12월 2일(목) 11시 서울 동숭동 소재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한편, 지난해에는 건축계 원로인 송민구선생이 대상을, 안장원(신아건축)회원이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2회 건축사진 강좌

내년 1월 11일부터 3월 28일까지

청암 건축사진 스튜디오(대표 임정의)에서는 제2회 건축사진 강좌를 2000년 1월 11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무과정 건축사진 강좌를 12주간(주1회) 건축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이론과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건축사진의 폭넓은

이해와 활용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모집한다. 소형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 촬영, 야외촬영, 인테리어촬영, 암실작업 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개인작업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만을 모집하여 강도높은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 참가인원: 12명내외
- 참가자격: 자기소개서, 참가비 30만원
- 교육시간: 매주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 참가신청: 12월 30일까지
- 문의: 02-567-2700
(팩스02-569-0061)

99두물건축포럼, 양평건축전

두물위크숍에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두물위크숍이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99두물위크숍 및 건축전이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두물위크숍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박철수(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 송도영(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종건(경가대 건축대학원 교수), 전봉희(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김성홍(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씨가 참여한다. 박철수씨는 제한된 영역 안에 다종다양한 주택형이 혼재하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하여「주택형의 총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인류학자인 송도영교수는 중첩되어 얹힌 채 끝내 만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중심성과 주변성에 대한 주제로 양평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성홍교수는 양평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공공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종건교수는 기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양평의 중심에 대해 최근 건축이론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혼돈이론에 대한 식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봉희교수는 상업화로 인해 경관을 해치고 있는 양평의 국도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과 함께 열리는 「양평건축전」은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김영준(이로재 김영준 건축연구소), 김종규(M.A.R.U.), 김현(예다건축), 민선주(위가건축), 주대관(엑토건축), 최 옥(KPC최옥건축연구소), 허서구(영건축), 송인호(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씨가 참가한다.

문의: 0346-592-3336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99년 기말 작품전

12월 20부터 12월 24일까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의 기말 작품 전시회가 12월 20일(월)부터 12월 24일(금)까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건축전문대학원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12개 스튜디오로 나뉘어 전시되며 12월 20일 14시부터 각 스튜디오 별 공개 크리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스튜디오는 다음과 같다.

문의: 02-450-3286

스튜디오1 윤승중/미래지향적 공동체 주택
스튜디오2 김 원/최소규모의 도시집합 주택

스튜디오3 이정근/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
스튜디오4 김인철/안양시 대동서점 계획
스튜디오5 이상현/도시가로와 벽

스튜디오6 유 건/압구정동 문화의 거리 진단 및 활성화 계획

스튜디오7 전시형/전시공간 디자인

스튜디오8 노정호/테마별 주거공간 디자인

스튜디오9 김개천/천지지도 가일언이진야

스튜디오10황옥채/상업공간 및 주거

스튜디오11장해철/유치원 계획

스튜디오12이호중/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미래주거공간의 변화

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 설립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양대학교는 뉴밀레니엄을 맞아하여 한국건축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건축설계와 건축역사, 이론, 비평의 두 분야로 구성된 건축디자인대학원을 설립하고 200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문의: 02-2290-0258

제9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2000년 4월 30일 마감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여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의 요강이 발표됐다. 수령자는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제공받는다. 자격은 건축전공자로서 국내 대학(교,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금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만 40세 미만이어야 한다. (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포트폴리오 심사 및 인터뷰를 거친후 최종 1명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마감은 2000년 4월 30일이다.

문의: 02-588-2701~5

티에스케이 건축사사무소

제8기 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 제2회 목조건축 전문지도자 과 정 수강생모집

국민대 목조건축 디자인센터에서

국민대학교 목조건축 디자인센터에서는 목조건축의 개론 및 구조의 이해, 주택문화환경, 재료의 특성, 모형제작, 한국도시근교의 미래주택, 목조건축 시공 및 경제성, 시공기술 등을 교육하는 '제8기 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과 '제2회 목조건축 전문지도자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8기 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은 2000년 1월 개강하여 12주 교육하고, 제2회 목조건축 전문지도자 과정은 2000년 3월에 입학하여 1년과정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각 대학 건축과 교수 및 강사, 건축설계사무소 경력자, 주택건설업체 및 주택관리업체 종사자, 주택 재료 및 인테리어업체 종사자로 목조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목조건축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제7회 공동주택학생공모전

2000년 4월 7일 마감

(주)현대산업개발에서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에서 후원하는 제7회 공동주택학생공모전 일정이 발표됐다. 공모전의 전체적인 방향은 친환경개발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 창조를 위한 'Health of HUMAN, Health of EARTH'다. '외부공간이 실내로 유입된다면'의 경우와 '한국의 전통 마당개념을 공동주택 단지계획에 적용한다면'의 경우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응모하게 되어 있다. 이번 공모전은 새로운

단위주호 및 주동, 그리고 배치계획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작품접수: 2000년 4월 7일
- 발표: 2000년 4월 15일
- 시상식: 2000년 5월 10일
- 전시: 2000년 5월 10일~21일
- 문의: 02-519-9373

제2회 한아도시설계 학생공모전

2000년 2월 15일 마감

(주)한아도시연구소가 주최하고 현대산업개발이 후원하는 제2회 한아도시설계 학생공모전일정이 발표됐다. 건축관련학과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전원도시 중심지 설계다. 대상부지는 수도권내 지역이고, 입상작 4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지원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자격은 1인 또는 5인이하 공동출품이 가능하다. 2000년 2월 15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586-0407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건축강좌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주제로

민예총에서는 2000년 1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주제로 건축강좌를 개설한다. 강좌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1월 15일

공공 공간의 역사/이상현(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서양의 공공 영역 및 공공성 측면에서 서양의 도시사를 재조명, 한국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서울 도시 구조의 변천사
· 2000년 1월 22일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이상현

;건축가에게 있어서 패트론과 클라이언트란?, 건축가의 역할 및 의무의 변천사, 건축가의 임무

- 2000년 1월 29일

건축, 도시, 그리고 공공성1/정 석(시정개발연구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 및 도시설계 방법론

- 2000년 2월 12일

건축, 도시, 그리고 공공성2/김봉호(전 북대 법대 교수)

;법제적 관점에서 본 공간의 공공성

- 2000년 2월 19일

건축, 도시, 그리고 공공성3/기웅,예주,다을,희림건축 공동발표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건축가의 노력과 그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 2000년 2월 26일

결론-공공공간의 종대를 위하여/이상현

문의 및 접수: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02-739-6854

현실비평연구소, 제8회 테마건축가행

답사를 통한 '세계건축사' 시리즈

현실비평연구소에서 답사를 통한 '세계건축사' 시리즈를 마련한다. 서울은행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세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모집인원수 15명의 경우로만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1식(아침식사)제공, 보험료, 자료비, 출국세, 공항세, 입장료, 가이드비, 유레일 패

스, 여행자 보험(사고시 1억 이상 보상
보험) 등이 포함됐다. 각각 일정과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문의: 02-372-7732, 372-7739

첫 번째 이야기

-일정: 2000년 2월 4일부터 19일까지
(15박 16일 예정코스로 설날연휴 포함)

-기행내용: 로두, 칼 프리드리히 쉰켈,
고트프리트 쟈퍼, 호레이쇼 그린노, 이거
스터드 웰버, 존 러 스킨, 뷔올레 르 뒤고,
샤를르 가르니에, 루진, 알렉산더 귀스파
브 에펠, 윌리엄 모리스, 롬, 안토니오 가
우디, 오토 바그너, 헨리 홀슨 리처드슨,
헨드릭 페트루스 베를라헤, 지오폰티, 찰
즈 프랜시스 보이지, 헤르만 무테지우스,
존 월번 루트, 루돌프 슈타이너, 빅토르
오르파, 앙리 반 드 벨트, 페터 베렌스,
엑토르 기마르, 맥킨토쉬, 아돌프 로스,
요셉 호프만, 사이리넨, 로베르 마이아
르, 오귀스트 베레, 브루노 타우트, 발터
그로피우스, 헬무트 얀, 테오 반 도스부
르그, 군나르 아스플룬드, 루트비히 미스
반 데로에, 르 꼬르뷔제, 토마스 리트벨
트, 아뜨리에 66, 에리히 멘델존, 한네스
마이어, 네르비, 주 제 페 데 락 니,
한스 샤룬운, 마르셀 브로이어, 아일린
그레이, 카를로 스카르바, 아이 엠 베이,
프라이 오토, 리카르도 보필, 찰스 무어,
노만 포스터, 필립 스타크, 안도 다다오, 포
잠박, 마크 맥, 스티븐 홀, 앙리 시리아
니, 제임스 스틸링, 한스 홀라인, 슈퍼 스
튜디오, 웅거스, 시저 펠리, 랄프 여스킨,
알도 로시, 조지오 그라시, 마리오 보타,
브루노 라이히틀, 리처드 로저스, 파비오
라인하르트, 요셉 폴 클라이후에스, 레온
크리어, 렘 쿨하스, OMA, 루시앵 크롤,
프랭크 게리, 리처드 마이어, 벤니쉬, 베
르나드 추미, 피터 아이젠만, 자하 하디
드, 쿠프 힘멜브라우, 등

-코스: 서울에서 출발하여 홍콩, 런던,
브뤼셀, 암스테르담, 베를린, 뉘리히, 빈,
피렌체, 로마, 베니스, 바르셀로나, 파리,
홍콩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 각 나라의 수도만을 답사하는 것이 아
니고, 한 나라를 방문시 수도뿐 아니라
중요 건축물이 있는 그 나라의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표기상 한 나라의 대표 도
시만을 기재했음.)

-참가경비: 315만원

-참가신청마감: 1999년 12월 29일까지
(신청시 참가 신청금 50만원 납부)

-참가비 최종납부마감: 2000년 1월 10
일까지

두 번째 이야기

-일정: 2000년 2월 4일부터 10일까지
(6박 7일 예정코스로 설날연휴 포함)

-기행내용: 안도 타다오, 다카마츠 신,
르 꼬르뷔제, 아라타 이소자키, 구로카와
키쇼, 다케나카,

다케야마 세이, 자하 하디드, 하세가와
이츠코, 이따미 준, 이토 도요, 오사무,
하세가와 우시다, 당케 겐조, 후미코 마
끼, 다케야마 미노루, 니켄 그룹, 오에 히
로시, 스즈키 에드워드, 리파엘 비놀리,
W.M 볼리스, 오타니 사치오, 렌조 피아
노, 이즈에 칸, 쿠프 힘멜브라우, 시저 페
리, 노만 포스터, 마리오 보타, 마크 맥,
필립 스타크, 캐서린 핀드레이, 피터 아이
젠만, 마이클 그레이브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알도 로시, 옥스포드 그룹, 렘 쿨
하스, 하라 히로시, 포잠박, 프랭크 게리,
데이빗 치퍼필드, 스티븐 홀, 타이거 맨,
오스카 투스체츠

※ 실제, 렘 쿨하스, 하라 히로시, 프랭크
게리, 데이빗 치퍼필드, 스티븐 홀, 마크
맥, 타이거 맨, 오스카 투스체츠, 알도 로
시, 오사무, 포잠박 등의 건축물은 코스
상에 없는 로케이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인 '양질전이'
코스는 주축축이 그 동안 7년 전부터 행
해온 프로그램으로 다소 안정적인 장점
이 있다면 두 번째 프로그램은 안도 타다
오와 다카마츠 신을 비롯하여 일본의 최
신 유명 건축물까지를 양적으로 볼 수 있
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코스: 서울에서 출발하여 동경, 오사카,
동경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도 동경
 시내 곳곳을 보다 양적으로 빠뜨리지 않
고 보는 답사가 될 것입니다.

-참가경비: 119만원

-참가신청마감: 1999년 12월 29일까지

(신청시 참가 신청금 30만원 납부)

-참가비 최종납부마감: 2000년 1월 10
일까지

세 번째 이야기 / 7년의 노하우 '양질전이' 프로젝트

-일정: 2000년 2월 4일부터 10일까지
(6박 7일 예정코스로 설날연휴 포함)

-기행내용: 안도 타다오, 다카마츠 신,
르 꼬르뷔제, 아라타 이소자키, 구로카와
키쇼, 다케나카,

다케야마 세이, 자하 하디드, 하세가와
이츠코, 이따미 준, 이토 도요, 하세가와
우시다,

당케 겐조, 후미코 마끼, 다케야마 미노
루, 니켄 그룹, 오에 히로시, 스즈키 에드
워드,

리파엘 비놀리, 이즈에 칸, W.M 볼리
스, 오타니 사치오, 렌조 피아노, 쿠프 힘
멜브로우, 시저 페리, 노만 포스터, 마리오
보타, 캐서린 핀드레이, 피터 아이젠
만, 옥스포드 그룹, 마이클 그레이브스,
필립 스타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렘 쿨
하스, 하라 히로시, 포잠박, 프랭크 게리, 데 이
빗 치퍼필드, 마크 맥, 스티븐 홀, 타이거
맨, 오스카 투스체츠, 알도 로시, 오사무,
포잠박

※ 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인 '양질전이'
코스는 주축축이 그 동안 7년 전부터 행
해 온 프로그램으로 다소 안정적인 장점
이 있으며, 안도 타다오와 다카마츠 신의
초기 작업부터 총체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7년여 동안 해 온 노하우로 타이
틀만 '양질전이' 지 보다 세련되고 차분
히 세계의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두
루 다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동안 다녀왔던 많은 분들로부터 끊임
없는 요청이 있을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답사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번
쯤 해외 건축답사를 해 본 분들에게 보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스: 서울에서 출발하여 동경, 오사카,
교토, 고베, 히메지, 후쿠오카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참가경비: 149만원

-참가신청마감: 1999년 12월 29일까지
(신청시 참가 신청금 30만원 납부)

현실비평연구소, 고건축답사자 모집

신청마감 2000년 1월 28일

현실비평연구소에서는 옛 것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요즘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건축 답사를 기획했다. 이번 고건축 답사는 매달 1회씩 아홉번에 걸쳐 다니게 된다. 학생은 무료(대학원생제외)이며, 일반인은 신청금 3만원을 내면 된다. 신청마감은 2000년 1월 28일이다. 이번 답사에 대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답사일정

- 2월 26일(토)~27일(일) / 부석사, 소수서원, 청암정
- 3월 26일(일) / 수덕사, 추사고택, 개심사
- 4월 22일(토)~23일(일) /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
- 5월 27일(토)~28일(일) / 승광사, 선암사, 낙안성 마을
- 6월 25일(일) / 외암리 민속마을, 윤중고택, 김기응 가옥, 쌍계사
- 7월 16일(일)~17일(월) / 양동마을, 독락당, 옥산서원,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봉정사
- 8월 26일(토)~27일(일) / 소재원, 취가정, 환벽당, 식영정, 명옥헌
- 9월 23일(토)~24일(일) / 오죽헌, 객사문, 선교장, 해운정
- 10월 22일(일) / 전등사, 정수사, 참성단

포항공항 확장공사, 까치건축 당선

포항공항 확장공사 프로젝트는 지난 8월 탄기현상설계로 진행되어 현대건설, 한진건설 컨소시엄인 까치건축(김정식)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10월 발표됐다. 영종도국제공항을 계기로 지난 1994년에 설립된 까치건축은 영종도국제공항 설계에 참가한 법건축, 희림건축, 정림건축, 삼우설계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로 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시설 전문 설계회사로써 전망을 가지고 설립됐다.

「아카시아북」 판매에 따른 안내

양장본(국배판)232쪽(컬러)
정가 3만 5천원(특별한인가1만 8천원)

「아카시아북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은 지난 95년 우리협회와 도서출판 발언이 공동으로 편찬한 것으로 한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 15여개국 아시아구가를 대표하는 80여 건축가들의 빼어난 현대 건축물들을 600여컷의 컬러화보 및 도면자료와 함께 건축가들의 설계개념, 철학을 충실히 담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고 등의 건축가와 작품소개는 다른 자료에서는 보기힘든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발언에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할인기간으로 설정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정가의 50%수준인 1만8천원에 공급한다.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T:02-581-5711 F:02586-8823)

도서출판 발언

(T:02-929-3546 F:02-929-3548)

신간안내

한국건축의 재발견3 - 이땅에 새겨진 정신
건축색채론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실무 및 Design
RC 프로그램사용 매뉴얼

◇한국건축의 재발견3 - 이 땅에 새겨진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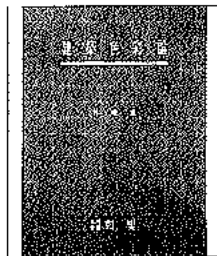
월간 이상건축에 3년간 연재되었던 「한국건축 재발견」시리즈가 완간되었다. 1권인 「시대를 담는 그릇」이 건축을 통한 역사읽기를 시도하였다면, 2권인 「삶과 삶의 공간」은 한국건축의 다양한 전통 읽기이다. 개인주택에서 마을까지, 석굴사원에서 정원까지, 1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국건축의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정신과 다양한 기능들을 다루었다.

3권인 「이 땅에 새겨진 정신」은 주로 서원과 사찰이라는 유교와 불교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적 기능이나 개별 건물에 대한 설명이 아닌, 한국건축 전반에 흐르는 정신활동에 대한 궤적을 추적하고, 그 정신들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조직되어 건축물이나 공간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론적 해석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건축인들에게는 전문적인 깨달음에 도움이 되기를, 일반인들에게는 한국문화 전체에 깔려있는 정신활동의 중요함이기도 하고 있다. 20여년의 준비와 3년의 재 답사를 통한 한국건축의 재발견의 대장정의 결과물인 「한국건축 재발견」시리즈는 한국전통건

축과 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건축적 자산과 정신을 계승하여 단절된 우리 문화를 건축이라는 커를 통해 재 발견하고자 하며, 서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문화의 정신과 얼을 고취하고자 했다. 기존의 전통에 대한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지만 대부분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어려워서 전공자 이외는 읽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국건축 재발견」시리즈는 건축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쓰여졌다. 특히 각각의 건축물별로 테마를 먼저 선정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전통건축의 전체 맥락과 구성,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으로 일맥 상통하여 집필되어졌다. 한국건축에 대한 집대성의 결과물인 「한국건축 재발견」1,2,3권은 20세기 한국건축계의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각권별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우수도서 선정과 대한출판협회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필자인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교수는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우리건축을 독보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건축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약 1,200페이지 분량과 생생한 현장사진, 실측도면 등으로 엮었다.

김봉렬지음/330쪽/1만8천원/(주)이상건축 발행(02-549-5383)

◇건축색채론



이 책은 필자가 1996년에 상재(上梓)한 「건축의 색 도시의 색」과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으로 전자는 건축과 도시색채에 관한 에세이 형식의 글들을 엮은 것으로 같은 분야의 연구논문을 주로 수록한 것이다. 이 책은 제1편 건축 색채계획 방법론, 제2편 한국인의 색채선호, 제3편 색채의 기억성, 제4편 전통색·상징색과 색채학 교육 등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의 「건축색채계획의 방법」은 논문의 성격보다는 색채 설계지침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며, 제4편의 「현대 환경디자인에 있어서의 전통색과 지역색」도 논문이 아닌 강연초록임을 부기하고 있다. 또 제4편의 「색채의 상징성」은 엄격하게는 건축색채를 다룬 것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의 내외부 디자인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같이 수록하였다고 한다. 제4편의 「대학 건축학 과정에서의 색채학 교육」도 논문이 아닌 하나의 제안임을 밝히고 있다.

박돈서지음/439쪽/4만5천원/도서출판한빛 발행(02-2279-7834)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실무 및 Design RC 프로그램사용매뉴얼



이 책은 철근콘크리트의 보, 기둥, 슬래브, 기초, 벽체 및 기타부재에 대한 부재설계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정확한 자문 및 검토로 공인된 설계절차를 확립하여 구조 설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재설계 매뉴얼을 작성하고 동시에 그 설계절차를 적용한 부재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화된 설계도구를 제공하고자 발간됐다. 이 책은 1999년에 새로이 개정된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부재별 설계절차를 요약하고 구체적인 단계별 설계절차 및 설계예제 등을 작성하였다. 특히 부록에는 각 부재에 대한 설계 흐름도를 추가로 수록하여 프로그램의 공인성을 확보하고, 부재설계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진 구조설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부재별 설계절차와 예제의 작성시에도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지음/실무서 532쪽, 프로그래매뉴얼216쪽+CD/세트4만원/도서출판 기문당 발행(02-2295-6171)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대구시립미술관

Daegu Municipal Museum

대구광역시에는 대구 도심으로부터 동남쪽 고산 신주 택지사이 10km지점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대구 대공원 예정지역의 문화 예술단지에 놓일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10월 27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21개 업체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4개 업체가 입상작에 올랐다. 당선작으로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주)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홍호웅)의 안이 선정되어 실시설계권이 부여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주)삼우설계(김창수+박승+한종률)+(주)현대건축건축사사무소(김무권)의 안이, 가작으로는 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윤철준)의 안과 김덕구+건축사사무소 이도건축(김상철)의 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설계경기에는 분야별로 총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건축계획 부문에는 서상우 심사위원장(국민대), 김광현(서울대), 최무혁(경북대), 최재필(서울대), 김형우(홍익대), 김진균(서울대) 교수가, 건축구조 부문에 김상대(고려대), 홍성목(서울대), 건축의장부문에는 김용승(한양대), 건축설비에 이현우(광운대), 조경에는 김용수(경북대), 미술부문에는 김종근(부산시립미술관장), 민병도(대구시 미협지회장)씨가 각각 맡았다.

총공사비 500억원이 들어갈 이번 사업은 2003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는 11월에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4~5월중으로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 당선작 / (주)희림건축(이영희)+(주)동우건축(홍호웅)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375번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대지면적	71,500㎡
건축면적	10,262㎡
연면적	18,581㎡
건폐율	14.4%
용적률	26%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계획총괄	희림종합건축 - 정영규, 장윤규, 임종영
계획팀	조남승, 옥순웅, 박제성, 박병규, 고은형, 송주영(희림 건축), 박노욱(동우건축)

단순한 미술관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장으로서의 미술관, 자연에 대응하는 랜드스케이프로서의 미술관, 아트센터로서의 미술관, 열린 광장으로서의 미술관으로 설정하였다.

대지의 구축

계곡으로 양분된 경사지에 대지의 표피를 따라서 단형의 새로운 표피를 구축한다. 표피는 랜드스케이프와 표지이기도 하면서, 건축의 표피이다. 기승전결의 단형의 대지는 건축의 표피가 끝나는 곳에서 자연으로 남겨지고 여기에 건축되는 미술관을 위치시킨다.

떠있는 선적인 매스

계곡에 의해서 양분된 대지를 선적인 매스로 연결하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선적인 매스는 미술관의 전시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모듈을 바탕으로 한다. 선적인 매스는 대지에 뿌려지는 장소에 따라서, 다리 등 랜드스케이프가 되기도 하고, 계곡 위에 떠있는 매스가 되기도 하고, 계곡과 반응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기도 한다. 선적인 매스는 점의 조절에 의해서 하나의 공간, 여러 개의 공간 등 다양한 요구를 수행하는 융통성의 공간을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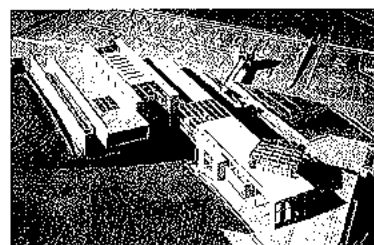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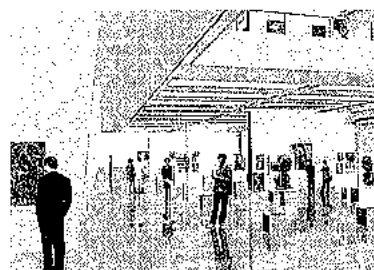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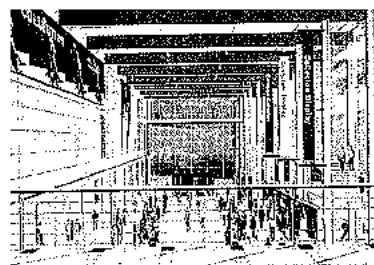
전통 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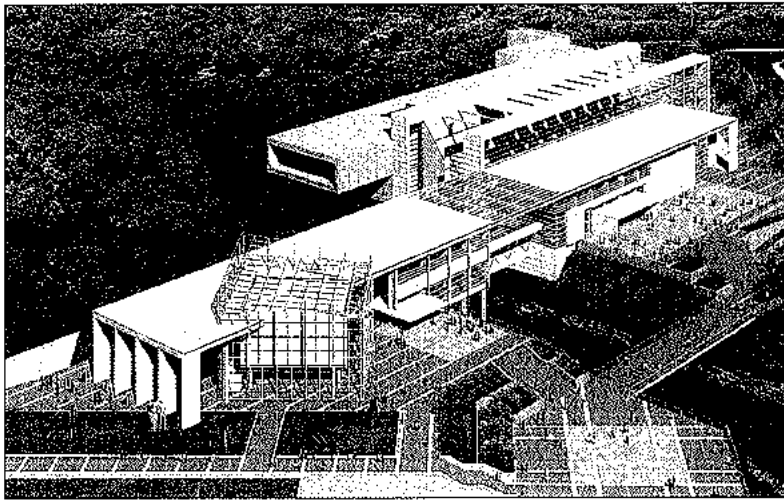
전통 혹은 한국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논리라 생각했다. 설명되지 않는 한 전통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부석사, 해인사, 종묘, 향단, 대구 동화사 등에서 체험했던 전통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숨겨 놓기로 한다.

즐김으로서의 풍경

자연의 계곡과 주변의 산림은 좋은 풍경을 제공한다. 풍경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스런 미술관에서의 움직임과 휴식공간의 설정에 의해서 즐기는 풍경을 설정한다. 내부공간의 미술적 체험이 외부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글 / 희림건축)





▶ 우수작 / 삼우설계(김창수, 박 승, 한 중률)+현대건축(김무권)

건축면적	5,965.9㎡
연면적	17,972.4㎡
건폐율	8.34%
용적률	17.1%
규모	지하2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금속패널, 복층유리

뉴욕구겐하임미술관과 MoMA를 방문하였을 때, 많고 좋은 작품들이 건축공간과 어우러져 삶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자체 소장품만으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미술관들의 소장품 수와 비교해 볼 때 부럽기 그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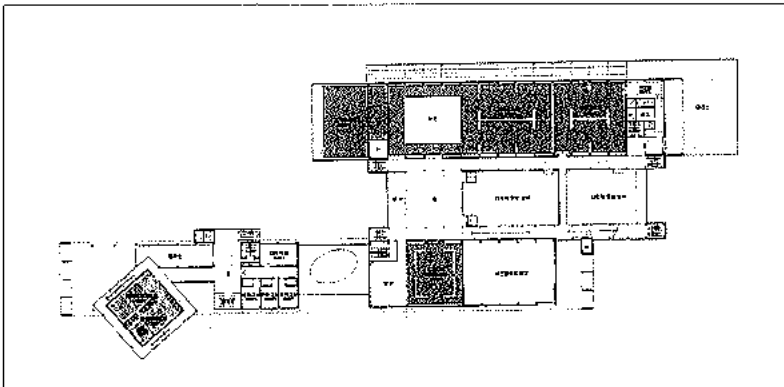
대구시립미술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개관후 한동안은 기획전사 위주로 운영되리라 가정했고, 필연적으로 국내외의 로드쇼를 유치하면서 궁극적으로 대형화, 실험화되는 추세의 현대미술이 주로 상설전시되리라 보고았다. 원칙적으로 미술관의 설계는 그 소장품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설계의 방향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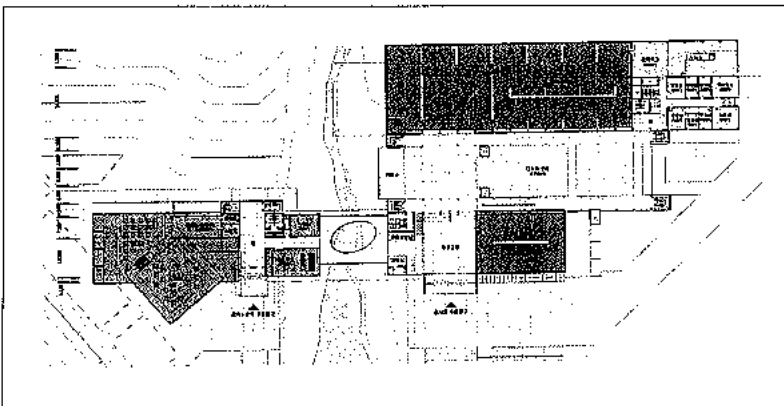
첫째, 작가와 큐레이터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도전하게 하여 창조적인 전시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질과 형태의 전시공간 구성, 둘째, 미술이 스스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공공공간의 구성이다. 미술관을 찾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바로 그 자체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열린 미술관, 건축의 에너지가 전시와 관람객과 동화되고 증폭되어 예술의 자유로움으로 분출되는 장소의 형상이다.

현학적이고 논리적이기 이전에 개개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일탈하여 자유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다가올 미술관에 대한 예측은 이러한 인본적인 사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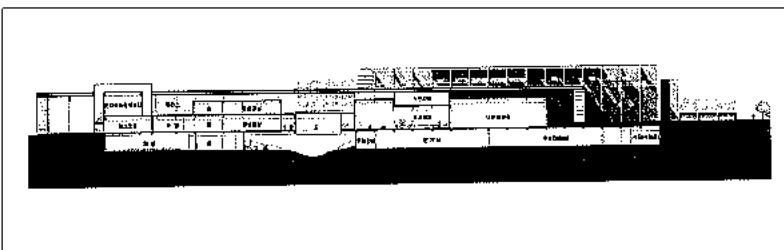
비록 미완성이지만 미래의 미술관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품고서 덤벼들었던 우리 모든 직원들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한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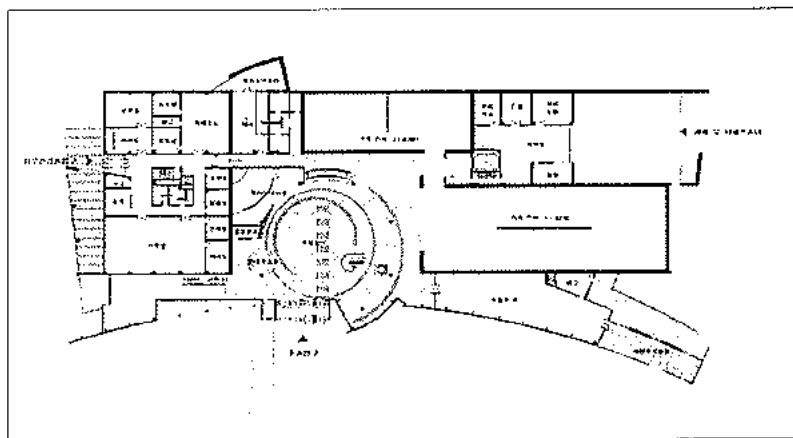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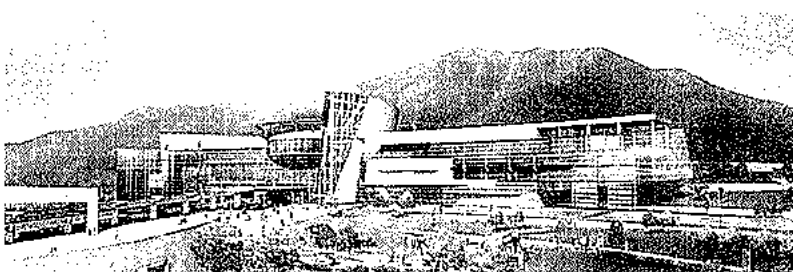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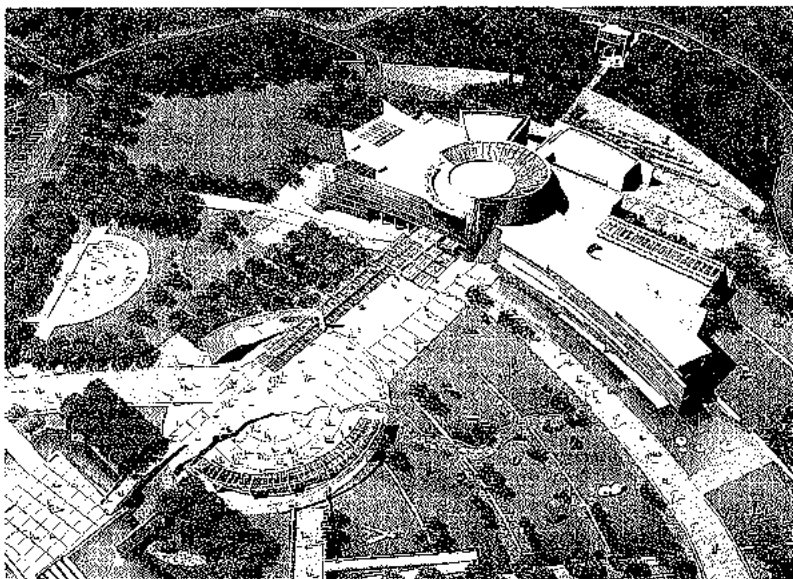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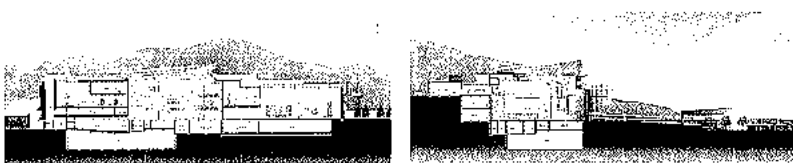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1층 단면도



단면도

통일의 문 광장

Plaza for Unification

'99건축문화의 해 강원지역추진위원회는 올해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고 다가올 새 천년에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난 6월 '통일의 문 광장'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 그 심사결과를 지난 11월 초 발표하였다.

이번 설계경기는 남북의 경제교류,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을 위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활용함과 동시에 관광자원화 한다는 국가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계획지침에 있어서 '문'의 성격을 띄는 광장계획이라는 점과 더불어 계획의 규모에 비해 응모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하여 설계사무소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폭넓은 참여가 유도되었을 뿐 아니라, 계획대지를 임의로 선정케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목을 끌었다.

참가신청을 한 188개 팀 중 약 17개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된 결과, (주)아도무 종합건축사사무소(장석웅)의 안이 당선되었고, 우수작으로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장양순)의 안이, 박찬배+윤정희(서울산업대학교 건축설계학과)의 2개 작품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유희준(전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강석원(전 건축가협회회장), 김무언(대한건축사협회부회장), 이승준(삼척산업대 건축공학과교수), 이종근(강원도의원, 건축사), 홍형식(강원도청 건축지도계장), 이국남(국남건축사사무소), 홍영배(대하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최건용(강원도청 문화예술과장), 김남각(강원대 건축공학과교수, 추진위원)씨가 맡았다.

▶ 당선작 / (주)아도무건축(장석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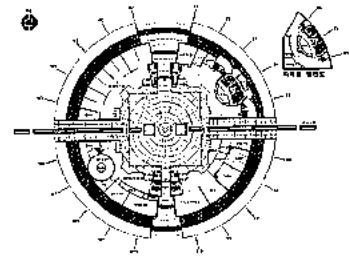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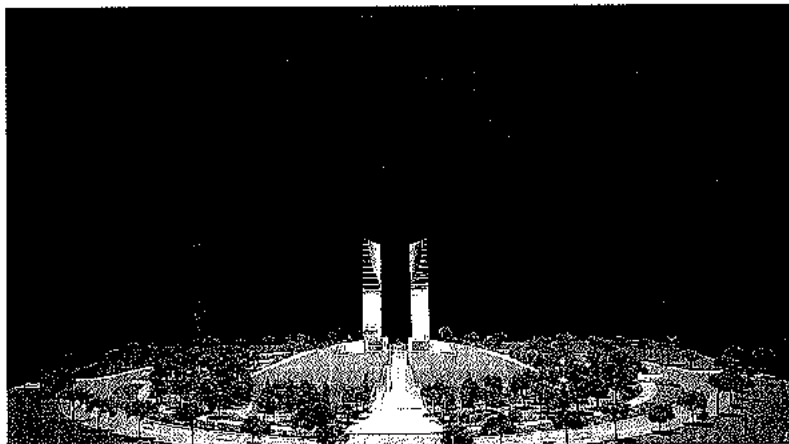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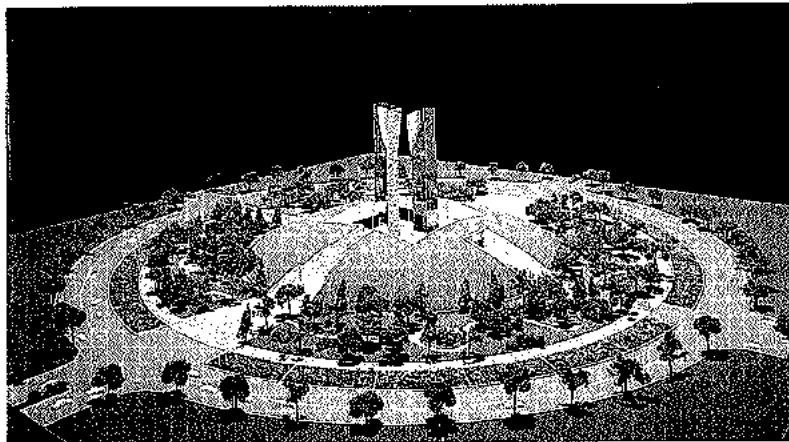
위치	강원도 고성군
대지면적	30,666.47㎡
건축면적	4,497㎡
연면적	5,185.79㎡
건폐율	14.66%
용적률	16.91%
구조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조 상징조형물 - 철골구조
외부 마감	상징조형물 - 스테인리스스틸 미러, 스테인리스스틸 헤어라인, 화강석혹두기
	창호 - 알루미늄코팅바, 컬러북 충유리
	외벽 - 화강석
	지붕 - 잔디
설계팀	이충식, 김소영
CG	GDS - 박광수, 김태훈

남북분단과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역사는 민족이 존재하는 한 지워질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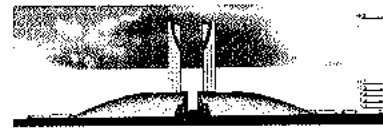
아픔의 현실이다. 삶과 죽음, 희망과 좌절을 포괄적으로 돔(Dome)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해치고 솟아 오르는 두 장승의 형태를 기본 설계개념으로 한다. 통일의 문이 상징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야 했다. '문'이라는 것과 '통일염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계획안에서는 통일의 문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경험하고 생각하며 휴식할 수 있는 장(場)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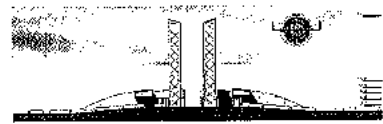
남과 북, 동과 서로 연결되는 좁은 통로의 좌우에는 8.15해방과 더불어 6.25전쟁 등 수많은 남과 북의 갈등과 저주하는 모습의 형상이 화강석 부조로 처리되고 계단으로 오르면 정사각형의 넓은 광장에 현대적으로 조형화한 두 장승이 솟아 있고 주변에는 공연, 영상, 전시, 판매, 휴식 등의 시설을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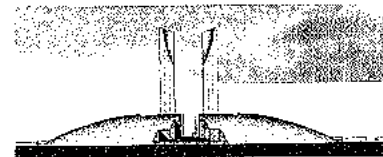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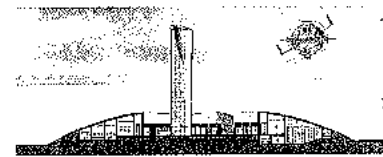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횡단면도



북측입면도



주단면도

▶ 우수작 / 동명건축(장양순)

대지면적 30,000평~50,000평
건축면적 667평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사인장 현수식 파이프 트러스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마감 북층유리THK24, 화강석 활석
치장 화강석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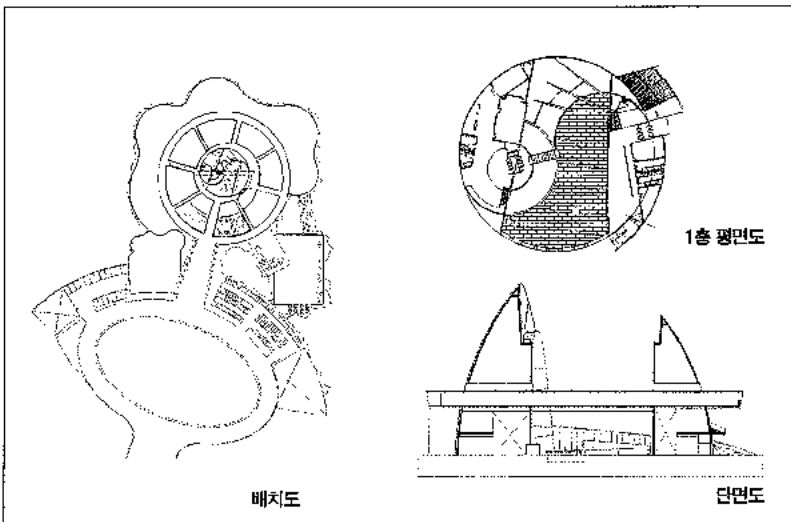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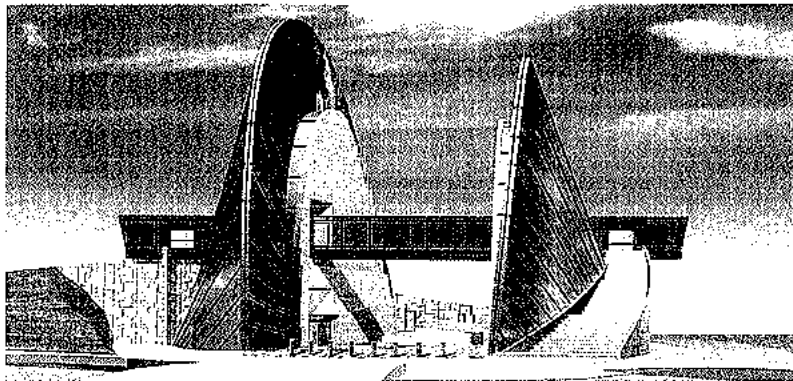
'태극'이 한국의 국기이기 이전에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발전의 이치라는 점에서 설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공존성과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의 문은 이러한 근원성과 통일의 공존성, 전체성을 지향하는 태극의 바탕 위에서 그곳에 품은 알과 물로부터 시작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특히 알은 고구려·신라·가락국 등 우리 민족국가 건국자들의 난생설화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알의 어원은 태양으로, 천제의 자이

니 더 올라가 국조 단군에 연원한다.

천지분리 이전의 혼돈에서 우주만을 근원인 태극이 생명의 근원인 알을 품어 탄생하니 우리는 한민족이다.

강원도에 위치한 금강산과 설악산은 국토의 등뼈인 태백대간에 있어 남북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분단 강원도에 소재하는 남북의 산이기도 하다. 이를 두 기둥으로 분단과 지역적 특성을 표현하고 이에 삼팔선과 민족의 단합된 힘을 표출한 3.1운동의 역사성을 금강산과 설악산의 높이로 설정, 태극의 양단에 놓아 기념성을 제고하고, 그 위에 통일의 기교를 놓아 통일의 문을 세운다. 분단전 조선의 8도와 태극의 8괘를 상징하는 8개의 크고 작은 광장으로 이를 감싸고 8갈래 길을 통해 '모여서 화합과 단결'을 이루고 외선형의 무한대 선을 계단과 경사로 및 못으로 설정하여 무한히 뻗어가는 한민족의 웅혼한 모습을 표현한다.

(글/ 동명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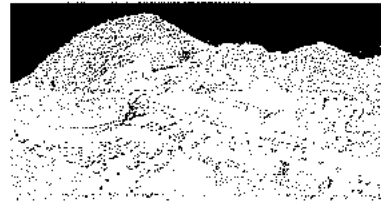


청도 온천 관광단지

Chungdo Spa Tourist Complex

소싸움 경기장은 민자를 유치하여 (주)건정건축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상 설계를 과업 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 당선작 / (주)건정건축 (노형래)



전체 모형

대지위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산 202번지 일원

대지면적 101,000㎡(30,55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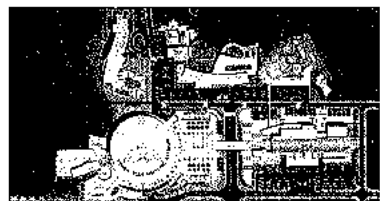
건축규모

종합온천장 11,843.00㎡
(지하1층/지상3층)

호텔 31,431.14㎡
(지하2층/지상10층)

쇼핑몰 31,772.64㎡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5,046.78㎡
(22,701.65평)



전체 배치도

계획개요

온천부

종합온천, 노천탕, 가족온천, 수영장, 연회식, 오락장, 놀이동산, 주차장 등

호텔부

객실, 식당, 연회장, 나이트클럽, 카지노, 주차장 등

상가부

쇼핑몰, 먹거리 장터, 할인매장, 주차장 등

계획개념

종합온천장

온천은 가족탕과 종합 온천으로 나누고, 한적하고 깊숙한 곳에 가족탕을 두고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온천을 가족탕과 수영장의 사이에 위치시킨다. 수영장은 자연 채광과 놀이동산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남측에 위치시킨다.

호텔

호텔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대지의 북동측에 배치하고 등고선을 고려한 MASS형태로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자연 친화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한다.

쇼핑몰

쇼핑 몰은 소싸움장의 관람객과 주변 시설들의 이용객이 동시에 이용하기에 편리한 부지 정면부에 위치시켜 지역주민 등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

종합 온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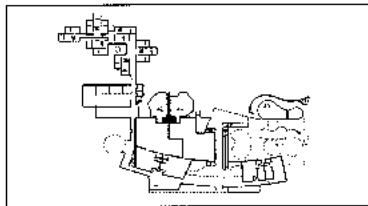
온천장 배치도

자연 친화적 종합 온천

살내 온천과 노천 온천을 동시에 즐기는 전천후 온천탕으로 옥외 자연과 호흡하는 레저용 시설, 영화 관람, 오락장 및 이벤트 행사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연출

자연과 호흡하는 수영장

살내 수영장과 옥외 수영장을 유기적인 연계성을 두고 기존 "용소"라는 연못 주변에 산책 및 황토 맨발 등반코스를 두어 자연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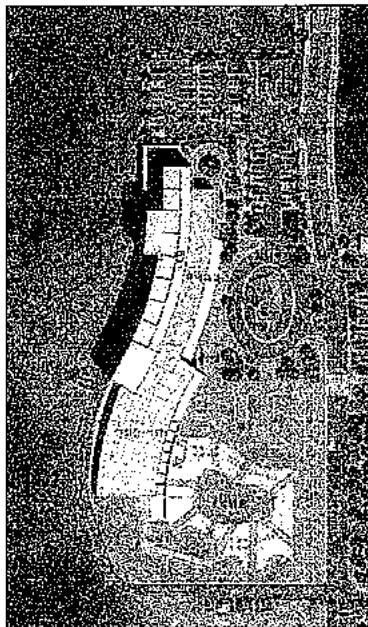


온천장 평면도



온천장 모형 사진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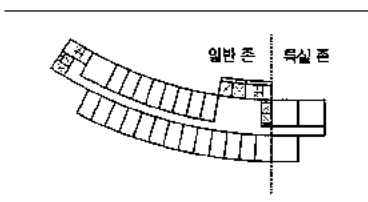
호텔 배치도

쾌적한 숙박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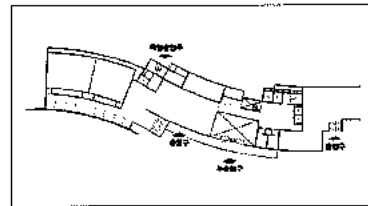
기존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수용하여 쾌적한 숙박공간 형성

효율적인 동선 계획과 조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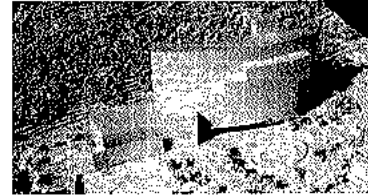
숙박공간, 위락시설공간, 서비스 공간으로 조닝하여 프라이버시와 효율적인 시설 이용추구



호텔 4~9층 평면도



호텔 1층 평면도



호텔 모형사진

쇼핑 몰

다양한 요구의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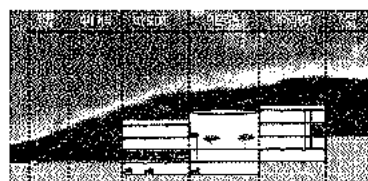
시설들의 이미지 특화를 통해 공간의 변화를 추구하고 연령대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형성

내, 외부의 보행자 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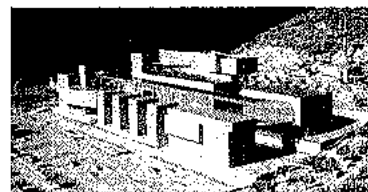
길과 마당을 입체화하여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여 쾌적한 쇼핑공간 창출



쇼핑 몰 동선 계획



쇼핑 몰 조닝 계획



쇼핑 몰 모형사진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Domus

a+u

建築文化

Architecture

1999년 10월호

이번 호는
스티븐 홀
의 조각 같
은 건축을
소개하였
으며, 근작
으로는
Garofalo



Architects의 롱아일랜드 뉴욕장로
교회와 Julie Snow Architects의
South Dakota, Jerstad Center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르네상스
건축의 장식과 규범의 문제를 다룬
The Architectural Treatise in the
Italian Renaissance를 소개하였
다.

■ 스티븐 홀의 조각 공원



캔자스 시티. Nelson-Atkins 박물관의
중축안으로서 크리스탈로 된 조각과 같
은 것을 늘어 놓았다. 광학렌즈에 비유된
일곱 개의 경사진 형태의 유리 박스는
140,000ft² 면적의 지하 갤러리와 그 밖
의 시설에 자연광을 제공한다. 스티븐 홀
은 기존의 고전 양식의 석조 건물에 형태
적 대비를 위하여 이러한 크리스탈과 같
은 형태를 고안하였다. 각 유리박스 중심
에는 "숨쉬는 T"라고 이름 붙여진 T자형

의 구조체가 지지하고 있다. 구조체는 태
양광선을 반사시켜 빛이 갤러리 내부 깊
숙히 들어오도록 한다. 공기는 이 구조체
벽으로부터 아래층의 서비스 시설까지
순환하여 자연적으로 공기조화가 되도록
하였다. 다른 반사각을 가진 이중의 유리
층은 갤러리로 유입되는 자연광에 영향
을 미치며 도시, 박물관 그리고 조각공원
으로의 조망을 가능케한다. 두 층의 유리
면 사이에 끼인 전자 스크린은 태양광을
선택적으로 차단한다.

■ 근작 소개

▶ Garofalo Architects의 롱아일랜드
뉴욕장로교회

LA의 Greg Lynn, 시카고의 Doug
Garofalo 그리고 신시내티의 Michael
McInturf는 각 도시에서 스크린을 통해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세
탁공장이던 건물을 개조하여 짓는 것이
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 유형을 기대하
기 힘들었다. 신자들이 대부분 자동차로
예배를 보러 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등지
고 있던 공장 건물의 향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입구가 바깥에 의해서 예배당은
한층 반 높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브리
지와 계단이 주차장과 전면 창으로 이루
어진 로비를 연결시키고 있다. 공장 건물
의 이층에 내부 쉼을 두어 성소를 형성하
였는데, 라디오 시티 뮤직홀을 연상시키
는 주름진 천장형태는 컴퓨터 모델링 작
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예배당 북측
의 캐노피는 예배당 외부 출구를 형성하
며, 캐노피의 측면 프레임에 맨하탄 스카
이라인의 원경이 잡히게 된다.

▶ Julie Snow Architects의 South
Dakota, Jerstad Center



노인과 장애자에게 주택과 그 밖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Evangelical Lutheran
Good Samaritan Society가 근로자
교육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였다. 1996

년 이 재단이 Julie Snow에게 설계의뢰를 맡겼을 때 이미 고속도로는 대지의 서측부를 가로지른 상태였으며, 남서P. 코너에 자리잡은 기존의 벽돌 사무동도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센터는 인공호수를 가운데 두고 남동쪽이 열린 L 자형으로 설계되었다.

■ 북 리뷰

기둥, 기초, 엔타블레처 그리고 장식적 디테일에 고전 건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 건축이론은 장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기반하여 이태리 르네상스의 건축 이론을 다룬 책, Alina A. Payne의 The Architectural Treatise in the Italian Renaissance: Architectural Invention, Ornament, and Literary Culture를 소개하였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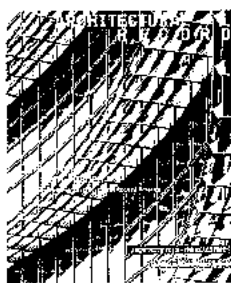
▶Hell's Kitchen South(우범지구)로 알려진 맨하탄 서부가 최근 두 개의 도시 계획에 의해 그 발전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세계의 유명 건축가가 참여한 현상공모의 각 계획안 소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모더니즘에 대해 Richard Ingersoll의 글을 실었으며, 아울러 라파엘 모네오의 스페인 Murcia시청, Cruz & Ortiz Architects의 세비야 도서관, Alvaro Siza의 Alicante 대학을 자세히 다루었다.

그 밖에 기술적 정보로서 ▶고갈되었던 멕시코 본지의 7개의 호수를 되살리는 프로젝트 ▶나치에 의해 파괴되었던 유대교회당의 디지털 복원 ▶지역고유의 재료와 정확도에 근거하여 전통을 재해석하는 스위스 건축가들의 작업 등을 소개하였다.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10월호

사업에 있어서 건축의 기여도가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Business Week/Architectural



Record Awards의 수상작들을 소개하였으며, 근작으로는 소규모 개인 미술관인 Apennzell Liner 미술관의 절제된 디자인과 경제적인 환경설비를 다루었다. 아울러 건물유형연구로서 위락, 상업 복합시설을 자세히 실었다.

■ Business Week/Architectural Record Awards

지난해 이상의 수상작은 "좋은 디자인이 좋은 사업을 낳는다."고 하였다. 이는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건축이 하는 역할의 중대를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본 상의 선정 기준은 건축적 완성뿐 아니라, 사업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여 건축적으로 도움을 주었는가에 두었으며 심사위원은 사업가들과 건축가들로 구성되었다. Alcoa Corporate Center, MIT 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ABB Power Generation Ltd., 뉴저지 집합주택, Republic 유리공업 등의 수상작들을 건축주와 건축가의 인터뷰와 함께 소개하였다.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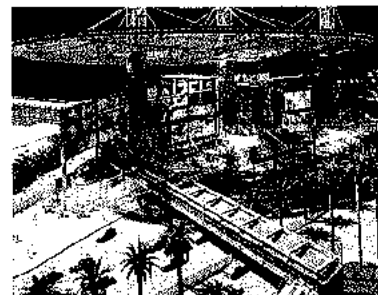
▶Gigon/Guyer의 스위스 Apennzell Liner 미술관



Carl Liner 부자의 회화작품을 소장하게 될 이 박물관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유지가 용이하도록 단순한 기술에 의해 지어졌다. 클래딩은 내구성이 요구되어졌으며 기후조절 시스템은 제한된 예산에 의해 가능하면 단순하게 적용되었다. 건축가는 전시실을 특수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공간으로 다루었으며, 평면을 융통성있게 조직하였다. 비늘처럼 금속 싱글에 의해 싸인 건물의 외관은 빛에 의해 변화하며, 입구 로비부분의 큰 유리창은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로부터 외부로 투사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며, 안쪽에서는 내부와 외부가 합쳐지는 지점이 된다. 갤러리의 크기는 소품 전시에 적당하게 조절되었다.

▶the Miller/Hull Partnership의 Yaquina 안내센터 등 4개의 관광안내소를 다루었다. 이들은 랜스케이프를 절묘하게 해석하여, 공원의 관광객을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초대하고 있다. 그 밖에 ▶기소 구로카와의 암스테르담 고호미술관 증축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 건물 유형 연구- 위락, 상업시설
상업시설 개발업자들은 체험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그리고 테마가 있는 쇼핑 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쇼핑센터에 극장, 레스토랑, 그리고 하이테크 비디오 아케이드가 결합되고 있다. 저가의 참고형 매장과 집에서 편히 주문하는 전자상거래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위락시설로의 통합은 전략적으로 재고되고 있다. 현 위락·상업시설은 ▶샌프란시스코 Metron 쇼핑센터 ▶Orne+Associates의 라스베가스 Fashion Show ▶Hodgetts+Fung



산디에고 Fashion Valley Center

Design 배경 Universal Studios Experience ▶ Altoon + Porter Architects의 산디에고 Fashion Valle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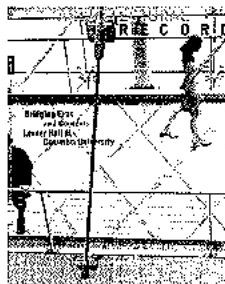
■ 기타

▶ Cooper-Hewitt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 "The Works of Charles and Ray Eames: A Legacy of Invention" 전시회 ▶ 건축가의 수입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 컴퓨터기술이 건축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Tech museum of Innovation과 Smith Academic 기술센터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11월호

건물 유형 연구로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도시적 상황에 적합한 초등학교를 다루었다. 최초



의 원주민 대학인 South Dakota, Sinte Gleska 대학의 캠퍼스 발전 과정과 최근 완성된 기술관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근작으로는 Bernard Tshcumi의 콜럼비아 대학 학생회관과 Alvaro Siza의 Serralves Museum을 자세히 다루었다.

■ 1999, 공공 집합 주택 사업

지난 7년간 연방과 지역의 주택국은 새로운 도시 생활 양식을 공공주택을 재건하는 데에 적응하여 왔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달성하였지만 그 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였다.

7억 달러예산 계획에 의해 고층건물 대신에 저층으로 이루어진 수천호의 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수입을 가진 커뮤니티가 시카고 Cabrini-Green에 개발 정체상태인 채로 있다. 반면에 민간 개발은 위의 개발과는 상관없이 19층의 보기 흉한 아파트먼트를 세우고 있다.

■ RoTo Architects의 South Dakota, Sinte Gleska 대학

최초의 미 원주민 대학인 이 학교는 1971년 단과대학으로 출발하였다. 90년대 초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대학의 마스터 플랜에서부터 각 건물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RoTo Architects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최근에 완성된 기술 센터는 에너지 절감의 측면에서 설비적으로 고려되었다. 태양열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남향을 취하였으며, 흙벽을 설치하여 열의 손실을 줄이도록 하였다. 부족한 예산 덕에 기본적인 설계 이후에는 학생들과 원주민들이 시공을 맡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 근작소개

▶ Bernard Tshcumi의 콜럼비아 대학



학생회관

콜럼비아대학의 이사장은 건축가에게 McKim Mead & White의 건축어휘로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Bernard Tshcumi는 건물이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티스보다는 뒤샹의 작업방식을 택했다. McKim의 마스터 플랜과 기존의 건물은 그가 다뤄야 할 기성품인 것이다. 뒤샹이 일상의 물품을 차용하여 그것을 잘라내고 프레임에 넣는 작업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결과는 세 건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되었

다. 브로드웨이에 면한 쪽에는 화강암, 벽돌, 인조 라임스톤, 유리 블록등의 재료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캠퍼스에 면한 부분은 벽돌 마감이 주를 이루며, 중간부분에는 전면 유리창과 스틸 프레임의 램프가 지그재그로 가로지르고 있다. 이 램프는 양 끝의 연결하고 있으며, 램프를 따라서 학생 각각의 우편함이 설치되었다.



▶ Alvaro Siza의 Oporto, Serralves Museum

시자의 고향이자, 포르투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Oporto시는 2001년 유럽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이다. 콘서트 홀은 렘콜하스의 안이 당선되었으며, 미술관은 시자에게 설계를 맡겼다. 그러나 시자가 이것을 설계하면서 지역 보존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때문에 그는 두 개의 사이트에 크기가 다른 네 개의 안을 준비하였고 결국 주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땅속에 거의 매입된 형태로 과수원 주변에 짓는 안으로 결정이 되었다. 길로부터의 출입구는 본 건물로부터 떨어져서 브리지로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 건물 유형 연구 학교

▶ Cunningham Group의 미네아폴리스 Interdisrict Downtown School ▶ Jeter, Cook & Jepson Architects의 코네티컷주 Wilbert Snow 초등학교 ▶ Kwan Henmi Architecture and Planning의 샌프란시스코 Jean Parker 초등학교 ▶ Ford Farewell Mills and Gatsch, Architects의 뉴저지 Far Hills Country Day School

■ 기타

▶ 새로운 도로의 소개와 기술적 정보 ▶ 공원의 야외조명에서부터 호텔, 전시장

Domus

1999년 10월호

에 이르기까지
간접 조명을 효
과적으로 사용
한 사례를 소개
하였다.

실험적인 건
축이 많이 소
개되었다. 거
주자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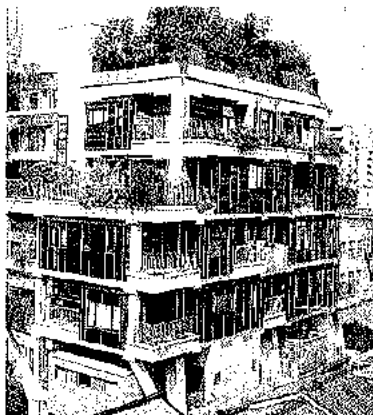
이 설계에 완전히 반영되는
Yositica Utida의 오사카 Next21
아파트먼트와 특수한 프로그램을 잘
풀어낸 Bosch Haslett의 Utrecht
임원 아동 가정을 위한 주거등을 다
루었으며, 공업디자인으로 레고의
변천과정과 디자인 철학 그리고 브
러쉬의 다양한 변형 디자인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 근작소개

▶ Frank O. Gehry의 Dusseldorf
각각 스티코, 스틸, 타일 마감 된 세 동의
건물은 형태적 독자성을 지닌 채 서있다.
디자인 과정의 처음 단계는 수제작된 모
델을 삼차원으로 스캔하는 것이다.
Catia라는 소프트 웨어에 의해 스캔된
데이터들은 현지도 작성 및 실제 패널을
제단할 수 있도록 변환된다. 모든 방향에
서 뒤돌리고 구부러진 파사드에는 총
1600개의 개구부가 뚫리게 된다. 다양
한 각도와 곡면에 따라 모든 창틀은 개별
적으로 고려되었다.

▶ Yositica Utida의 오사카 Next21 아
파트먼트

밀도가 높은 오사카시에 지어진 Next21
은 실험적인 건축으로서 21세기의 도시
주거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에 융통성이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
었다. 18개 세대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
먼트는 각 세대가 구조로부터 자유롭기



Yositica Utida의 오사카 Next21 아파트먼트

때문에 생활공간의 디자인은 전적으로
거주자에게 맡겨졌다. 벽체는 모듈러 시
스템에 의해 구성되며, 그리드에 따라 부
착 및 제거가 용이하도록 되었다. 거주자
는 내부공간을 임의로 조절하여 과도할
 경우에는 정원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 Charles Correa의 인도 보팔
Vidhan Bhavan 의사당

Correa는 결코 기능주의에 경도된 적이
없다. 그것은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표준에 크게 좌우되지 마련이다.
그는 세계주의자이며, 모더니스트인 반
면, 인도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영감을 얻는다. 이 국회의사당의 평면도
십자기와 원이라는 신화적 도안을 연상
시키는데 이것은 휴식과 일을 의미하는
상형문자를 가리킨다. 원형의 가장자리
벽 안에 십자형으로 여러실들이 배치되
어 있으며, 돔 지붕을 가진 회의실은 중
심으로부터 치우쳐져 위치하고 있어서
방문객들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 Bosch Haslett의 Utrecht 임원 아동
가정을 위한 주거
완벽한 시나리오에 의해 계획된 Utrecht
대학 캠퍼스 타운 건물중의 하나로서

Ronald McDonald 재단의 후원으로
임원 아동 가족을 위한 주거가 지어졌다.
건물은 다소 독특한 성격을 갖는데 단순
한 슬랩 사이에 무정형의 볼륨이 끼인 구
성을 취하고 있다. 표준과 그 일탈의 유
회는 추상화된 천장과 그 아래의 세분화
된 공간간의 유화로 읽힐 수 있다. 이 주
택은 매우 외향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으
며, 파사드의 개방은 슬랩 모서리부의 노
출에 의해 강조된다. 유틸리티 룸은 오브
제와 같이 처리되어 슬랩 사이에 삽입되
어 있다. 유기적인 각 실의 사이공간 즉,
복도는 십자형으로 놓여져 있으며, 계단
은 반복되어 계단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
라, 일층과 이층의 계단을 엇갈리게 놓았
다. 따라서 이층의 두 계단사이를 횡단하
도록 하여 콘코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 밖의 근작으로 ▶ Oswald Mathias
Ungers의 쾰른 주택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 산업디자인

▶ 제조업, 기술을 예술, 문화와 결합하려
는 디자이너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다
국적 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디자인을 제
공하는 Michelle de Lucchi와의 인터뷰
와 함께, 그의 Luigi Einaudi 수력 발전
소의 사인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이 프로
젝트는 사람들에게 각 발전소의 건물이
무슨 일을 수행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
는 사인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거대한 외
관의 그래픽 디자인과 내부의 방문객 진
입 안내 표시 디자인의 두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그 밖에 ▶ 컴퓨터 작업의 능률성을 고려
한 간단하고 콤팩트한 워크스테이션 디
자인 ▶ 아르헨티나 디자이너 Emilio
Ambasz의 제품 디자인 ▶ 다양한 브러
쉬의 활용과 디자인을 다뤘으며, ▶ 65년
의 역사를 갖는 Lego 디자인의 발전과
정을 다루었다.

■ 기 타

▶ Norman Foster의 베를린
Reichstag의 건축적 조명 ▶ 베니스 비
엔날레 리부가 특집으로 실려있다.

이번 호는 특
집으로 프랑
스의 건축가
패트릭 베르
제(Patrick
Berger)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베르제는 1947년 파리에서 출생하여 1974년부터 설계활동을 하고있는 작가이다. 그는 건축이 현재와 역사 속에 동시에 서게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건축을 만들어가는데 역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탐구의 주제로 삼고 있다. 본 특집에서는 부르고뉴의 사무동 및 오디토리움을 비롯하여 8개의 작품과 자크 뤼캉 등의 에세이 3편이 소개되고 있다.

■ 특집 - 패트릭 베르제의 건축

▶ 베르제의 건축언어와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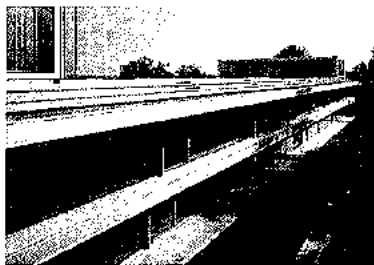
프랑스의 기호론자로 잘 알려진 롤랑 바르트는 만년인 1978년에 그의 마지막 논문 중에서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 패트릭 베르제에 의해 일신(一新)된 극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바르트는 언어의 문제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베르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학문의 문제는 기술한다는 행위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패트릭 베르제의 언어는 건축 그 자체와 엮여져 있다.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의 기술 이외에 어떠한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패트릭 베르제는 그의 작품속에 이따금 나타나는 몇 개의 언어 - 자연, 드로잉, 건축, 소재- 에 의하여 그의 건축을 생동감 있게 역사의 흐름 속에 각인시켜 가고 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 나타나는 건축으로, 의미를 탐구하는 건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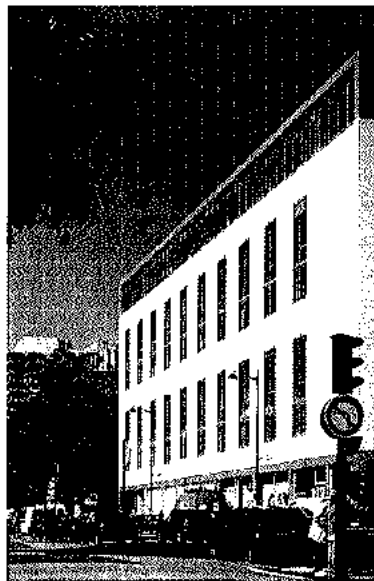
그의 건축은 현재 만들어내는 그의 건축을 역사의 맥락 속에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자기 자신의 작품활동에 대한 그 자신의 소개의 글을 통해 이러한 그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 베르제 건축의 주제 - 역사와 현재

건축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이 없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기표현으로서의 작품을 뛰어넘는 것을 만들어내려 할 때 그것은 가능한 한 비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베르제는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와의 관계 속에서



유럽축구연맹본부



아티스트의 로프트



바스테유 고가교 재이용계획

경험되는 것의 일부분을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시대를 특징짓는 것 중의 하나는 역사적인 것과 현실과의 대결이라는 문제라고 베르제는 지적한다. 그리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 대항 속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즉, '과거와 현재를 만나게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실현을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것들은,

- 현대 기술문화의 변화를 가미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형태.
- 새로운 사회적 관례 속에서의 공간과 현실적인 대응.
- 현재의 경관과 소재 그대로의 형태와 건축기술의 전승.

그는 여기서 이러한 충돌 속에서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를 '오늘날의 건축을 생각하는 가운데, 역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하여 시험해보고 있는 것이다.

▶ 작품

소개된 작품들로는 부르고뉴 대학 사무 및 오디토리움동, 유럽축구연맹본부, 인터네셔널 미디어를 센터(International Medieval Center), 바스테유 高架橋 재이용계획, 아티스트의 주택과 로프트, CDC·오피스 빌딩, 페르 라쉐즈 묘지, 커뮤니케이션의 기념비 등이며, 에세이로는 자크 뤼캉(Jacque Lucan)의 「언어와 미학적 감각」, 패트릭 베르제 자신의 글 「첫 번째 형상 - 축소된 시각」, 그리고 지난 호에 이미 소개된 전편에 이어 아디 샤미르 지온(Adi Schamir Zion)의 「새로운 모던: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의 건축」후편이 소개되었다.

건축문화

1999년 11월호

이번 호는 특
집으로 일본
의 건축가 아
오키 준(青
木 淳)의 작
품세계를 소
개하고 있다.
아오키 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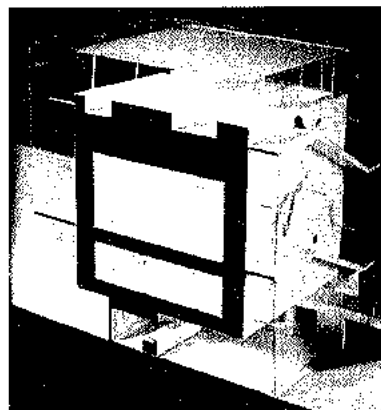
1956년생으로 동경대 건축학과를
나왔으며, 이소자키 아라타의 사무
실에서 근무한 후 1991년부터 그의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그의
주요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작
품을 만들어 갔던 작업에 초점을 맞
추어 작품의 완공시기가 아닌 작업
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
다.

■특집 - 아오키 준 1991-1999

▶아오키 준의 작품세계 - 개개의 작품을
통한 사유의 축적
그에게는 그의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일
반적인 이론이나 주제가 없다고 주장한
다.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이론
을 세우고 개개의 작품에 그것을 실현해
가는 태도와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
기이다. 오히려 그는 설계를 진행해 가면

서 개개의 과제에 담겨진 문제점들을 파
악해가며 그 해결에 매진하는 것을 그의
태도로 간주하고 있다. 당연히 개개의 작
품을 초월하는 추상론으로서 사회나 역
사, 혹은 이론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이 없으며, 또한 그럴 생각도 없다고 이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자주 사용한
단어로서 「동선(動線)」라는 것이 있는
데, 이것은 그가 그 자신의 작품을 시작
하면서 거의 동시에 언급한 말이다. 그후
종종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즐겨했으나,
이 말조차도 일상의 설계에서 떠올랐던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어떠한 일반론에 얽매이기보다는 개개
작품이 놓여진 상황과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그가 작업에 착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작품을 소개하면서 개개
의 작품을 진행하면서 고려했던 그의 사
유들을 그가 되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되돌아보며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하나의 이론
이 아닌 사유들의 축적들로 소개하고 있



C미술관



후쿠시마 박물관

는 것으로 보여진다.

▶작품소개/ 에세이

소개된 작품들은 1991년의 비히모스,
스테이션즈, 아쿠르트 독신자 기숙사 등
으로 시작하여, 니이가타 시민문화회관,
C미술관, 마미하라교, 후쿠시마 박물관,
유수관, 눈의 마을 미래관 등 주택에서무
터 문화시설, 다리, 학교, 상업시설에 이
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 23개의 작품
들이며, 이들 작품들을 진행하면서 주목
했던 점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
은 대부분이 잡지 등을 통하여 소개된 바
가 있으며, 8년간 그는 수 차례 일본 국
내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에세이로는
초카모토 요시하라의 「촉구 하이퍼세시
스(hyper-thesis) 모델」, 하나다 요시아
키의 「아오키 준론 서설」이 소개되었다.

회원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

금번 국세청의 전문직종에 대한 신용카드 가
맹점 가입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
는 회원사가 좀 더 저렴한 가격과 낮은 수수료
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
하여 카드조회기는 소비자가의 1/4수준으로
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은 적용을 4~5%보다
낮은 매출금액의 2.5%~3%로 책정기로 하
는 등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
련중에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본협회 또는 각
시도건축사회의 안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99. 하반기(2차) 가맹점 확대 조치 주요내용]

1. 업 종

서비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16개업종
추가(총 209개 업종)

※ 서비스업: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포함.

2. 지 역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 읍·면지역중 관광지역 등과 같이 세
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포함.

3. 사업규모

개인사업자: 98년도 수입금액이 4천8
백만원 이상(전문인적용역업종)

법인사업자: 지정업종 전체

□ 국무회의 심의(1999. 11.19)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법 제정안

제안이유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다.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민산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

되어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개발이익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함(안 제59조 내지 제62조).

□ 국무회의 심의(1999. 11. 13.)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도시계획법 개정안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분리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을 해소하며, 광역도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화·광역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간의 기능분담 및 환경보전과 광역시설의 설치 등 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연결하여 있는 2 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두되, 행위제한 등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57조).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2년 이내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게 함(안 제40조).

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도록 함(안 제41조).

마.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하여 도

시계획체제로 흡수함으로써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안 제43조 내지 제46조).

바.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안 제47조 내지 제53조).

사. 현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 지구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 지구의 지정 관리체계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함(안 제54조 내지 제56조).

□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99.12.6) 주요내용(건축설계용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4호)및동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1호)이 개정되어 설계감리자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업체의 지정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건설감리협회에서 감리

원경력확인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수료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되 실비의 범위안에서 협회가 자율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 명칭변경 : 단체설립 임의화에 대응한 것으로 예측됨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나. 종전에는 5억원 이상인 기본설계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당해 용역업체의 기술력을 평가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력 평가를 하여야 하는 용역을 5억원 이상인 기본설계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조정하여 기술력 평가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고난도 용역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술력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 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 (별표7)공공건축설계자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제2호 관련)

다. 종전에는 우수업체의 지정범위를 우수용역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의 5퍼센트 이내로, 우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수용역업체 및 우수건설업체 모두 대상업체의 10퍼센트 이

내로 지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8조 및 제48조의2).

[별표 7]

공공건축설계자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제2호관련)

비 고

1. 발주청은 설계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별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pm 20\%$ 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중에서 선택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의한다.

3.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점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4. 적격심사평가 또는 실시설계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예술·작품성 등 창의성, 작업계획 및 수법과 참여기술자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설계예정용역비의 규모 등에 따라 평가항목 다목의 참여기술자 평가항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평가배점범위를 5점 미만으로 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을 정한다.

6. 설계예정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획설계 수준에 의한 설계경기방식(1단계)과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방식(2단계)으로 할 수 있다.
7.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설계의 예술·작품성 등 창의성과 기능성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획설계 도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8. 참여건축사 및 기술자의 보유현황과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사무소소

[별첨7]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제2호 관련)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가. 설 계 의 예 술 · 작품성, 기능성 및 안 전성	- 도시계획 · 택지개발계획 · 단지계획 등의 적합성	80 (10)	- 도로 교통 및 단지계획과 도시미관·기능보호
	- 건축계획의 예술 · 작품성 및 기능성	(25)	- 계획의 타당성 · 창의성 · 독창성 및 기능성과 공공기여도,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반영
	- 건축구조 및 시공계획의 기술성 및 안전성	(15)	- 구조의 안전성 · 시공의 적정성(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및 내구성과 발주청 요구사항 등의 기능성
	- 주변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와 문화의 기여도	(15)	- 식재 · 조경 · 조형물 · 도시안내시설 등 공공시설물, 문화공간 등의 설치 등과 커뮤니티의 이벤트 기획능력
	- 경제성 및 공공성	(10)	- 설계 및 자재표준화, 우리나라의 기후 · 풍토 등 실정에 맞는 자재의 사용계획과 에너지 절약 등의 경제성, 공공의 기여도,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및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정도
	- 대안의 제안과 신기술 및 공법의 제시	(5)	- 기본설계에 대한 개선안 제안 등의 평가와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적용
나. 작업계획 및 기법	-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10	- 과업수행 세부계획 ·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주민의 의견청취,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다. 참여 기술자 및 용역실적	- 해당분야 경력	10	- 책임건축사 및 분야별 책임설계자 경력 등
	- 해당분야 유사설계 - 전치설계실적		- 용도, 구조, 설비 등의 유사한 설계 - 계획설계 또는 기본설계

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가점 등을 받은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는 당해 설계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10.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사설계 또는 전차설계실적과 입찰참가제한기간 등은 공동도급업체의 것과 합산하며, 재정상태건실도 등은 각 공동도급회사에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유사설계 또는 전차설계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의 범위 안에서 차등 평가할 수 있으며, 건축설계집행계획 공고시 전기설계용역업체와의 공동참가를 의무화할 수 없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12.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나, 가점 또는 감점의 합계는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가.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최근 1년간 조사·설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간에 따라 차등 감점

나.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공고내용에 위배되었거나 컴퓨터그래픽, 모형, 투시도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면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

다.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최근 1년간 조사·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 1인마다 2.5

점(발주청의 장 : 0.5점, 장관 : 1점, 국무총리 : 1.5점, 대통령 : 2점, 훈·포장 : 2.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점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
라. 건축설계사무소가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점

별표7 개정 주요내용

- 배점범위조정 및 평가방법 세분화(개정)
 - 예술성 및 작품성 : 70 → 80
 - 기술자평가 : 15 → 10
 - 수행방법 : 15 → 10
- 발주자의 평가항목별 조정범위 설정 (신설)
 - 20%의 범위 제시
-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 평가방법 언급 (신설)
- 단계별 설계경기방식 도입(신설)
 - 5억이상 용역발주시 1단계 (설계경기방식)과 2단계(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방식)로 적용할 수 있음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제시(신설)
 - 설계실적 및 재정건실도 등의 평가 방식 제시
 - "전기설계용역업체와의 공동 참가 의무화 할 수 없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72호/ '99. 12. 11)

개정이유

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 시공되는 내화구조의 품질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한국건축내화협회 지

정)에서 감리자로 변경하고, 내화구조의 지정권자를 일원화 하는 등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고, 내화구조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을 정하여 건축비용의 절감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한국건축내화협회지정)만이 공사현장의 내화구조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협회가 내화구조의 생산자단체이므로 이를 건축물의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함.

나. 불연재료중 시멘트모르타르·회 등 미장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인 경우 불연재료로 인정함.

다. 계단의 난간·벽등의 손잡이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이는 중복규제이므로 삭제함.

라.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1층(중2층 포함)의 건축물로서 화재의 위험도가 적은 별첨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은 내화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마. 내화구조, 차음구조, 방화문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규칙으로 상향조정.

바. 내화구조, 차음구조 및 방화문의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이의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보고 또는 조사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함.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10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98.10) 2백6십4만7천60㎡ 보다 169.8%(4백4십9만5천1백64㎡) 증가한 7백1십4만2천2백24㎡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0월 누계분 4천3백7십1만3천1백46㎡ 보다 19.4%(8백4십7만6천8백5㎡) 증가한 5천2백1십8만9천9백51㎡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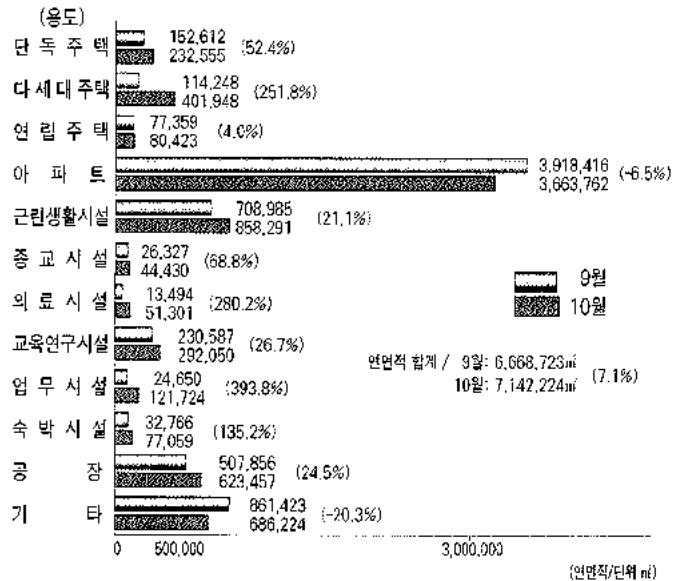
다. 전월비

전월 9월분(98.12) 6백6십6만8천7백23㎡보다 7.1%(4십7만3천5백1㎡) 증가한 7백1십4만2천2백24㎡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102,016	3,464,679	2,362,663	214.4
	대구	75,103	609,200	534,097	711.2
	광주	128,998	507,000	378,002	293.0
	대전	42,951	68,315	25,364	59.1
	울산	7,704	73,872	66,168	858.9
	경기	211,487	1,169,483	957,996	453.0
	강원	61,550	93,785	32,235	52.4
	충북	38,111	130,332	92,221	242.0
	충남	51,373	127,230	75,857	147.7
	전남	60,054	97,835	37,781	62.9
	경북	35,736	127,237	91,501	256.0
	경남	100,014	304,075	204,061	204.0
	제주	11,145	52,905	41,760	374.7
감소지역	부산	285,861	113,423	(172,438)	-60.3
	인천	213,206	121,495	(91,711)	-43.0
	전북	221,751	81,358	(140,393)	-63.3
합계		2,647,060	7,142,224	4,495,164	1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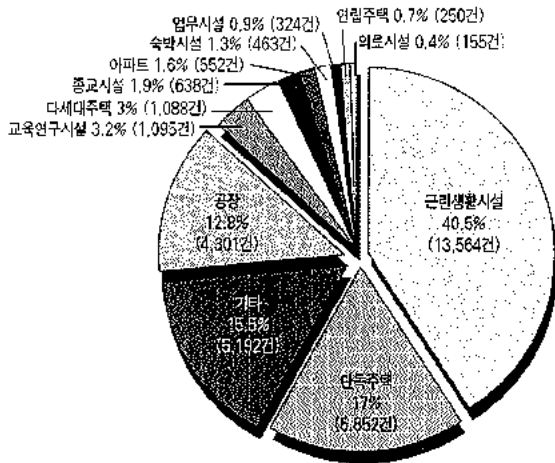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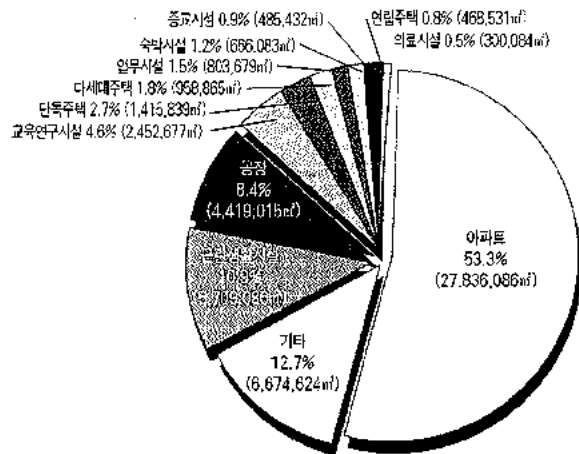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57	367	76,439	811	865	232,555	454	493	156,116	204.2	
다세대주택	53	55	22,734	210	241	401,948	157	186	379,214	1,668.0	
연립주택	14	14	21,846	43	46	80,423	29	32	58,577	268.1	
아파트	24	61	1,349,656	90	196	3,663,762	66	135	2,314,106	171.5	
근린생활시설	1,006	1,054	282,884	1,494	1,571	858,291	488	517	575,407	203.4	
종교시설	60	66	29,033	54	56	44,430	(6)	(10)	15,397	53.0	
의료시설	8	9	5,727	21	23	51,301	13	14	45,574	795.8	
교육연구시설	89	90	154,808	121	122	292,050	32	32	137,242	88.7	
업무시설	29	32	76,039	45	51	121,724	16	19	45,685	60.1	
숙박시설	32	34	26,410	66	68	77,059	34	34	50,649	191.8	
공장	233	292	187,775	562	683	623,457	329	391	444,682	236.8	
기타	497	607	413,709	736	865	686,224	239	258	272,515	65.9	
합계	2,402	2,681	2,647,060	4,253	4,787	7,142,224	1,851	2,106	4,495,164	169.8	()=미아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10월분)



건수 (총 33,474건)



면적 (총 52,189,951㎡)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면적	건 수	동 수	면적	건 수	동 수	면적		
서울	296	301	1,102,016	814	817	3,464,679	518	516	2,362,663	214.4	
부산	64	131	285,861	123	211	113,423	59	80	172,438	-60.3	
대구	105	105	75,103	237	237	609,200	132	132	634,097	711.2	
인천	137	143	213,206	140	140	121,495	3	(3)	(91,711)	-43.0	
광주	90	117	128,998	86	136	507,000	(4)	19	378,002	293.0	
대전	79	79	42,951	84	84	68,315	5	5	25,364	59.1	
울산	30	33	7,704	86	86	73,872	56	53	66,168	858.9	
경기	512	604	211,487	1,177	1,382	1,169,483	685	778	957,996	453.0	
강원	146	156	61,550	123	149	93,786	(23)	(7)	32,235	52.4	
충북	122	138	38,111	243	268	130,332	121	130	92,221	242.0	
충남	110	95	51,373	190	190	127,230	80	95	75,857	147.7	
전북	199	199	221,751	165	172	81,358	(34)	(27)	(140,393)	-63.3	
전남	148	154	60,054	134	137	97,835	(14)	(17)	37,781	62.9	
경북	132	142	35,736	227	269	127,237	95	127	91,501	256.0	
경남	189	235	100,014	318	380	304,075	129	145	204,061	204.0	
제주	43	49	11,145	106	129	52,905	63	80	41,760	374.7	
합계	2,402	2,681	2,647,060	4,253	4,787	7,142,224	1,851	2,106	4,495,164	169.8	()=다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0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면적	건 수	동 수	면적	건 수	동 수	면적		
서울	4,703	4,762	23,547,975	4,263	4,284	28,139,371	(440)	(478)	4,591,396	19.5	
부산	1,462	2,575	2,698,451	1,532	2,223	1,400,850	70	(352)	(1,297,601)	-48.1	
대구	1,000	1,000	797,347	1,649	1,649	1,724,452	649	649	927,105	116.3	
인천	1,250	1,266	1,955,173	1,128	1,169	2,346,886	(122)	(97)	391,713	20.0	
광주	933	1,160	762,643	1,205	1,481	1,406,286	272	321	643,643	84.4	
대전	730	730	610,880	885	885	541,541	155	155	(69,339)	-11.4	
울산	445	471	247,983	919	932	622,566	474	461	374,583	151.1	
경기	6,728	7,847	5,129,589	7,759	9,401	7,901,237	1,030	1,554	2,771,648	54.0	
강원	1,854	2,053	958,304	1,703	1,877	725,996	(151)	(176)	(232,308)	-24.2	
충북	1,712	2,094	1,858,041	2,199	2,500	1,254,231	487	406	(603,810)	-32.5	
충남	1,628	1,364	865,071	1,824	1,824	1,061,172	196	460	196,101	22.7	
전북	926	926	724,280	1,271	1,299	775,719	345	373	51,439	7.1	
전남	1,112	1,215	567,934	1,637	1,693	836,941	525	478	269,007	47.4	
경북	1,611	1,798	847,768	1,954	2,271	1,240,732	343	473	392,964	46.4	
경남	1,963	2,420	1,886,516	2,704	3,158	1,870,560	741	738	(15,956)	-0.8	
제주	613	719	255,191	842	956	341,411	229	237	86,220	33.8	
합계	28,670	32,400	43,713,146	33,474	37,602	52,189,951	4,804	5,202	8,476,805	19.4	()=다이너스